FULLER
THEOLOGICAL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4-1-2015

부부관계 예방 및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PREPARE/ENRICH를 중심으로

Hoo Sug Lee 이후석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후석, "부부관계 예방 및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PREPARE/ENRICH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MALL GROUP PROGRAM FOR NEWLY MARRIED COUPLES TO PREVENT PROBLEMS AND ENRICH THEIR RELATION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EPARE/ENRICH PROGRAM

written by

HOO SUG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Oh Gueon Kwon

David Jangsoon Pak

Jin Ki Hwang

April 1, 2015

A SMALL GROUP PROGRAM FOR NEWLY MARRIED COUPLES TO PREVENT PROBLEMS AND ENRICH THEIR RELATION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EPARE/ENRICH PROGRAM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HOO SUG LEE

APRIL 2015

부부관계 예방 및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 PREPARE/ENRICH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오 균 교수

이 후 석

2015년 4월

Abstract

A Small Group Program for Newly Married Couples to Prevent Problems and Enrich Their Relationship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EPARE/ENRICH Program

Hoo Sug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 healthy church is only possible with healthy families, which rise out of healthy marriages. An effective means to develop healthy marriages involves prevention ministry, which proactively alleviates potential problems or sources of conflict between couples, and edification ministry, which addresses similar problems and factors throughout marriage.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a newlyweds small group program to prevent possible problems and to strengthen marriages for recently married couples through a small-group mentoring,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Chapter 1 serves as the introduction, which describes the motive, purpose, limits, and method of the research. Chapter 2 observes biblical understandings of marriage and family, along with a theological basis for the Christian family and a partnership model based on biblical purposes and structures of equality between spouses. Chapter 3 recognizes the problematic state of family ministry in the Korean church and explores the essential factors for healthy marriage and the need for prevention and edification ministries.

Chapter 4 analyzes one of the models of effective marriage ministry, the PREPARE/ENRICH program, collect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evidence that warrants the development of newlyweds small-group programs. Chapter 5 extends the analysis in order to develop such a program, applying the findings

regarding PREPARE/ENRICH; the ensuing program is evaluated and possible improvements suggested. Chapter 6 summarizes the research on the newlyweds small-group program, presents its limitations, and concludes the paper by identifying further research needs for healthy marriages and organization of Korean-church family ministry. I am hopeful that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building healthy churches, families, and marriages through the newlyweds small-group program for prevention of martial problems and marriage edification.

Theological Mentors: Oh Gueon Kwon, PhD
David Jangsoon Pak, PhD
Jin Ki Hwang, PhD

감사의 글

먼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권오균 교수님과 박장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사역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신 엄예선 교수님과 늘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황진기 학장님, 그리고 논문의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아들을 귀히 여기시고 불철주야 기도로 지원해주신 어머니 오기순 사모님, 항상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장인어른 최병곤 목사님과 장모님 정영자 사모님, 그리고 영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지지해주고 도움을 아끼지 않은 나의 영원한 동역자인 아내 이경자 사모와 세 딸, 예원(Debbie), 명원(Mary), 하원(Grace)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사역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가정사역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헌신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이후석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 2 장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의미 ····· 7
제 1 절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 ····· 8
1.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기원 ····· 8
2. 성경적 관점으로 본 기독교인의 결혼 ····· 10
3. 성경적인 기독교인 가정의 토대 ····· 12
제 2 절 기독교인 가정의 성경적인 부부관계 ····· 14
1.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목적 ····· 15
가. 행복 추구의 목적 ····· 15
나. 출산과 양육의 목적 ····· 16
다. 은혜와 사랑의 목적 ····· 17
라. 능력부여의 목적 ····· 18
2.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필수 요소 ····· 19
가.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 ····· 19
나. 부부간의 '자발적 헌신' ····· 22
3.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모델 ····· 24
제 3 절 요약 ····· 29

제 3 장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필요성 ····· 31
제 1 절 한국 교회의 가정사역 ····· 32
1. 한국 교회 가정사역의 현실 ····· 32
2. 한국 교회 가정사역의 문제점과 과제 ····· 34

제 2 절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핵심 과제 ····· 37
1. 치료적 전략이 있는 부부 문제 예방사역 ····· 37
2.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부부관계 강화사역 ····· 38
제 3 절 요약 ····· 39

제 4 장 부부문제 예방 및 관계 강화를 PREPARE/ENRICH 프로그램 ····· 41
제 1 절 부부사역의 현황 및 프로그램들 ····· 41
1. 미국 내 부부사역의 현황 및 프로그램들 ····· 41
2. 한국 내 부부사역의 현황 및 프로그램들 ····· 42
3. 부부사역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들 ····· 44
4. 부부사역 프로그램의 문제점들 ····· 45
제 2 절 PREPARE/ENRICH 프로그램 ····· 46
1. PREPARE/ENRICH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 46
가. PREPARE/ENRICH 프로그램의 역사와 발전단계 ····· 46
(1) PREPARE (Original & Second Version) ····· 46
(2) ENRICH & PREPARE-MC (Marriage with Children) ····· 47
(3) PREPARE, PREPARE-MC & ENRICH (Fourth Version) ····· 47
(4) MATE (Mature Age Transitional Evaluation) ····· 48
(5) PREPARE/ENRICH-Version 2000 (Fifth Version) ····· 48
(6) PREPARE-CC (Cohabiting Couples) ····· 48
(7) PREPARE/ENRICH-Customized Version (Sixth Version) ····· 49
(8) ENRICH Korea (https://www.enrichkorea.com/) ····· 49
나. 맞춤형 PREPARE/ENRICH 프로그램의 개관 ····· 50
2. PREPARE/ENRICH의 주요 개념과 특성들 ····· 52
가. P/E 커플 유형들(Couple Typology) ····· 52
나. 다양한 내용 영역들(Content Areas) ····· 54
(1) 핵심 척도들(Core Scales) ····· 54
(2) 관계 역동(Relationship Dynamics) ····· 55

(3)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Personal Stress Profile) ····· 55
(4) 커플과 가족지도(Couple & Family Map) ····· 56
(5) SCOPE 성격 척도(SCOPE Personality Scales) ····· 57
(6) 맞춤형 척도들(Customized Scales) ····· 57
다. P/E 설문지 사용의 목표 ····· 58
3. PREPARE/ENRICH 피드백 나눔 과정 ····· 58
가. 남녀 응답에 대한 항목 분석 ····· 59
나. 핵심 커플 연습과제 ····· 59
(1) 관계강점 영역과 성장필요 영역에 대한 나눔 ····· 59
(2) 자기주장(표현)과 적극적 경청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연습 ····· 59
(3)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 ····· 60
(4) 갈등해결을 위한 10단계 ····· 60
(5) 커플과 가족지도(Family & Couple Map) ····· 60
(6) SCOPE 성격 특성 ····· 61
다. 선택적 연습과제 ····· 61
라. 피드백 나눔 과정의 목표 ····· 62
4. 소그룹을 위한 PREPARE/ENRICH 그룹 프로그램 ····· 62
가. P/E 그룹 프로그램의 활용 ····· 62
(1) 그룹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 63
(2) 그룹 워크숍 ····· 63
(3) 강사의 역할 ····· 64
(4) 그룹 규칙 ····· 64
나. P/E 그룹 프로그램 워크숍 ····· 65
(1) 환영(Welcome) ····· 65
(2)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65
(3)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66
(4) 강의 요점(Teaching Point) ····· 66
(5)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66

(6)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66
(7)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 66
다. P/E 그룹 프로그램의 효과성 ····· 67
5. PREPARE/ENRICH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68
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용이한 접근성 ····· 68
나.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접근방식 ····· 68
다. 예방적 도구 및 능력 강화의 도구 ····· 69
라.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 ····· 69
마.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영적 만족도 ····· 70
6. 한국판 ENRICH의 타당화와 표준화 ····· 71
제 4 절 요약 ····· 73

제 5 장 부부문제 예방과 관계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 ····· 74
제 1 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 74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신혼부부 시기의 특성 ····· 74
2. 부부 멘토링 사역 ····· 78
가. 멘토링의 의미와 특성 ····· 78
나. 멘토링의 종류 ····· 80
다. 부부 멘토링 사역 ····· 81
3. 부부 성장 소그룹 모델 ····· 82
가. 소그룹의 의미 ····· 83
나.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기초 ····· 84
다. 대체 대가족으로서의 부부 성장 소그룹 ····· 86
(1) 소그룹의 세 가지 형태 ····· 86
(2) 부부 성장 소그룹 ····· 87
제 2 절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 ····· 88
1.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 88
2.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과제 ····· 88

가.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89
나. 프로그램 개발의 실천적 과제 ····· 89
(1) 동기부여 문제 ····· 90
(2) 사후관리 문제 ····· 91
3. 예방 및 강화사역 차원의 PREPARE/ENRICH 프로그램 ····· 92
가. 동기부여를 위한 혼전상담: P/E 설문지 사용 ····· 92
(1) 첫 번째 혼전상담: P/E 프로그램 소개와 P/E 설문지 등록 ····· 93
(2) 두 번째 혼전상담: P/E 설문지 결과에 대한 검토와 후속 질문 ····· 94
(3) 세 번째 혼전상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 95
(4) 네 번째 혼전상담: 결혼식에 대한 준비 및 점검 ····· 95
나. 부부문제 예방을 위한 P/E 그룹 프로그램 ····· 95
(1) P/E 소그룹 구성 ····· 96
(2) P/E 그룹 프로그램 시행 시기 ····· 96
(3) P/E 그룹 프로그램 진행 방식 ····· 96
(4)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 ····· 97
4. 사후관리를 위한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 98
가.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 멘토링 ····· 98
(1) 독서 요법(bibliotherapy)을 통한 부부 멘토링 ····· 98
(2) 커플 검사(Couple Checkup)를 통한 부부 멘토링 ····· 99
(3) 멘토 부부 교육 및 돌봄 ····· 99
나.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 100
(1) 신혼부부 소그룹 구성 ····· 100
(2) 신혼부부 소그룹의 특성 ····· 101
(3)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의 방법론 ····· 102
제 3 절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적용 및 평가 ····· 103
1. P/E 개별 프로그램의 사전준비 차원의 적용 ····· 104
가. 결혼 상담자 훈련 워크숍 참가 ····· 104
나. 표본 커플들에 대한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 ····· 105

다. 심층적 피드백 나눔과 상담 사례 ····· 107
(1) P 부부에 대한 프로파일 ····· 108
(2) P 부부에 대한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 ····· 108
(3) 상담 사례에 대한 평가 ····· 109
2. P/E 그룹 프로그램의 실험적 적용 및 평가 ····· 110
가. 담임목사 부부에 대한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 ····· 111
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P/E 그룹 프로그램 시행 ····· 111
다. P/E 설문지 사전 검사와 사후 재검사 결과 및 분석 ····· 113
라. 신혼부부 소그룹 구성 및 시작 ····· 115
3.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 ····· 116
가.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필요성 ····· 116
나. 지역 교회에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 117
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필수여건들 ····· 117
(1)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 118
(2)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 ····· 118
(3) 신혼부부들의 필요성 인식 ····· 118
라.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 119
마. 프로그램의 단점 해결책과 보완책 ····· 120
제 4 절 요약 ····· 122

제 6 장 결 론 ····· 124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24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및 제언 ····· 127

부록 1. 혼인-이혼 추세 및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와 구성비 추이 ····· 129

부록 2. PREPARE/ENRICH 그룹 프로그램의 워크숍 진행 지침 ····· 131

부록 3. 약혼한 커플들을 위한 후속질문들(Follow-Up Questions) ····· 146

부록 4.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의 주제와 나눔 가이드 샘플 ····· 148

부록 5.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 - I ····· 151

부록 6.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 - II ····· 154

부록 7. PREPARE/ENRICH 그룹 프로그램 커플 평가서 ····· 157

부록 8.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 ····· 159

참고 문헌 ····· 160

Vita ····· 167

표 목 차

<표 1> 상담자 피드백 가이드(Facilitator's Feedback Guide) ····· 51
<표 2> PREPARE/ENRICH의 커플 유형들 ····· 53
<표 3> 네 가지 관계 역동 척도 ····· 55
<표 4> 커플 및 가족지도 ····· 56
<표 5> 송성자 모델의 가족생활 주기의 체계변화 ····· 76
<표 6> 핵심 척도들에 대한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 - I ·· 106
<표 7> P/E 그룹 프로그램 참여 부부들의 인적 사항 ····· 112
<표 8> P/E 그룹 프로그램 커플 평가서 설문 결과 ····· 113
<표 9> 핵심 척도들에 대한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 - II ·· 114

제 1 장
서 론

본 논문은 한인 이민교회를 포함하는 한국 교회[1]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사역에 대한 연구이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대전제 아래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부부문제 예방 및 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시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신혼기에 맞추어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가장 주된 매개체"[2]인 동시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사역"[3]인 소그룹 사역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현대 사회는 산업화에 따르는 도시화,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에 의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역기능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외적인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컸던 과거와는 달리 부부간의 질적인 관계, 즉 부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부부의 친밀할 관계에

---

1) 본 논문의 '한국 교회'라는 말은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며, 굳이 분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라는 식으로 설명을 붙여서 사용할 것이다.
2)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 역 (서울: SFC출판사, 2007), 5.
3)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신문사, 2000), 18.

대하여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면 쉽게 별거나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관계의 역기능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 통계청(http://kostat.go.kr/)이 발표한 "2010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4]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이혼 건수는 계속 급증하여 2003년에 166,617건으로 최고치를 보였고, 같은 해 혼인 건수가 302,503건이었음을 볼 때 혼인 대비 이혼율이 55퍼센트에 달했다. 또한, 결혼 후 동거기간별 이혼율을 보면 동거기간이 4년 이내에 이혼한 신혼부부의 숫자가 2003년에 40,925건으로 가장 많아서 전체 이혼 건수의 24.6퍼센트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그나마 20년간의 통계 중 가장 낮은 것이었다.[5]

이처럼 일반적으로 결혼 후 동거기간이 4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점과 함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기독교인들의 이혼율 역시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05년 출간한 "한국 교회 미래리포트"에 따르면,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개신교인 응답자 중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49.5퍼센트나 된다. 이는 98년의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35.9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13.6퍼센트나 증가한 수치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에 근거하여 "한국 교회 미래리포트"는 한국 교회에 '결혼을 전후한 교인에 대한 목회'가 절실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6]

이상과 같이 기독교 가정의 붕괴 현상이 그 심각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실 상황에 따라 한국 교회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하여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예방사역으로서의 혼전상담이나 결혼예비학교 등의 프로그램과 건강한 부부관계의 향상

---

4)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는 <부록 1>에 나오는 "혼인-이혼 추세, 1970- 2010"에 대한 지표와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 1990-2010"에 대한 지표를 참조 바람.

5) 미주 한인 이민사회의 이혼에 대한 통계는 미주 한인들의 신분형태의 다양성과 분명한 인구통계의 어려움 등과 같은 제약조건들로 인해 정확히 집계되어 보고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구촌가정훈련원'에서 미주 교민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재미교포 결혼실태 보고서"(2007)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이민자의 이혼율은 본국과 비교하면 3배가 높으며, 여성의 경우 본국보다 5배가 높다. 상당수 이민자는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후에 미국에 오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 한인 미주 이민사회의 이혼율이 한국 사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Online: http://114.108.176.43/saybbs/board.php?board=jigawon&config=43&page=5&category=16&command= body&no=894).

6) 출처: 조선일보 2004년 1월 27일자. (Online: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501/200501270406.html).

과 강화, 그리고 회복을 위한 결혼상담이나 부부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긍정적인 증가추세이지만 그 실효성을 평가해 볼 때 여전히 도전되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예방사역 차원에서 시행되는 예비부부에 대한 혼전상담이나 결혼예비학교 등의 프로그램은 결혼 전에 예비부부들이 결혼준비로 인해 분주하여 시간을 잘 낼 수 없다는 현실 문제와 아직 실제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되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해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참여하더라도 매우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라는 시기적 요인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또한, 부부관계 향상과 강화, 그리고 회복을 위한 결혼상담이나 부부학교 등의 프로그램도 결혼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계속되는 자녀양육 및 교육 등으로 분주해짐에 따라 시간을 잘 낼 수 없다는 현실 문제와 결혼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많은 부부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을 겪은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시기적인 요인 때문에 예방사역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효과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자는 교회의 청년부에 속해 있다가 막 결혼을 하게 된 신혼부부들이 기존의 소그룹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잘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또한, 그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다시 청년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낳을 때쯤 해서 기존 소그룹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혹은 아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목회경험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하여 교육과 상담을 통한 부부문제 예방사역과 부부관계 강화사역을 시행하되, 특별히 훈련된 평신도 멘토 부부들로부터 지속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소그룹 사역 프로그램으로 시행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하는 신혼부부 및 젊은 부부를 위한 가정사역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사회적인 현실 인식과 교회적인 필요 인식에 따라 기독교인 부부들과 그들의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문제 예방사역과 부부성장을 위한 관계 강화사역'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현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사역

방법의 하나로 평가되는 소그룹 사역을 활용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굳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결혼 전이나 자녀 출산 이후와 비교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새로운 가정의 출발과 함께 신앙적인 출발에 대한 각오도 있으며 어느 때보다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신혼부부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부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교회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가정으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리라는 기대와 전망 및 신념을 지니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대부분의 일반 가정생활이나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적 기초를 가지고 많은 상담기법을 활용하거나 가족체계이론과 같은 사회학적 이론들의 근거를 가지고 접근한다. 하지만, 기독교인 부부관계를 다루는 부부사역을 비롯한 모든 가정사역은 올바른 성경해석학적 근거를 가지는 신학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기초 위에 세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가정, 그리고 부부 동등성 이론에 근거한 부부의 성경적 동역자 관계에 대한 문헌 연구 등을 통하여 기독교인 가정의 근간이 되고 가족의 핵심 단위가 되는 기독교인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동시에 부부사역의 예방적 국면과 치료적 전략, 그리고 관계 회복과 같은 실천적인 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본 논문의 연구 동기와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 상담 및 워크숍 방법들을 사용하되 성경적이면서 복음주의적 신학에 의해 검증된 상담이론과 기법들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사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부부문제의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사역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결혼 후 2년 전후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되 결혼 직전의 예비부부 시기부터 결혼 후 4년 이하의 젊은 부부들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그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또한, 교회의 다양한 사역방법들 가운데 상담교육에 쉽고 치유 및 회복에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멘토 부부와

4-5쌍의 신혼부부 내지는 젊은 부부들로 구성된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로 그 범위를 한정하려고 한다.

본 연구자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성경적 원리, 그리고 부부 갈등의 처리와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상담심리학 이론들을 분석 및 적용하기 위하여 각종 가정사역 및 상담심리학 관련 서적들과 논문, 연구서적, 학술지 등 다양한 연구 자료에 관해 문헌연구를 할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방침에 대한 연구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부부관계 향상 및 강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인 부부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부부사역 프로그램 모델인 'PREPARE/ENRICH 프로그램'[7]에 부부 성장 소그룹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신혼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프로그램 참여 후 사후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건강한 가정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건강한 부부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진단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건강한 가정의 필요성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제언을 재시할 생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하여, 2장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위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 가정의 토대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목적과 함께 부부 권력구조의 동등성 이론에 근거한 동역자 모델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교회의 가정사역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요소들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예방사역 및 강화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얻기 위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헌연구와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의 실태 파악 및 분석 연구와 함께

---

7) PREPARE/ENRICH 프로그램은 1977년에 David H. and Karen Olson이 Joan M. Druckman과 David G. Fournir와 함께 개발하여 6번의 개정을 통해 최근 맞춤형 온라인 버전이 재시된 결혼준비 및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최근에 교회의 약혼한 커플이나 신혼부부 및 젊은 부부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재시된 PREPARE/ENRICH 그룹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자료가 될 것이다. (cf. Online: https://www.prepare-enrich.com/)

PREPARE/ENRICH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적 연구를 시행하고, '부부 맨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분석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6장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우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와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필수적인 한국 교회 가정사역의 체계화에 대한 제언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제 2 장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의미

본 장에서는 모든 가족관계의 기초인 동시에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일반적 의미로 볼 때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들이 함께 사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말한다. 가정사역과 관련된 수많은 가정에 대한 정의들[8] 가운데, 이효재는 "가정은 가족이 의식주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집안으로서 온정이나 사랑에 기반을 둔 정서적 유대와 서로 소속감을 느끼는 연대의식을 가지는 공동체"[9]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가정'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울타리 안을 의미하는 관계적 공간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일차적으로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근친관계를 이루는 혈연 관계자들을 의미하지만, 확대적로는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구성단위로서 결혼, 혈연 또는 입양 등을 통하여 연대적 관계를 맺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라는 사회적 역할들을 수행하며 정서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더불어 영위하는 사람들의 결합체 혹은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가정에 대한 이효재의 정의를 본 논문에 적합하게 수정한다면, "가정은 부부관계를 핵심으로 하여 혈연, 혼인, 입양 등의 관계로 구성된 가족이 온정이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유대와 서로 소속감을 느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의식주를 공동

8) 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14-25를 참조 바람.
9)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3), 6-7; 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24에서 재인용.

으로 영위하며 함께 생활하는 관계 공동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 1 절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

부부는 가정의 핵심 단위이고, 가정의 모든 가족관계의 기초는 부부관계이며,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결혼으로부터 시작된다.

1.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기원

결혼과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초대교부 중 하나였던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이 말한 대로,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10]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의 계획과 의지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의 결혼에 의한 부부관계를 통해 친히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주셨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요 기관인 동시에 최고의 제도요 기관이다. 이에 대하여 Maston은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제도이다. 시간상으로 첫 번째이고 또한 그 중요성에서도 첫 번째이다. 모든 기본적인 제도들, 즉 가정, 교회, 국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첫 번째는 가정이다."[11] 라고 주장했다. 또한, Emil Brunner는 창조의 한 구체적인 영역이며 또한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의 가정'을 말하면서, 가정은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의 신성한 질서라고 했다.[12] 그리고 Charles Sell은 이상과 같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근거하여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를 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기초를 둔 것"[13]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의하여 결혼을 통해

---

10) Charles M. Sell, *가정사역 (Family Ministry)*, 정동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149.
11) Thomas B.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Bible and Family Relations)*,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75.
12) Emil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London: Lutterworth Press, 1937), 345;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82에서 재인용.
13) Sell, *가정사역*, 127.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며 기관인 가정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은 인류 최초의 제도요 기관인 동시에 최고의 제도요 기관이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부터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14] 그 둘이 가정의 핵심 단위인 부부가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부부관계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라는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까지 주신다(창 1:28). 이러한 축복과 사명을 따라 인류 최초의 제도이자 기관인 가정은 확장되어 '가구'[15]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큰 민족'과 '여러 민족'[16]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해되는 가정은 자신들의 선택이나 편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사명까지 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준된 최초로 시작된 최고의 사회제도인 것이다.

신약에 나오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물으며 시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남자와 여자(마 19:4; 막 10:6)를 통한 최초의 가족관계인 부부관계와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세우신 가정에 대한 거룩함의 안준을 재확인해주셨다(마 19:5-6; 막 10:7-9).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핵심이 되는 가족관계로서의 남자(남편)와 여자(아내)는 혼인을 통하여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음(마 19:6; 막 10:9)을 분명히 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신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사랑과 상호 복종을 핵심 가치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부부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

14) 이하의 모든 성경번역은 한글개정개역을 따른다.

15)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household)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창 7:1),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household)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

16) "내가 너로 큰 민족(a great nation)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a multitude of nation)의 아비지가 될지라"(창 17:4)

2. 성경적 관점으로 본 기독교인의 결혼

Otto Baab은 성경에 나오는 결혼을 일곱 가지 형태로 설명하였다.[17] 부모 중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결혼이냐에 따라 '어가장(女家長) 결혼'과 '부가장(父家長) 결혼'이 있고, 남편 하나에 아내가 하나인가 그 이상인가에 따라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결혼'과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결혼'이 있으며,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족외혼'(族外婚)과 '동족혼'(同族婚) 그리고 '수혼'(嫂婚)이 있다는 것이다.[18]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 결혼의 형태들은 모두 성경에 나오지만 이들 중에서 남편의 권위나 아내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종족권 내에서든 외에서든 상관없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창 2: 24) 예수님께서 재확인해주신(마 19:4-6; 막 10:6-9) 일부일처제의 결혼 형태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결혼 형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부일처제의 결혼 형태에 근거하여 부부의 '하나 됨'으로 명시되는 성경적 관점

---

17) George A.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3, 278-279; 맹용길, *가정과 윤리* (서울: 쿰란출판사, 1995), 8-10에서 재인용.

18) (1) '어가장 결혼'은 어머니의 권위 아래 있는 결혼 형태로, 야곱이나 모세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다소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형태(창 29:1-3; 출 2:21-22)와 삼손의 경우처럼 아내가 자기 친족의 집에 있고 남편이 때때로 방문하는 형태(삿 15:1)가 있다. (2) '남가장 결혼'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결혼 형태로, 족보나 인구 조사 명단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창 5장), 여기에는 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내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들을 구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민 1-3장, 26:5-62; 룻 4:18-22). 이 결혼 형태에서 아내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 남편의 권위를 넘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남편의 소유로서 통제될 수 있으며(창 20:3; 출 21:22; 신 22:22, 24:4; 삼하 11:26), (3) '일부다처제 결혼'은 자녀를 얻기 위하여 둘 이상의 여자와 결혼하는 형태로, 주로 아들을 얻기 위해 본처 외에 또 다른 여자나 본처의 여종과 결혼하게 된다(창 16:3, 29:18). (4) '일부일처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결혼 형태'(창 2:24)이고,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강하게 지원되고 있으며(출 20:17, 21:5; 레 18:8, 16, 20, 20:10; 민 5:12; 신 5:21, 22:22, 24:5), 신약에서 규칙적으로 전제되고 있다(마 19:5; 고전 6:16; 엡 5:32). (5) '족외혼'은 자기 종족권 외에서 일어나는 결혼 형태로, 요셉이나 모세의 경우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형태(창 41:45; 출 2:21)와 가나안 정복 후 불가피하게 가나안 종족들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형태가 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것을 철저히 금지하였다(스 9:2 이하). (6) '동족혼'은 자기 종족끼리 결혼하는 형태로, 다른 종족의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관습에 따른 것이며,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다른 씨족과의 결혼은 허용되기도 하였다(창 24:4, 10, 28:1-2). (7) '수혼'은 족외혼을 방지하고 죽은 남편의 이름이 보존되게 하도록 죽은 남편의 과부가 그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형태이다(신 25:5-10).

으로 본 기독교인의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남자와 여자가 '떠남'과 '연합'(창 2:24, 마 19:5, 막 10:7-8, 엡 5:31)을 통해 진인격적인 '한 몸'을 이룸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해나가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떠남'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좀 더 확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곧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간 것처럼 부모를 비롯한 모든 혈육관계와 친지관계들로부터 떠나 자신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창 12:1-2). 맥래(William McRae)는 결혼을 위한 '떠남'에는 지정학적, 경제적, 심리적 떠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19] 하지만, '떠남'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비롯한 이전의 관계들로부터 분리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떠남'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관계들보다 부부관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미의 '떠남'이고, 부모를 비롯한 다른 관계들과의 인격적 관계보다 더 깊고 신비로운 부부관계, 곧 남자(남편)과 여자(아내)가 '한 몸'이 되는 진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떠남'이다.

이상과 같은 '떠남'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면서 차례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연합'이다. 다시 말해서 떠남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떠남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완전한 떠남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차례대로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연합의 과정에서 모든 관계의 최우선순위가 부부관계로 옮겨지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호 사랑에 근거한 친밀함과 상호 복종에 근거한 헌신을 통하여 육체적이고 성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 가는 연합의 과정을 통하여 남자(남편)와 여자(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던 타락 이전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성과 고유성이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함께 성장해나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통해 세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가정이다.

---

19) William D. McRae, *Preparing for Your Marriage*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56.

3. 성경적인 기독교인 가정의 토대

그렇다면 '떠남'과 '연합'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기독교인의 결혼을 통해 세워지는 관계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는가? Bondi는 결혼과 가정의 규범적 토대를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재생산을 위한 성적 관계를 강조하는 '물리적 토대,' 둘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 및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적 토대,' 셋째, 가족의 언약적, 신성한, 혹은 섭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영적 토대,' 그리고 넷째, 재도적 형식 안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장기간에 걸친 그 경험의 질적 풍성함을 강조하는 '개인적 토대'가 그것이다.'[20] 이상의 네 가지 토대들 중에 '영적 토대'에 대한 특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앞에서 여러 번 인용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라는 말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이루는 남자(남편)와 여자(아내)가 '한 몸'이 되기 위한 '떠남'과 '연합'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 말씀은 영적 토대의 특성 중 하나인 '거룩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함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여러 번 인용된 또 다른 말씀인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토대' 위에 세우신 가정의 부부관계, 즉 부부가 '한 몸'되는 '하나 됨'의 언약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재강조해주고 있다. Bilezikian은 "하나 됨이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방식이다. 하나님은 창조사역 이전에 이미 하나 됨 안에서 존재하셨다.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모습을 반영한다."[21]라고 했다. 사실 '하나 됨'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

20) Bondi, "Family, Christian Theology, and Ethics of," in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dited by R. J. Hunter (Nashville, TN: Abingdon, 1990), 407.
21) G. G. Bilezikian, *공동체 (Community 101)*,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도시출판 두란노, 1998), 15.

로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교인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결혼에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 됨'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한 몸이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은 가정의 영적 토대의 또 하나의 특성인 '언약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언약적 토대' 위에 세워진 '한 몸'된 부부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나 기관이 나눌 수 없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는 가정의 성경적 이해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이라는 측면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경향을 보이면서 가정의 성경적 의미를 정의할 때 '부부관계의 언약적 특성'에서 강조되는 '상호관계'를 뒷받침하는 '돌봄' '친밀성' '삶을 함께함' '역할과 과제 수행' 등의 용어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신약에 나오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바울 서신,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엡 5:33)는 말씀 속에 부부관계의 언약적 특성에서 중시되는 '돌봄'과 '친밀성'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엡 5:24) 하는 말씀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엡 5:28)하는 말씀은 부부관계의 언약적 특성의 또 다른 요소인 '삶을 함께함'과 '역할과 과제 수행'을 함축하고 있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Garland는 기독교인들의 결혼을 '언약 결혼'으로 규정한다.[22] 그는 "결혼은 많은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 즉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나 성경 인물들 간의 언약과 유사한 언약관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한 것처럼, 부부는 결혼을 통하여 서로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헌신으로 대할 것을 언약하는 것이다"[23]

---

22) Garland and Pancoast, *The Church's Ministry with Families: A Practical Guide* (Dallas, TX: Word, 1990), 11; 임예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22-23에서 재인용.
23) Garland and Hassler,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부부의 삶 (Covenant Marriage: Partnership and Commitment)*,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43.

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기독교인들의 결혼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반영하는 성경적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언약 결혼은 영원하고 대가가 따르며 중요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24]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언약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언약 결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기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25]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약 결혼의 창조기적 사명의 특성은 부부간의 사랑 관계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동참하는 기초가 됨을 잘 보여준다.

제 2 절 기독교인 가정의 성경적인 부부관계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 이성적, 영적 피조물로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족(부부)관계를 이루는 '관계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속성 안에 그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진 '언약 공동체'이다(창 1:27).[26] 따라서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가정은 남자(남편)와 여자(아내)로 이루어진 부부 단위를 핵심으로 하는 핵가족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27] 대가족은 대부분 부모와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혈연관계에 큰 가치를 두지만, 핵가족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두

---

24) Garland and Hassler,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부부의 삶*, 62.
25) Ibid., 121.
26) Sell, *가정사역*, 65.
27)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1980)는 가족을 여섯 가지 형태들로 분류하여 정의한다. 첫째, 함께 거주하며 식량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형태이다. 이 가족 형태는 '가구'(household)와 동일시된다. 둘째, 성적인 관계와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생물학적인 가족(biological family)이다. 이 가족 형태에는 입양을 통한 가족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핵가족(nuclear family)이다. 넷째, 핵가족들 일부가 합병된 형태의 복합가족(compound family)이다. 다섯째, 한 사람의 권위 아래에서 세대가 다르지만 같은 성을 가진 둘 이상의 사람들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합류가족(joint family)이다. 여섯째, 합류가족과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지지만, 거주지를 공유하지 않는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이다; 임애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25-26에서 재인용.

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가정의 기본 형태는 핵가족이며, 핵가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28] 라는 Sell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1.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목적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은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심과 초점에 따라 다양한 기독교인 가정의 목적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정의 목적들이 성경의 근거 위에서 좀 더 논리적이고 역동적이며 발전적인 형태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적 작업이 필요하다. Balswick 부부는 '언약'을 근본 요소로 하는 "연속적이지만 직선적이지 않은 언약,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이라는 네 단계를 포함하는 가족관계 신학"[29]을 제안하였다. 그는 가족관계란 역동적이고 항변적인 것이라고 보고, 만일 어떤 가족 관계가 나선형을 이루어 차례로 더 깊어지는 언약,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정체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약이 아니라 계약에,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힘의 부여가 아니라 권력 소유욕에, 친밀감이 아니라 거리감에 고착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30] 이러한 Balswick 부부의 가족관계 신학의 요소들을 본 논문의 주제인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행복 추구의 목적

행복 추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창 1:27),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창 1:28), 필요를 채워주시며(창 1:29), 그들의 부부관계를 통해 세워진 가정을 중심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창

---

28) Sell, *가정사역*, 75.
29) Jack O. Balswick and Judith K.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The Christian Family)*, 황성철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18.
30) Ibid., 18-19.

1:31)라고 하신 성경말씀을 통해 잘 반영되고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10,12,18,21,25)라고 하셨으나, 유독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아담)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아니하니"(창 2:18)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위하여 돕는 베필(*ezer*)인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창 2:24)이 되는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뒤에는 "좋았더라"를 넘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이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무엇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 됨'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행복 추구의 목적은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수치심이 없는 친밀한 육체적 연합'을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하나 됨'(창 2:24-25)을 통해 성취된다. 성경적으로 이러한 '행복 추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며(요일 4:10, 19),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롬 8:3; 빌 2:8),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마 4:23, 9:35),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마 11:19; 눅 7:34),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막 15:25; 요 19:18; 행 2:36)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최고로 잘 표현된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요 15:12; 요일 4:7-9)으로 주어졌고, 그 '서로 사랑'의 일차적인 대상은 부부간이다. 따라서 기독교인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 추구의 목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나. 출산과 양육의 목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부부관계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뒤에 첫 번째 주신 명령형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부부의 하나 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목적을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들은 Maston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 창조자들"[31]이라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러한 '출산과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언약이 제공하는 축복인 '언약적 축복'은 조건적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창 6:18)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 주어졌고(창 6:22),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창 17:1-8)도 이어서 나오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창 17:9)는 명령대로 준행하는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기독교인 가정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그 언약과 함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하신 대로 준행함으로써 그 '언약적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출산과 양육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출산과 양육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출산과 양육,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등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산하고 양육하는 선교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Maston은 "기독교인의 가정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더 폭넓고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32]이라고 했다.

다. 은혜와 사랑의 목적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을 위해 지으신 피조물 중의 하나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셨다(창 3:21).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기독교인 가정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는 사랑, 긍휼, 자비, 신실함, 거룩함, 의로움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속성은 '은혜'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포괄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적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을 통해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

31)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54.
32) Ibid., 56.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다. "본질상 언약은 은혜"이며,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은혜 가운데 주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33]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 '언약적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관계를 통하여 믿지는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룰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책임 있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은혜와 사랑의 목적이다.

라. 능력부여의 목적

'능력부여'(empowering)는 힘의 사용에 대한 성경적 모델이다.[34] 일반적으로 힘이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 대상 즉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지배하며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힘의 사용인 능력부여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 등과 같은 힘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부여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과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배우고 성장하여 마침내 그 힘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섬김'의 과정이다.

이러한 섬김을 통한 능력부여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막 10:45)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라는 말씀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는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섬김(엡 5:25)으로 설명하면서 남편들에게 그러한 사랑, 그러한 섬김으로 아내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부여를 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Balswick 부부는 이러한 섬김을 통한 능력부여를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33)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26.
34) Ibid., 29.

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능력부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35]

> 관계들 속에서의 힘의 부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언약과 은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그들은 서로를 무제한적이고 특별한 방법들로 섬기고 자신을 아낌없이 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세우는 일에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게 된다.

2.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필수 요소

성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한 몸, 곧 하나 된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한 '언약적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확대된 모습으로서의 가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남자(남편)과 여자(아내)의 한 몸, 곧 하나 된 관계를 통하여 옛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관계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구속적 기초 위에 세워진 '신비로운 사랑과 헌신의 관계'이다(엡 5:22-33).

가.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첫 번째 요소는 '사랑'이다. 일찍이 C. S. Lewis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대조시켜 설명한 바 있다. 인간의 사랑은 자연적으로 사랑스러워 보이는 대상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적으로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36] Lewis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사랑은 받는 것과 관련된 이기적이고 조건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계약적 사랑'인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과 관련된 이타적이고 조건이 없으며

35)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30-31.
36) C. S. Lewis, *The Four Loves* (New York: Harcourt, Brace, 1960), 176; Sell, *가정사역*, 170에서 재인용.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언약적 사랑'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인간을 크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자연인을 말하고(고전 2:14),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성령의 일을 잘 알지 못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자를 말하며(고전 3:1-3),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영에 속한 자를 말한다(고전 2:15, 3:1). 권오균은 '차원에 따른 영성 진단'에 따라 육에 속한 '자연인'을 공간에 속하는 3차원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미숙한 자'를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 더해진 4차원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신령한 자'를 성령을 좇아 초현실적인 우주의 하늘에 속하는 영적 5차원의 사람으로 설명한다.[37] 결국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 속한 사람일수록 자신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며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하여 자신이 무엇을 소유해야만 만족하는 자들이므로 이기적이고 조건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계약적 사랑'을 하게 된다. 반면에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속한 사람일수록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자들이므로 이타적이고 조건이 없으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언약적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38]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엡 4:13-15)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사랑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인간의 계약적 사랑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

37) 그의 설명에 의하면, 3차원에 속한 사람은 감각적인 본성에 따라 오관적 만족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오직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데 그치는 사람이다. 또한, 4차원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여전히 타인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에 목말라 하고, 아직도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며(고전 3:3),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오히려 생명 없는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다(갈 5:19-21). 반면에 영의 5차원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갇힌 옛 자아, 곧 거짓 자아의 공간과 시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의 영역과 영원으로 들어가는 새 자아,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참 자아를 가짐으로써 육신의 차원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서 찌꺼기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벧후 1:4)가 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다. 권오균, *참 자아를 찾아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251-254.
38) Ibid., 255-256.

랑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사랑'(요일 4:18)을 지향한다.

이상과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사랑은 바울이 신랑(남편)과 신부(아내)의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엡 5:22-33)과 같이 신비롭고 초월적인 '친밀한 사랑'이다. Sell은 "결혼의 성경적 이상으로서의 친밀함"에 대하여 말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여 건강한 부부관계의 친밀한 사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39]

> 첫째, 몸이라는 말의 히브리 용어는 때때로 전(全)인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혼이 인간의 연합이 되어야지 단지 육체의 연합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구약은 성교를 말하는 데에 "야다"(*yada*), 즉 '알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한다. 학자들은 성이란 단지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연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셋째, "부모를 떠나"라는 말과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말을 비교해보면 창세기 2:24에 있는 결혼의 개념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부모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 자기 아내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연합이 성적인 것보다 넓다는 의미인 것이다.

임에선은 '친밀성'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위에서 Sell이 언급한 "야다"(*yada*)와 함께 "소드"(*sôd*)와 "사칸"(*sakan*)이라는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다.[40] 그리고 이 세 단어의 해석에 근거하여 "성경적 의미의 친밀성이란 상대방을 깊이 알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알리고 동시에 상대방을 돌보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힘"[41]이라고 설명하면서, 건강한 부부관계의 사랑에 대한 '친밀성'을 잘 설

---

39) Sell, *가정사역*, 158.

40) 첫째, "야다"(*yada*)는 인지적인 의미에서의 '알다'(to know)라는 의미 이외에도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친숙함(familarity)을 표현하는 관계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성경적인 용어로서, 일반적으로는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신 33:9; 잠 27:24; 사 63:16), 남녀의 성적인 친밀함(intimacy), 곧 성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창 4:1, 17, 25, 19:8, 24, 16; 삿 11:39, 19:25; 삼상 1:19; 왕상 1:4). 둘째, "소드"(*sôd*)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밀한 대화를 뜻하며, 하나님과 의인들 간의 비밀스러운 것도 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는 단어이다(욥 19:19; 잠 3:32; 시 25: 14). 셋째, "사칸"(*sakan*)은 '친숙함' 또는 '앎'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시 139:3), '남을 돌봄'이나 '봉사함' 혹은 '남에게 유익을 끼침'의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왕상 1:4). cf. 임에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251.

명해주는 또 하나의 단어인 "다바크"(*dabaq*)를 들고 있다. "다바크"(*dabaq*)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 됨'(창 2:24)을 말할 때 쓰이는 말로서 일반적으로는 풀로 단단히 붙여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한 관계나 분리할 수 없는 깊은 연합 혹은 교제의 완전한 상태, 곧 한 인간이 자신과 동등하면서도 다른 존재와 가장 가능한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엄예선은 이러한 의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친밀한 부부관계는 "강하게 결속된 안정되고 영원한 관계이며 동시에 부부가 깊이 교제하는 관계"[42]라고 말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요소인 '사랑'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친밀한 사랑'이다. 이는 희생적이고 조건이 없으며 의지적인 '신적인 사랑'(*agape*)에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며 낭만적인 '성적인 사랑'(*eros*)과 행복한 부부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우정의 사랑'(*philia*)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이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한 사랑'을 통해 '상호 의존'과 '상호 존중'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기독교인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나. 부부간의 '자발적 헌신'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또 하나의 필수요소는 '헌신'이다. 사실 부부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친밀한 사랑으로 연합되고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헌신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의미의 진정한 친밀성이란 헌신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43] 하지만,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관계에 위기가 올 때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맺어진 '언약 결혼'을 유지해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이다.[44]

---

41)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252.
42) Ibid., 252.
43) Ibid., 291.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 부부관계의 헌신은 부부간에 서로의 개별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지나친 결속으로 인하여 경계선이 없는 경직된 부부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상호 복종'과 '상호 섬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는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말씀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는 말씀에 따라 부부간에 피차에 복종하며 서로를 섬기는 '자발적 헌신'을 말한다.[45]

일찍이 Martin Luther는 타락 이전에는 여자가 남자와 같이 동등한 존재였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율법에 의하여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으며 남자의 권한 밑에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46] Luther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옛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기독교인 부부관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는 동시에 '피차에 복종'하는 구속사적인 '사랑과 헌신의 관계'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 간에 같은 권위와 존엄성을 공유하는 상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완전한 교제를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한 몸'된 관계로서 같은 권위와 존엄성을 공유하는 '상호 인격적 관계'요 '상호 보완의 관계'이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죄를 범함으로 동등하게 타락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회복되어 재창조의 모델이 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남자(남편)과 여자(아내)가 각각의 특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다양성을 가짐과 동시에 권위와 존엄성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서로 동등한 통일

---

44) DeLoss D. Friesen and Rudy M. Firesen, *결혼상담 (Counseling & Narruage)*, 김만풍 역(서울: 도시출판 두란노, 2002), 179.

45)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 개정개역)는 권면의 말씀에 나오는 '상호 복종'은 '서로 사랑'과 함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적 대전제이다. 이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엡 5:25)에 감동된 교회가 자원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발적인 복종'에 그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다.

46) cf.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Chapter 1-5*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 House, 1958), 138, 202.

성을 가지는 '복음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부관계는 부부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등하게 헌신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 관계나 혈육 관계, 교인 관계나 이웃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피차에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등하게 헌신함으로써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모델

성경의 부부관계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가정의 부부간 권력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가족치료의 창시자인 정신과 의사인 Minuchin(1974)은 부부가 동등한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부부 사이의 친밀성이 강한 가족을 건강한 부부관계로 보았다.[47] 따라서 비록 기독교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의 권력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부부가 동등한 권력구조를 잘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부부 사이의 친밀성이 결여됨으로써 부부간에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Sell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네 가지의 접근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부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권력구조 모델'로 설명했다.[48]

> 첫째는 '강압적 권위라고 불리는 구조적 유형'(enforced authority type)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권위를 강요하는 모델로, 이 모델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며 남편은 원한다면 매질을 해서라도 아내를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는 '전통적인 가장-보완 관계의 모델'(traditional head-complement type)로, 이 모델에서 아내는 복종적이고 남편을 지지하는 가정주부이다. 셋째는 '동반 관계 유형'의 '동반자 모델'(companionship type)로, 이 모델에서는 여자가 직업을 갖고 남편이 가사 일에 관여하지만 남자의 직업이 여자의 직업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남편이 대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넷째는 최근에 나타난 '평등주의적인 형태'의 '동등성 모델'(egalitarian type)로, 이 모델은 남편과 아내 둘 다 자유롭게

47) 임예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124.
48) Sell, *가정사역*, 192.

> 직업을 갖고 가사 일을 분담하며 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상의 네 가지 부부관계 모델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모델은 '동반자 모델'과 '동등성 모델'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인 부부관계는 '강압적 권위라고 불리는 구조적 유형'과 '전통적인 가장-보완 관계의 모델'에 속한다고 본다.

'동등성 모델'은 부부가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력을 갖고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하여 상호 섬김과 상호 복종의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의 중요한 결정들도 상호 간의 의견일치를 통해 내리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동등성 모델의 성경적 근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말씀이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동등성 모델의 핵심 개념인 '기독교인 부부의 상호 복종'의 관계를 설명한다. 동등성 모델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의 하나인 Keener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엡 5:22)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 안에 그 기초를 둔 것이기에 남편과 아내의 상호 복종의 관계로 기독교인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 부부의 상호 복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49]

> 상호 복종은 서로서로의 유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성령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을 요구하는 아주 어려운 사명이다. 상호 복종은 전통적 입장에서 분명하게 표명된 아내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편도 역시 아내를 영생의 은총을 똑같이 물려받은 동료로 여겨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일깨워 준다.

동등성 모델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남녀 사이에 생물학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기능적인 면에서 남성에게 더 적합한 기능들이 있고 여성에게 더 적합한 기능들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영적인 면이나 존재론적인 면에서 남녀가 동등하며 사고능력이나 분석능력뿐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능력에서 남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50]

---

49) C. S. Keener, *바울과 여성: 바울서신의 결혼관과 여성목회 (Paul, Women & Wives)*, 이은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38.
50) 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132-133에서 재인용.

'동반자 모델'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기능이 서로 다르며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부부관계에서 머리된 남자에게 부여했다고 말한다(고전 11:3-12; 엡 5:22-33; 딛 2:4; 벧전 3:1-7). 이처럼 동반자 모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중시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므로 비록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본받아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물론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라고 주장한다. 동반자 모델을 주장하는 Litchfield 부부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동반자적인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51]

> 남편의 역할은 첫째, 가정에서 권위의 자리를 사용하는 것; 둘째, 아내를 사랑하는 것; 셋째, 아내의 자아 존중감을 세워 주는 것; 넷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것; 다섯째, 아내를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이다. 남편의 역할과 대조되는 아내의 역할은 첫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둘째, 남편을 높여 주고 존경하는 것; 셋째, 남편의 동반자가 되는 것; 넷째, 남편의 조력자가 되는 것; 다섯째, 남편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여섯째, 남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일곱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덟째, 가정을 세우는 것 등이다.

동반자 모델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학자인 Sell은 부부간의 동등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부부간에는 서로 기능의 다름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동반자 모델의 신학적 근거를 삼위일체에서 찾는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음을 말하면서 기능의 다름과 질서에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 복종은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남편이 가정사의 최종 결정자가 되어야 하지만, 동반자로서의 아내의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52] 하지만, 이러한 동반자 모델은 실제적 적용에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보다 은사가 부족하지만 남편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면

---

51) Litchfield,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Christian Counselling and Family Therapy)*, vol 3. 정동섭, 정성준 역 (경기: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2), 45.
52) Sell, *가정사역*, 186.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은사가 사장되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되고, 부부가 서로 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가정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기능적인 가정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53] 또한, 동반자 모델을 지지하는 한국 교회들을 보면 소위 '남자의 영역'과 '여자의 영역'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남자에게 자녀양육이나 부엌일 등의 여자 일을 돕도록 장려하는 차원을 남자와 여자의 동반자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반자 모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적용의 불균형'을 바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볼 수 있다.[54]

Garland 부부는 기독교인의 결혼을 '언약 결혼'으로 설명하면서 동반자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등한 동반자 관계'라는 말로 기독교인의 부부관계를 규정한 바 있다. 그들은 "결혼은 단순히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는 차원을 넘어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을 때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주변세계의 필요를 위해 일하는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일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나누다 보면 좀 더 친밀하고 견고해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55]라고 말한다. 또한, Garland 부부는 '돕는 자(*ezer*)로서의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대리자로 삼아 아담의 '돕는 자'(*ezer*)가 되게 하심(창 2:18)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에 동역하게 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동역자로 부름 받은 관계'로 규정한다.

사실 '돕는 자'(*ezer*)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구원자'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의 독처하는 것, 즉 공동

---

53) 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140-141.

54) 임예선은 동반자 모델의 문제점들을 일곱 가지 질문들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첫째, 이 모델은 과연 가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능적인 모델인가? 둘째, 이 모델을 통해 부부가 친밀해질 수 있겠는가? 셋째, 이 모델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움을 가능하게 하는가? 넷째, 과연 이 모델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효과적인 모델인가? 다섯째, 과연 이 모델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모델이라면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여섯째, 이 모델은 과연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일곱째, 그동안 한국과 외국에서 조사된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은 부부가 동등한 권력을 공유하는 부부들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남편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부부들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비해 높다는 일관성 있는 보고를 했는데, 남편의 머리 됨과 아내의 순종을 강조해 온 많은 한국 교회들은 그러한 관계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 것인가? Cf. 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139-144.

55) Garland and Hassler,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부부의 삶*, 125.

채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구원하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 됨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위해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이다. Bilezikizn는 이러한 '하나 됨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여성의 창조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한 사람 뿐이었을 때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하나 됨이 없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마침내 하나 됨이 이루어졌다"[56]라고 말한다.

Garland 부부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됨의 공동체'인 가정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기독교인 부부의 '동역자 관계'를 십자가로 풀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역동적인 관계로 설명했다.

> 첫 번째 역동적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서, 부부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역동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서, 부부가 서로 간에 동역자의 관계로 서로를 이해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57]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인 부부관계는 부부 권력구조와 관련된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동등성'을 가지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동반자'가 되어 '상호성'[58]을 바탕으로 동등한 처지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통된 목적과 사명을 추구해 나가는 '동역자 관계'라고

---

56) Bilezikian, *공동체*, 20-21.

57) Diana and David Garland, *Beyond Companionship Christians in Marriag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17.

58) Browning은 "상호성이란 자신이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이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 22:39; 막 12:31; 눅 10:27 개정개역)는 사랑의 계명의 상호성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 개정개역)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의 구조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 12; 눅 6:31)라는 '황금률'의 구조와 같다. '황금률'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또한 자기희생을 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고 섬기라는 '상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Don S. Browning, et al.,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in *Religion and the American Family Debat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7), 273-274, 279.

볼 수 있다.[59]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부부관계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 부부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력을 갖는 '동등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인 남자(남편)와 여자(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동반자'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적인 목적과 사명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 관계'라고 본다.

제 3 절 요약

본 장에서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의미,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 가정의 토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목적과 필수요소, 그리고 부부 권력구조의 동등성 이론에 근거한 동역자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부는 가정의 핵심 단위이고, 가정의 모든 가족관계의 기초는 결혼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부관계이다. 성경적으로 결혼과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하나 됨'으로 명시되는 성경적 관점으로 본 기독교인의 결혼과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남자와 여자가 '떠남'과 '연합'을 통해 전인격적인 '한 몸'을 이룸으로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해나가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신 결혼과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사랑과 상호 복종을 핵심 가치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부부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떠남'과 '연합'을 통해 한 몸, 곧 하나가 되는 부부관계를 통해 세워지는 기독교인 가정은 크게 네 가지 성경적인 목적을 가진다. 첫째,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됨'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행복 추구의 목적'을 가진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언약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출산과 양육의 목적'을 가진다. 셋

59) 물론 이러한 동역자 관계는 갈등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관계이다. 이 갈등의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동화되거나 갈등을 피해 도피하거나 무관심으로 후퇴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갈등을 대면하여 극복해나감으로써 상호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력하는 '상호 독립적 의존관계'로서의 동역자 관계를 이루어간다.

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인약적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은혜와 사랑의 목적'을 가진다. 넷째, 부부관계의 사랑의 심김을 통한 능력을 부여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 부여의 목적'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 부부관계는 부부 권력구조와 관련된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동등성'을 가지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동반자'가 되어 상호성을 바탕으로 동등한 처지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통된 목적과 사명을 추구해 나가는 상호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력하는 '상호 독립적 의존관계'로서의 '동역자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적 근거를 얻게 되었다.

제 3 장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필수 요소인 동시에 핵심 요소가 되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가정'이라는 말이 포괄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처럼 '가정사역'이라는 말도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가정'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가정사역'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특히 Hebbard는 가정사역을 "교회와 지역사회의 모든 형태의 가정들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 고안된 예방적이고 치유적인 노력들을 통한 교회의 사역"[60]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Garland는 가정사역을 세 가지 차원, 즉 상담을 통해 이미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료적인 차원, 부모 교육과 결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 그리고 가정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가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에 나아가 의미 있는 공헌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가정생활 강화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61] 이러한 Hebbard의 정의와 Garland의 설명은 본 논문의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교회의 가정사역을 통하여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의 문제가 예방되고 관계가 강화됨으로써 건강한 부부관계가 세워질 때 교회의 가정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가정사역은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가정사역 및 상담 전문가들이나 전문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루어가야 하는 협력사역이 되어야 한다.

---

60) D. Hebbard, *The Complete Handbook for Family Life Ministry in the Church*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95), 6; 임예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315에서 재인용.
61) Diana Garland, *Family Ministry: A Comprehensive Guid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374; 임예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314에서 재인용.

제 1 절 한국 교회의 가정사역

현시대 한국 교회의 최대 화두는 '건강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예선은 한국 교회가 가정사역을 시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로 "한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시행해야 한다"[62]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 내의 가정들이 건강해야 하므로 한국 교회는 가정사역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교회 내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가정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시대 한국 교회의 핵심과제들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1. 한국 교회 가정사역의 현실

요즈음 한국 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의 공생관계를 한층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이미 핵가족 시대를 지나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탈 핵가족'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 가정들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대가족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도 아직은 부모와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이 우세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다양성을 가지게 된 많은 가족 형태들이 존재한다. 자녀를 가지기 전인 부부가족, 자녀를 갖지 않는 무자녀 부부가족, 이혼의 급증으로 인해 싱글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싱글부모가족, 재혼 등의 이유로 형성된 여러 형태의 복합가족, 독신가족, 심지어 동성애 가족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적인 가정 문제들이 발생되는 사회 현상인 '가정의 붕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63]

---

62) 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352.

63) 윤정한은 이러한 '가정의 붕괴 현상'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정은 농경사회의 쇠퇴와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드는 도시

'가정의 붕괴현상'은 서구 문화에서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Alvin Toffler는 자신의 저서 "제 3의 물결"에서 "오늘날 또다시 몇 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파괴에 휩싸여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은 경제적 파멸에서가 아니라 가정의 붕괴에 그 원인이 있다."[64]라고 지적한 바 있다. Sell 또한 "많은 가정들이 마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고 희생자와 같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65]고 발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에 예견했던 일들이 현시대의 한국 가정들의 현실이 되어 비상구 없는 난파선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가정 문제들로 진통을 겪으며 가정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가정 붕괴현상은 곧 사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붕괴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가정에 속한 가족들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일찍이 Robert Lynn이 "가정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66]라고 했다. 또한, Sell은 "가정사역은 교회사역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회와 가정의 관계가 피차에 견고한 끈으로 묶여져 있고 지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공생관계'임을 명시하면서, 교회가 가정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교회는 가정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67] 그런데도 그동안 성장지향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여 온 한국 교회는 주로 전

집중화가 이루어지며, 가족 구조는 핵가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의 기능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의 기능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가정은 생산기능이 감소하고 소비기능은 증대하게 되었으며, 취업주부의 증가로 자녀 양육기능도 감소하게 되었다. 가정의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겨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윤정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정사역 프로그램," *신학지평* 제14집 (2001), 108.

64) Alvin Toffler, *제 3의 물결 (The Third Wave)*, 박문호 역 (서울: 대명사, 1984), 200.

65) Sell, *가정사역*, 31.

66) Robert Lynn, *Protestant Strategies in Education*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4), 25; Sell, *가정사역*, 31에서 재인용.

67) Sell이 제시한 "가정사역은 교회사역이다"라는 말에는, (1) 가정사역이 교회사역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동시에 도덕적인 사역이고, (2) 이 시대의 교회가 지향하는 복음 전도의 최대 기회가 되는 사역이며, (3) 부모가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제자사역 중의 하나이고, (4) 성경의 진리를 가정생활에 적용시킴으로써 자녀들에게 교회의 생

도와 선교에 집중해오면서 오랫동안 가정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고, 가정이 설교의 주제 중에서 가장 소외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될 만큼 가정의 문제들에 대하여 침묵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가 Sell의 주장처럼 교회가 가정문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와 가정은 분리될 수 없는 역동적인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정사역이 교회의 총체적 목회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가정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계속 늘어가는 가정사역 전문기관들로 인하여 가정사역협회가 출범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등 긍정적인 결실들이 있으며, 2000년대 한국 교회의 주제와 이슈는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2. 한국 교회 가정사역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 교회의 가정사역은 가정 붕괴현상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가정사역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문화적인 측면을 보면,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체면 문화'가 가정사역에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된다. 사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가정사역은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서구 문화에 기초를 둔 가정상담이나 가정사역에 대하여 공부하고 돌아온 몇 명의 선구자적인 가정사역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정사역자들이 번역하여 소개한 외국서적들에는 어쩔 수 없이 서구 문화가 반영되어 있었기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화적인 충돌로 인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체면 문화와의 충돌이다.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한국인의 의식이 많이 서구화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의 문화는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체면 문화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활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사역이며, (5) 교회가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되는 활동은 애방사역이라는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 Cf. Sell, *가정사역*, 15-33.

러한 현상은 비록 서구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한국의 체면 문화의 영향권 내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문화 충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의 가정사가 드러나게 될 경우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수치심으로 인하여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특히 목회자에게 부부문제나 가정문제로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 상담을 요청할 때는 절박하여 도움을 구하게 되고 상담도 받게 되지만 그 이후 해결되지 않는 수치심으로 인해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거나 그럴듯한 명분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겪게 되는 지역 교회들이 좋은 뜻에서 비전을 가지고 가정사역을 시작하였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들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교회 안에서 평신도 상담자들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목회자의 관리와 감독 하에서 일차적으로 교인들을 상담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평신도 상담자들은 자신이 상담할 수 없는 문제나 자신의 역량 밖의 문제에 대한 상담은 목회자에게 보고하여 상담을 받게 하거나 목회자의 지도하에 지역사회의 상담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상담을 의뢰하고 계속 돌보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8]

신학적인 측면을 보면, 아직 가정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사역에 일반 심리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함으로써 성경의 가치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교회에 가정사역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적용하여 시행할 때 그 프로그램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거나 교회의 영적인 성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회는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사역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69]에 대한 가정신학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과제는 신학과 심리학

---

68) Cf.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Lay Counseling)*, 편집부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69) 1950년대 이후 복음주의자들은 심리학과 신앙문제에 대한 2가지 새로운 형태에 직면했다. 첫 번째 형태는 역사적, 성서적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대 심리학이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심리학이 지적인 영성을 채울 수 있고 효과적인 목회적 실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을 모색하는 운동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부가물로서 현대 심리학을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심리학이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어지자 회중석, 소그룹, 대화, 그리고 강단 등에서 삶의 인

의 통합을 주도한 통합주의 운동에 의하여 심화된 "기독교인의 삶과 사상에 대한 대규모의 심리학화가 과연 성경적인지?"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타난 "현대 심리학적 복음주의가 과연 기독교적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대답을 간단하게 제시하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심리학이 신학에 범람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신학과 심리학이 이리저리 혼합되어지는 것도 아니며, 신학과 심리학이 조화롭게 통합되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리학과 그 밖의 다른 지식의 분야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기꺼이 배움으로써 성경에 관한 궁극적인 권위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의 영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자료들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일에 더 유익한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70]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심리학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 비판해보고 신학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한 뒤에 수용해야 한다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비판해보고 신학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한 뒤에 수용해야 하겠다.

사역적인 측면을 보면, 그동안 교회 내의 많은 교인들의 가정에 다양한 형태의 가정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도움이 교인들의 가장 절박한 관심이지만 여전히 가정사역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무지하여 가정사역이 교회의 다른 사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다수의 목회자 가정조차 이러한 가정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적지 않은 한국 교회들이 목회자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 가정사역이 절박하게 필요한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 소홀히 해왔고, 심지어 설교에서 조차도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또한,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의 사역이든 목회자, 특히 담임목사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교회 전체의 사역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패러다임이 '가정 중심의 목회'로 전환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이로 쓰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중운동이 공공연한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삶의 심리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70) Cf. Gary R. Collins, *왜 그리스도인이 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이종일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2), 165.

제 2 절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핵심 과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은 부부간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사역으로서 건강한 부부관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통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근간이 되는 사역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부사역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부부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와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 훈련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예방사역'이요, 둘째는 부부관계의 회복과 향상을 포함하는 관계 강화를 위하여 소그룹 사역을 활용하는 '관계 강화사역'이다. 그리고 사역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방사역'은 '치료적 전략이 있는 예방사역'이 되어야 하고, '관계 강화사역'은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관계 강화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치료적 전략이 있는 부부 문제 예방사역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하여 부부간의 문제나 갈등의 소지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이기는 하나 예방사역 또한 어느 정도의 치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나 갈등 또는 잠재되어져 있는 상처가 없는 부부관계는 없으며, 설사 예방사역을 통하여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상처로 인해 언제 문제와 갈등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는 전략이 있는 예방사역이 바람직하다. 또한, 잠재되어 있던 가족이나 원가족의 역기능적인 면들이 문제화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치료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예방사역의 중심은 '교육과 훈련'이다. 교육과 훈련은 현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사역에서 예방사역은 부부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결혼하기 전의 예비부부들이나 '현재 잘 기능하고 있는 신혼부부들'[71]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 모델

71) 여기서 '현재 잘 기능하고 있다'라는 말은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심각한 문제나

이 사역의 중심이 된다. 사실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훈련은 자연스럽게 치료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마련이다. 예방사역 차원의 치료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적 목적으로 상담적 도움을 주면서 시행되는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72] 그리고 심화된 부부문제나 갈등으로 인해 깨어져가거나 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부관계를 치료하기 위한 교회 내의 목회자나 평신도 상담자에 의한 목회상담이나 결혼상담, 또한 교회 밖의 상담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게 하는 상담의뢰 사역도 예방사역 차원의 치료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부부관계 강화사역

부부간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관계 강화사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결혼생활 전체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부부간의 문제와 갈등, 그리고 이혼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의미와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강화사역 또한 예방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 강화사역에서도 예방사역의 주된 사역방법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사역을 시행하되, 이를 더욱 강화시켜서 부부들에게 결혼생활에서의 자기발견과 인격적 성장 및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부부 워크숍을 시행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 대처하기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기법과 갈등해결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상담기법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방사역이 주로 결혼하기 전의 예비부부들이나 현재 잘 기능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 모델이 사역의 중심이라면, 관계 강화사역은 '비교적 잘 기능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73]을 대상으로 하는 교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잘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72) 부부관계를 위한 예방사역의 치료적 방법의 하나로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사소통 기법들'과 '갈등해결 기술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 기법들을 교육하고 연습시키며 훈련을 통해 강화시키는 상담자 혹은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부부 멘토링 사역'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부부 멘토링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신혼부부 소그룹 리더의 부부 멘토링 역할에 대한 제한적 연구만을 다루었다.

73) 여기서 '비교적 잘 기능하고 부부들'라는 말은 문제나 갈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잘 기능하고 있는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말로서, 결혼한 후에 만나게 되는 부부간의 다른 점들과 여러

육과 훈련 모델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의 폭이 다소 다르고 사역의 시점과 강조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사역 모두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예방 사역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 강화사역 또한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관계 강화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 3 절 요약

본 장에서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실천적 근거를 위하여 건강한 가정의 필수 요소인 동시에 핵심 요소가 되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자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교회의 가정사역을 살펴보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요소들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예방사역 및 강화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현시대 한국 교회의 최대 화두는 '건강한 교회'이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국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핵심과제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교회 내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는 가정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의 공생관계를 한층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가정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는 가정을 필요로 하며, 교회는 가정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정사역이 교회의 총체적 목회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은 건강한 부부관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통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근간이 되는 사역이다.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핵심 과제는 부부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와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예방사역'과 부부관계의 회복과 향상을 포함하는 관계 강화를 위하여 부부 멘토링이 있는 소그룹 사역을 활용하는 '관계 강화사역'이라고 본다.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

가지 변화된 상황과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문제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 가정사역으로서의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성경적이며 교회론적인 실천적 근거를 얻게 되었다.

제 4 장

부부문제 예방 및 관계 강화를 PREPARE/ENRICH 프로그램

본 장에서는 가정사역 중에서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사역, 즉 부부사역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현황 및 프로그램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부부사역 프로그램 중에서도 부부문제 예방 및 관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핵심요소와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PREPARE/ENRICH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한다.

제 1 절 부부사역의 현황 및 프로그램들

1. 미국 내 부부사역의 현황 및 프로그램들

서구 사회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부부사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가정의 기초가 되고 가족관계의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1960년대 초부터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198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1970년대에 개발된 대표적인 부부사역 프로그램들로는 Miller 등(1976)이 개발한 '미네소타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MCCP), Travis(1975)의 '부부관계 프로그램'(Pairing Enrichment Program), Stein (1975)의 '부부관계 진단실습'(Marriage Diagnostic Laboratory), Guerney(1977)의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Conjoint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CREP),

Markman과 Stanly(1980)가 개발한 '결혼문제 예방 및 결혼생활 향상 프로그램'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PREP) 등이 있다.[74] 그리고 1980년대에 개발되어진 대표적인 부부사역 프로그램들로는 Gordon(1984)의 'PAIRS' (Practical Application of Intimate Relationship skills)와 Olson 등(1981)이 개발한 'PREPARE/ENRICH'(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이 교회의 가정사역에 많은 자극과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교회 내에서도 부부사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자체적으로, 혹은 지역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McManus 부부(1981)에 의해 시작되었고 1996년에 종합적인 가정사역 단체로 출범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Marriage Savers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가 결혼을 준비시키고 결혼생활을 강화시키며 깨져가는 결혼을 복구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혼전교육, 문제가 없는 부부들을 위한 부부사역, 결혼의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위한 부부 위기사역, 별거 중에 있는 부부들을 위한 사역, 재혼부부 사역 등 다섯 가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교회 내에서 결혼생활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오랫동안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평신도 부부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다른 부부들, 특히 위기를 만난 부부들이나 결혼 초기에 있는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Marriage Savers 프로그램은 평신도 멘토 부부들을 훈련시켜서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우기 위한 부부 멘토링의 좋은 모델이 된다.[75]

2. 한국 내 부부사역의 현황 및 프로그램들

미국에서 개발되고 시행되어 온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 근거를 둔 일반 프로그램들이었고, 교회들이 이들 프로그램들을 교회 내에서 사용하

74) 김희진,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7, No.4 (2005), 880.
75) 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326.

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종교기관에서 먼저 미국에서 개발되고 실행되는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종교기관을 통해 도입되어 시행된 부부사역 프로그램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Marriage Encounter(ME)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 신부인 Gabriel Calvo(1967)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한국에서는 1977년부터 주로 가톨릭 교회들을 중심으로 'ME 주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점차 개신교 교회들에서도 시행되면서 활성화된 주말 부부사역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먼저 멘토 부부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 부부나 팀 지도자 부부의 결혼생활 경험을 듣고, 부부가 각각 따로 서로의 기대와 관심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된 설문지에 답하고 교환한 뒤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며 의도적인 자기 개방을 통하여 서로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부부간 대화를 나누게 한다. 그리고 이어서 전체 그룹토의를 통해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부부들의 얘기를 듣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지지해줌으로써 더 건강한 부부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 내에서 부부사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 개발되고 시행되어온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중에 한국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한국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거나 한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송정아(1989)는 재미교포들의 부부문제 예방과 부부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부부행복 세미나'를 개발하여 미국과 카나다, 한국 등지에서 60여 차례 시행하였다. 한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들로는 조선경(1989)의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가정문화연구원(1991)에서 개발한 '새생활 가정세미나,' 정석희(1992)의 '부부관계 증진 학습프로그램,' 송정아(1994)의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오윤자·유영주(1994)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정현숙(1995)의 '부부관계 프로그램(일, 사랑, 가족 함께 가기),' 최정숙(1997)의 '부부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채규만·최규련(1996)의 '한국형 MCCP,' 이창숙·유영주(1998)의 '부부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 이현숙(1998)의 '인지행동적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권정혜·채규만(2000)의 '부부적응 프로그램,' 박남

숙(2000)의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모의희(2002)의 '부부적응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76]

이상과 같이 한국인 부부들을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기술 등을 습득하는데 비중을 준 심리교육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부부상담 및 치료, 예방 및 관계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절충하거나, 각 접근방법의 다양한 치료적 요소들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부부사역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들

이상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의사소통'에 관한 것으로, 정상적인 부부가 서로 간의 다양한 차이들을 잘 이해하고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써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고 부부관계가 향상되어 결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갈등해결'에 관한 것으로,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점들 가운데 해결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역기능적인 부부관계가 되지 않고 기능적인 건강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은 이상의 두 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자아 존중감, 결혼에 대한 기대, 친밀감 형성, 부부관계의 헌신, 부부의 의사결정, 원가족 이해와 수용하기, 부부의 역할, 부부의 성 등에 관한 주제들을 첨가하여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대표적인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의 회기별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박남숙(2000)의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①부부관계에 대한 이해, ②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③부부간 대화에서의 자기표현, ④배우자에 대한 공감능력 및 공감적 표현, ⑤부부대화에서의 표현, 공감양식의 실제적 적용, ⑥갈등해결하기, ⑦성적 친밀감 증진 ⑧정서적 친밀감 체험 (이상 8회기).

---

76) 김희진,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881.

- 유은희(2002)의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①결혼에 대한 현실적 기대, ②의사소통 I: 위험한 대화, ③의사소통 II: 안전한 대화, ④갈등해결, ⑤헌신, ⑥즐거움 추구활동 (이상 6회기).
- 김희진(2005)의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①긍정적 감정 및 친밀감 형성 I, ②긍정적 감정 및 친밀감 형성 II, ③부부의 의사소통, ④부부의 갈등 대처방식, ⑤부부의 친밀한 성, ⑥배우자 원가족과 관계 맺기, ⑦부부의 역할수행, ⑧ 부부의 긍정적인 미래설계 (이상 8회기).
- 문순희(2009)의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①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차이, ②우리 뿌리 사랑하기(원가족), ③부부 의사소통 I: 상대방의 언어로 들어주기, ④부부 의사소통 II: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기, ⑤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자아존중감), ⑥용서하고 사랑해요(부부갈등해결), ⑦가장 아름다운 언어: 부부의 성, ⑧행복한 부부관계 확인하기 (이상 8회기).
- 박수선(2013)의 "신혼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①나-너 그리고 우리, ②사랑의 대화 I: 행복을 가져다주는 대화법, ③사랑의 대화 II: 결혼생활 갈등대처법, ④일도 가정도 행복하게 (이상 4회기).

4. 부부사역 프로그램의 문제점들

이상과 같은 기존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로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중심의 심리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지식 전달의 측면이 강하다.

둘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법들이 어려워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실용적인 면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참석한 부부들의 필요와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넷째, 실험적 연구를 통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영성이나 신앙적인 영역이 중요시되는 교회 내의 부부들에게 적

용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다.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많은 부분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부부사역 프로그램인 PREPARE/ENRICH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한다.[77]

제 2 절 PREPARE/ENRICH 프로그램[78]

1. PREPARE/ENRICH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혼전 커플에 대한 성격과 관계성 평가'(PREPARE)와 '기혼 커플의 관계성 문제와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 향상'(ENRICH)을 위한 프로그램인 'PREPARE/ENRICH' (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프로그램은 관계성 검사(relationship inventory)를 위한 'P/E 설문지'라고 불리는 커플 평가 설문지와 설문지 결과에 따라 상담과 워크숍 형태로 시행되는 '피드백 나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0여년 전 P/E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래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3백만 커플 이상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이 커플들의 관계 강점들을 발전시키고 커플 관계 및 결혼의 문제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커플 관계와 결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79]

가. PREPARE/ENRICH 프로그램의 역사와 발전단계[80]

(1) PREPARE (Original & Second Version)

---

77) 서술된 네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보완책은 5장 2절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78) 대부분의 자료는 Life Innovations, Inc., *Prepare/Enrich Facilitator's Manual* (Online Version;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2012)를 본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79) David H. Olson, Amy K. Olson and Peter J. Larson, "PREPARE-ENRICH Program: Overview and New Discoveries about Couples," *Journal of Family & Community Ministries*, (2012), 25.

80) Life Innovations, Inc., *Prepare/Enrich Facilitator's Manual*, 11-13.

1977년에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 교수인 David Olson은 David Fournier와 Joan Druckman과 함께 혼전 커플들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들의 결과로 12개 내용 영역(Content Areas)을 포함하는 'PREPARE'를 개발하였다. 처음 개발될 때 제시된 12개 내용 영역은 ①이상주의적 왜곡, ②결혼 기대, ③성격 문제, ④의사소통, ⑤갈등해결, ⑥재정 관리, ⑦여가 활동, ⑧성적 기대, ⑨자녀양육, ⑩가족 및 친구들, ⑪역할 관계, ⑫영성/종교적 신앙 등이다. 그리고 1980년에는 Fournier(1978)에 의해 시행된 PREPARE의 효과성 입증을 위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125개의 설문을 포함하는 개정(Second Version)이 이루어졌다.

(2) ENRICH & PREPARE-MC (Marriage with Children)

1981년에는 결혼한 커플들을 위한 'ENRICH'가 개발되었다. ENRICH에는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를 측정하는 척도와 결혼생활 적응력 및 부부관계의 응집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부가되었고, 원래의 PREPARE 125개의 설문 중에서 15개는 개정되고 17개가 새롭게 첨가된 세 번째 개정판(Third Version)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는 이전의 결혼이나 동거관계로부터 생긴 자녀(들)을 가지고 결혼을 계획하는 커플들을 위한 'PREPARE-MC'도 개발되었다.

(3) PREPARE, PREPARE-MC & ENRICH (Fourth Version)

1986년에는 지금까지 개발된 PREPARE, PREPARE-MC & ENRICH의 네 번째 개정판(Third Version)이 개발되었다. 이 개정판에는 특히 '가족체계의 순환모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81]

81) '가족체계의 순환모델'은 Olson이 Candyce Russell과 Douglas Sprenkle(1989)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르는 변화에 대한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 위한 가족치료이론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FACES'는 커플과 원가족 간의 친밀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의 여부를 보여주는 '가족 적응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가족 응집성은 가족 체계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과 한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적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고, 가족 적응성은 부부나 가족체계가 상황적이거나 발달적 문제에 대응하여 권력구조, 역할

로부터 가져온 '원가족 척도'(Family-of-Origin Scales)가 적용되었다.

(4) MATE (Mature Age Transitional Evaluation)

1995년에는 50이 넘어서 처음 결혼하거나 재혼하고자 하는 커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삶의 전환기에 대한 문제와 세대 간의 문제 그리고 건강문제에 관한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MATE'가 개발되었다.

(5) PREPARE/ENRICH-Version 2000 (Fifth Version)

1996년에는 'Version 2000'이라고 불리는 P/E 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판에는 4가지의 혼전 커플유형과 5가지 기혼 커플유형을 제시하는 커플유형(Couple Typology)이 부가되었고,[82] 또한 긍정적인 측면의 자기주장(표현)과 자신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의 회피성과 파트너 지배성을 측정하는 '관계 역동척도'(Relationship Dynamics Scales)가 부가되었다. 그리고 건강한 결혼관계를 세우기 위한 '커플 워크북'이 개발되어 추가되었는데, 커플 워크북에는 6개의 핵심 커플 연습과제가 포함되어 있다.[83]

(6) PREPARE-CC (Cohabiting Couples)

2001년에는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혼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커플들이나 결혼을

관계 그리고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Cf. D. H. Olson, C. S. Russell and D. H. Sprenkle,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C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1979), 5.

82) P/E 프로그램의 4가지 혼전 커플유형은 ①활기찬 커플(Vitalized Couple), ②조화로운 커플(Harmonious Couple), ③전통적인 커플(Traditional Couple), ④갈등이 있는 커플(Conflicted Couple)로 되어있다. 그리고 기혼 커플유형은 이상의 4가지 커플유형에 ⑤활기가 없는 커플(Devitalized Couple)이 첨가되어 5가지 커플유형으로 되어있다.

83) 6개의 핵심 커플 연습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커플의 강점과 성장영역 이해하기, ② 자기주장과 적극적인 경청, ③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10단계, ④ 커플과 가족지도(Couple & Family Map), ⑤ 예산과 재정관리, ⑥ 삶의 목표세우기.

계획하는 동거 커플들의 관계성 평가에 대한 사용자 요청에 따라 '동거 문제'에 대한 54개의 새로운 혹은 개정된 질문들을 포함시킨 'PREPARE-CC'가 개발되었다.

(7) PREPARE/ENRICH-Customized Version (Sixth Version)

2008년 Olson은 Peter Larson과 함께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개별적인 P/E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커플들이 자신들의 관계성과 관련된 배경 질문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커플 맞춤형으로 개별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버전'(Customized Version)을 개발하였다.

이 맞춤형 P/E 버전은 커플의 결혼 단계와 가족 구조에 기초한 여러 가지 선택적 사항들이 첨부된 한 세트의 핵심 척도를 사용해서 온라인 설상에서 165개 문항의 커플 맞춤형 설문지가 구성되고, 커플이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에 답한 뒤에 상담자(facilitator)가 곧바로 그 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커플과 만나서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획기적인 온라인 버전[84]이다. 그뿐만 아니라 맞춤형 P/E 버전은 현재까지 한국어를 비롯하여 10개의 언어[85]로 번역되어 영어뿐 아니라 자국어로도 P/E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도 영어와 자국어로 받아볼 수 있으며, 피드백 나눔 과정을 위한 자료들도 영어와 자국어로 번역된 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약혼한 커플이나 신혼부부 커플과 결혼초기 부부들을 위한 예방사역과 관계 강화사역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소그룹용 맞춤형 버전인 'P/E 그룹 프로그램'과 'P/E 결혼 멘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P/E 그룹 프로그램은 본 논문이 추구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핵심 자료가 되기에 본 절의 후반부에서 따로 자세히 다룰 것이고, P/E 결혼 멘토 프로그램은 5장에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8) ENRICH Korea (https://www.enrichkorea.com/)

---

84) https://www.prepare-enrich.com/

85) 독일어, 루마니아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일본어, 중국어(简体中文 & 繁體中文), 포르투갈어, 한국어.

한국이 P/E 프로그램은 사랑의교회의 지원을 받아 당시 Denv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정 및 결혼상담학을 연구하던 나희수에 의해 1997년 1월 Olson이 대표로 있는 'Life Innovations, Inc.'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에 본격적인 P/E 검사지 번역과 한국화 작업을 거쳐 1998년 9월부터 PREPARE/ENRICH의 한국사무소인 'ENRICH Korea'(대표: 나희수)를 통해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PREPARE/ENRICH 부부상담을 담당하던 김덕일이 한국 내에 미출시된 P/E 검사지의 책임 번역자가 되면서 한국사무소와 협력을 시작하였고, 2003년 귀국 이후 세미나 디렉터로 활동해오다가 2010년 한국 사무소의 부대표로 취임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맞춤형 PREPARE/ENRICH 프로그램의 개관

맞춤형 P/E 버전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커플을 위한 맞춤형 P/E 설문지를 통하여 인터넷 선상에서 커플 평가를 시행하고, 이메일로 받게 되는 설문지 결과에 따라 각 커플에게 맞추어 커플 연습과 상담을 통한 피드백 나눔 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버전에는 기존의 버전들로부터 가져온 10가지 핵심 영역들 외에도 4가지 관계 역동 척도, 개인 스트레스 척도, 커플과 가족지도(Couple & Family Map), 그리고 심리학의 5대 성격요인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진 SCOPE 성격척도[86]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종교적 신앙의 다양성 척도, 헌신 및 용서 문제, 중독 및 학대 문제, 문화적/인종적 문제, 그리고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자녀양육을 위한 척도 등이 추가되어 커플에 따라 맞춤형으로 커플 평가 및 피드백 나눔을 할 수 있다.[87] 또한, 피드백 나눔을 위해서도 기존의 6개의 커플 연습을 위시해서 14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20개 이상의 다양한 커플 연습들이 있어서 커플의 필요에 맞추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88]

---

86) SCOPE 성격척도는 Costa와 McCrae(1992)에 의해 제시된 '성격형성 모델의 5가지 요인'(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에 기초하는 것으로, '사교성'(social: S), '변화'(change: C), '조직성'(organize: O), '배려'(pleasing: P)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emotionally steady: E)의 영어 약자를 모아서 이름 붙여진 PREPARE/ENRICH의 성격척도이다.

87) Life Innovations, Inc., *Prepare/Enrich Facilitator's Manual*, 5.

88) 피드백 나눔을 위한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14가지 항목과 커플 연습은 다음과 같다: ①

또한, 맞춤형 버전에는 피드백 나눔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설문지 결과에 대한 상세한 결과가 수록되는 '상담자 보고서'(Facilitator's Report) 외에도 중요한 항목들에 대한 결과가 수록되는 '커플 보고서'(Couple's Report)가 제공된다. 커플 보고서에는 커플 유형, 관계 역동, 커플과 가족지도, SCOPE 성격척도, 그리고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이 수록된다. 상담자(facilitator)[89]는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로 다운로드한 뒤에 프린트하여 해당 커플에게 '커플 보고서'를 주고 자신은 '상담자 보고서'를 가지고 한 회기에 60-90분씩 4-8회기의 피드백 나눔을 시행하게 된다. 상담자는 처음 4번의 회기에서 핵심 주제를 필수적으로 다룬 뒤에 나머지 4번의 회기는 커플의 필요와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된다. 피드백 나눔 과정을 위한 상담자 가이드는 <표 1>과 같다.

<표 1> 상담자 피드백 가이드(Facilitator's Feedback Guide)

회기	주 제	상담자 보고서	커플 워크북
1	강점 및 성장 영역 관계 역동 의사소통	커플 유형 관계 역동 의사소통	강점 및 성장 영역 나누기 자기주장 및 적극적 경청 희망사항 리스트 작성
2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 갈등해결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 갈등해결	가장 중요한 문제 파악하기 갈등해결 10단계
3	커플지도(Couple Map) 가족지도(Family Map)	커플지도 가족지도	관계지도 만들기

관계 강점 영역 및 성장 필요 영역 나누기; ②의사소통: 자기주장 및 적극적 경청, 희망사항 리스트 작성하기, 매일의 대화와 칭찬; ③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 가장 중요한 문제 파악하기, 우선순위의 균형 맞추기, 결혼준비 스트레스; ④갈등해결: 커플 갈등해결 10단계, Time-Out, 용서; ⑤재정 관리: 돈의 문제, 돈의 의미, 재정적인 목표의 중요성, 예산안 만들기; ⑥여가 활동: 데이트하기; ⑦성과 애정표현: 친밀감의 표현; ⑧역할: 역할을 나누기; ⑨영성(가치관): 영성 탐험하기; ⑩결혼 기대: 결혼에 대한 기대 조절하기; ⑪자녀양육과 부모역할: 자녀에 대한 커플 토의, 가족회의 계획하기, 복합가정-현실적인 기대 갖기; ⑫커플 및 가족지도: 당신의 관계지도, 친밀감 연습, 유연성 연습; ⑬성격특성: SCOPE 자신의 성격 알아보기; ⑭삶의 목표: 함께 성취할 삶의 목표 세우기. Cf. Life Innovations, Inc., *Couple's Workbook for building strong marriages* (Online Version;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2008).

89) 상담자(facilitator)는 P/E Facilitator Training Course를 마치고 자격을 얻은 목회자나 평신도 상담가 또는 가정사역자로서 커플들이 P/E 커플 평가 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상담자를 통해 인터넷(https://www.prepare-enrich.com/)에 접속해서 받아야 한다.

4	SCOPE 성격특성 목표 - 관계성	SCOPE 성격 프로파일	SCOPE 성격 알아보기 목표
5	재정 관리 관계성 역할	재정 관리 관계성 역할	재정 목표 역할 나누기
6	성과 애정 여가생활	성관계/성적 기대 여가생활	성과 애정 여가생활
7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영성(가치관)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영성(가치관)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영성(가치관)
8	피드백 점검 성장 반영 및 목표 설정		

이상과 같이 맞춤형 버전은 이전의 다양한 P/E 설문지들을 커플들의 결혼 관계의 단계와 가족 구조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이다. 과거의 평가 도구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설문지나 척도들을 가지고 커플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맞춤형 버전은 각 커플의 개별적인 특성에 근거한 맞춤형 설문지를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역동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함으로써 각 커플을 개별적으로 효과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트 중이거나 약혼, 동거, 결혼, 재혼 혹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커플 관계들에 맞추어 커플 평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커플 관계의 필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2. PREPARE/ENRICH의 주요 개념과 특성들

가. P/E 커플 유형들(Couple Typology)

P/E 설문지를 통해 커플 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남녀가 각각의 '수정된 개인 점수'(Revised Individual Score: REV)를 받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원점수를 검사지의 '국가 규준 근거'(National Norm Base)와 비교하여 백분율 점수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REV 점수에 근거하여 커플이 긍정적으로 서로 동의하는 여부와 동시에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ositive Couple Agreement

Score: PCA)[90]가 제시된다. REV 점수와 PCA 점수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관련되어있다. 즉, 높은 PCA 점수(80~100%)는 남녀가 모두 높은 REV 점수를 얻을 때 나타나고, 낮은 PCA 점수(0~30%)는 남녀 중 한 사람이 높은 REV 점수를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낮은 REV 점수를 얻거나, 두 사람 모두 낮은 REV 점수를 얻을 때 나타나며, 중간 정도의 PCA 점수(40~70%)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가 중간 정도의 REV 점수를 얻을 때 나타난다. 그리고 PCA 점수에 따라 산출된 커플의 전반적인 만족도, 관계강점영역 및 성장필요영역의 정도, 그리고 이상주의적 왜곡의 정도에 의해 교정된 결과에 따라 미혼의 예비커플은 네 가지, 기혼부부는 다섯 가지 커플 유형으로 커플 평가가 이루어진다(<표 2> 참조).

<표 2> PREPARE/ENRICH의 커플 유형들

유 형	특 징
활기찬 커플 (Vitalized Couple)	모든 영역에 전반적 만족도가 높다. 뛰어난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기술 보유. 가장 행복한 커플이며, 이혼율이 가장 낮다.
조화로운 커플 (Harmonious Couple)	대부분의 영역에서 만족 수준이 높다. 그러나 자녀 양육, 영적 신념 등의 영역 만족도가 떨어진다. 현재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전통적인 커플보다 이혼율이 높다.
전통적인 커플 (Traditional Couple)	서로에게 헌신적이지만,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기술이 부족. 자녀 양육과 영적 신념에 대한 일치도가 높고 조화로운 커플보다 이혼율이 낮다.
갈등 있는 커플 (Conflicted Couple)	대부분의 영역에서 만족 수준이 낮으며, 많은 영역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이혼의 위험성이 높고, 불행한 결혼생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활기 없는 커플 (Devitalized Couple)	기혼 커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 매우 낮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필요하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혼율이 가장 높다.

90) '긍정적 의견일치 점수'는 순방향 질문인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가 4(대체로 그렇다) 또는 5(매우 그렇다)로 대답했을 때, 역방향 질문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모두 1(전혀 아니다) 또는 2(대체로 아니다)로 대답했을 때 점수가 주어진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결혼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할 때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나. 다양한 내용 영역들(Content Areas)

(1) 핵심 척도들(Core Scales)

커플 평가를 위한 핵심 척도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척도와 데이트 중인 커플이나 약혼한 커플 혹은 기혼 커플들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척도들이 있다.

- 의사소통(Communication): 커플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개별적인 신념과 감정, 그리고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커플 관계에서 갈등의 존재와 해결에 대한 개별적인 신념과 감정, 그리고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
-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Partner Style & Habits): 파트너의 성격적 습관과 태도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척도.
- 가족 및 친구들(Family & Friends): 친척과 인척,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감정과 관심을 평가하는 척도.
- 재정 관리(Financial Management): 커플 관계 내에서 관리되는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태도와 관심에 초점을 맞춘 척도.
- 여가 활동(Leisure Activities):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선호도를 평가하는 척도.
- 영성(Spiritual Beliefs): 관계성의 맥락 안에서 영성(종교적 신앙 혹은 가치관)과 실천의 의미에 대한 태도와 감정, 그리고 관심을 평가하는 척도.
- 성적 기대(Sexual Expectations)/성적 관계(Sexual Relationship): 파트너와의 애정과 성적 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감정과 관심을 평가하는 척도.
- 관계 기대(Relationship Expectation): 데이트 중인 커플 관계에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갈등에 대한 개별적인 기대를 평가하는 척도.
- 결혼 기대(Marriage Expectation): 약혼한 커플 관계에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갈등에 대한 개별적인 기대를 평가하는 척도.
- 관계 역할(Relationship Roles): 약혼한 커플 관계에서 결혼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개별적인 신념과 태도, 그리고 감정을 평가하는 척도.
- 관계 및 책임(Roles & Responsibilities): 결혼한 커플 관계에서 결혼과 가족

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별적인 신념과 태도, 그리고 감정을 평가하는 척도.

- 성격 특성(Character Traits): 데이트 중인 커플 관계에서 그들과 그들의 부모의 성격 특성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양식에 관한 개별적인 만족도나 관심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 용서(Forgiveness): 결혼한 커플 관계에서 갈등이나 배신, 또는 상처를 준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

(2) 관계 역동(Relationship Dynamics)

관계 역동은 자기주장(표현), 자신감, 회피성, 그리고 파트너 지배성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자(facilitatior)가 커플의 관계 역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네 가지 영역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커플일수록 자기주장(표현)과 자신감은 높고 회피성과 파트너 지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있다. 네 가지 관계 역동 척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네 가지 관계 역동 척도

영 역	특 징
자기주장(표현) (Assertiveness)	파트너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신감 (Self Confidence)	자기 자신에 대해 혹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정하는 능력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회피성 (Avoidance)	문제를 축소하려 하거나 혹은 직면하지 않으려는 성향에 대해 평가한다.
파트너 지배성 (Partner Dominance)	파트너가 얼마만큼 자신을 조정하고 지배하려 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한다.

(3)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Personal Stress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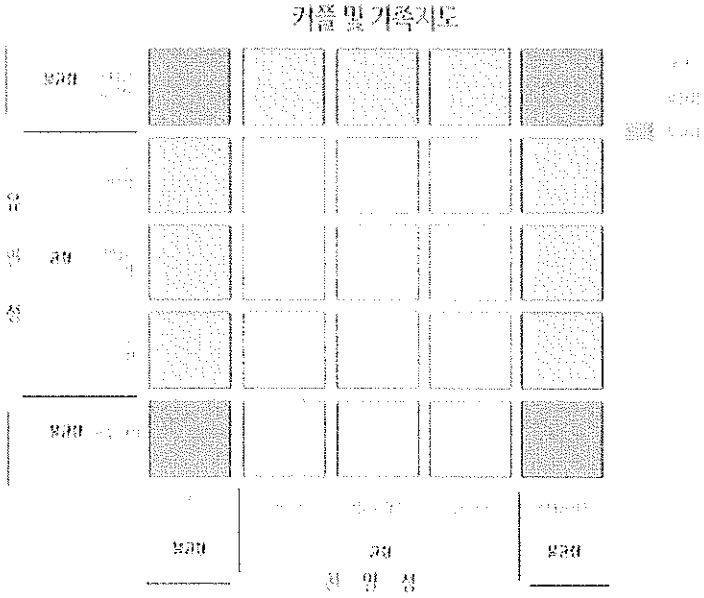
스트레스 요인들은 정서적 또는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스트레스의 정도는 그 사건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 혹은 부정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91] 맞춤형 버전은 파트너 별로 개별적인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제공하기 위해 Olson과 Stewart (199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파일'(the Coping & Stress Profile)에서 뽑은 25가지 체크 리스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4) 커플과 가족지도(Couple & Family Map)

맞춤형 버전에는 기존의 '가족체계의 순환모델'을 단순화하여 커플과 가족의 친밀성(closeness)과 유연성(flexibility)을 평가하는 척도[92]와 그 결과에 따라 그려지는 '커플과 가족지도'가 포함되어 있다(<표 4> 참조). 커플과 가족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적당한 친밀성(결속)과 적당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다.

<표 4> 커플 및 가족지도



91)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는 대체로 조절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대처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대처방식을 배워서 더욱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92) 커플과 가족의 친밀성은 커플 간에, 그리고 원가족 안에서 경험되는 정서적인 친밀감의 정도를 나타내과 동시에 커플과 원가족 간의 유대(togetherness)와 분리(separateness)의 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커플과 가족의 유연성은 커플 간에, 그리고 원가족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5) SCOPE 성격 척도(SCOPE Personality Scales)

'성격 형성 모델의 5가지 요인'(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을 바탕으로 개발된 SCOPE 성격 척도는 5개의 각각의 척도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알파 신뢰도를 보인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S (Social; 사교성): 사람과 사교적인 활동에 대한 흥미 정도
- C (Change; 변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이나 융통성에 대한 개방성 정도
- O (Organized; 조직성): 일상생활과 업무에서의 체계성, 일관성 정도
- P (Pleasing; 배려): 타인과 교제시의 사려 깊음과 협조성 정도
- E (Emotionally Steady; 정서적 안정성):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여유로움과 침착성 정도

(6) 맞춤형 척도들(Customized Scales)

맞춤형 척도들은 커플들의 결혼 관계, 자녀 유무, 종교적 다양성, 문화적/인종적 문제, 건강 문제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이 있다.

- 부모 역할 기대(Parenting Expectation)
- 자녀 양육 및 부모 역할(Children & Parenting)
- 의붓 부모 역할 기대(Step Parenting Expectation)
- 의붓 부모 역할 문제(Step Parenting Issues)
- 세대 간 문제(Intergenerational Issues)
- 부모 되기(Becoming Parents)
- 종교 간/교회 간 문제(Interfaith/Interchurch Issues)
- 문화적/인종적 문제(Cultural/Ethnic Issues)
- 건강 문제(Health Issues)
- 역할 전이(Role Transitions)
- 이전의 결혼 관계(Previous Marriage)
- 동거 문제(Cohabitation Issues)

다. P/E 설문지 사용의 목표

맞춤형 P/E 버전은 커플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커플들의 관계강점영역과 성장필요영역 탐색을 돕는다. 둘째, 커플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관해 반응하도록 준비시킨다. 셋째, 커플 관계에 대한 솔직하고 개별적인 대화를 촉진시킨다. 넷째, 커플 및 가족지도를 이용한 원가족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다섯째,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술들을 익히도록 돕는다. 여섯째, 커플의 두 사람 각각의 성격 평가와 비교를 제공한다. 일곱째, 결혼 기대, 성관계, 영성, 역할, 그리고 성격 차이 등과 같은 중요한 영역들에 대한 통찰력과 관심을 증대시킨다. 여덟째, 커플의 개인적인 목표, 커플의 목표, 그리고 가정의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이상과 같은 여덟 가지 목표는 설문지 결과에 따라 커플 연습 및 워크숍 혹은 상담을 시행하는 피드백 나눔 과정의 여덟 가지 목표로 이어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3. PREPARE/ENRICH 피드백 나눔 과정

피드백 나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먼저 커플이 상담자(facilitato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남녀가 각각 P/E 설문지를 마치게 되면 상담자는 곧바로 이메일을 통해 상세한 '상담자 보고서'(Facilitator's Report)와 '커플 보고서'(Couple's Report)를 받아보게 된다. 보고서를 받은 상담자는 커플의 남녀 응답에 대한 항목 분석을 점검한 뒤 커플과 만나서 피드백 나눔 과정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 상담자는 커플에게 커플 보고서를 주고 커플의 남녀 응답에 대한 항목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한 뒤에 6개의 핵심 커플 연습과제와 18개의 선택적 연습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커플 워크북'(Couple's Workbook)을 가지고 커플의 필요에 따라 4-8회기 방식이나 하루 워크숍(1-day workshop) 방식으로 피드백 나눔 과정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담자 보고서를 커플에게 주거나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커플 워크북은 성경구절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가. 남녀 응답에 대한 항목 분석

P/E 설문지 결과는 영역들의 질문 항목들마다 네 가지 부가적인 점수 형태를 산출하여 제시해준다. 네 가지 부가적인 점수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커플이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한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항목' ②커플이 모두 문제점이라고 대답한 '특별 초점 항목' ③커플이 대답에 대하여 우유부단하거나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미결정 항목' ④커플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의견 불일치 항목.' 상담자(facilitator)는 커플에게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항목'에 대하여 격려하고, '특별 초점 항목'을 강조하여 인식시키며, '미결정 항목'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묻고, '의견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 핵심 커플 연습과제

피드백 나눔 과정에서 다루는 여섯 가지 핵심 커플 연습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관계강점 영역과 성장필요 영역에 대한 나눔

커플에게 자신들의 세 개의 강점 영역과 세 개의 성장 필요 영역을 각각 작성하게 한다. 서로 비교해보면서 일치하는 영역과 일치하지 않는 영역을 찾아서 의견을 나누게 한다. 이 때 상담자는 커플이 성장 필요 영역보다 주로 강점 영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

(2) 자기주장(표현)과 적극적 경청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연습

커플에게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파트너에게 바라는 세 가지 소원을 적게 하고 서로 나누게 한 뒤에 자기주장(표현) 훈련과 적극적 경청 훈련을 시행한다. 자기주장(표현)을 할 때에는 "나"로 시작되는 대화("I" Statement)를 하도록 하고, 적극적 경청을 할 때에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요약해서 반복하여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커플에게

매일 일정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숙제를 내준다.

(3)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

커플에게 우선순위와 변화 가능성의 여부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분류하게 한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우선순위를 살펴보게 한다. 커플이 변화시키기 불가능한 문제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내버려둘 수 있도록 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융통성을 발휘하며 갈등해결 기술을 활용하게 한다.

(4) 갈등해결을 위한 10단계

갈등해결을 위한 10단계는 먼저 갈등에 대한 커플 각자의 견해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했던 방법들을 점검한 뒤에 커플 합의하에 새로운 갈등해결 방안을 정하도록 하며, 커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하여 책임 있게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10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토의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②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나 논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③문제나 논쟁점에 대한 커플 각자의 견해를 나눈다, ④이전에 시도했던 방안 중에 실패했던 것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⑤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아이디어를 내놓게 한다, ⑥아이디어들을 하나씩 토의하고 평가한다, ⑦아이디어 중에서 시도해볼만하다고 동의하는 해결방안 하나를 정한다, ⑧해결방안의 구현을 위해 각자 어떤 역할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합의한다, ⑨두 사람과 다음에 만날 날을 정하고 그동안의 진보를 점검하기로 약속한다, ⑩갈등해결에 기여한 서로에게 상을 베풀게 한다.

(5) 커플과 가족지도(Family & Couple Map)

커플 관계에 대한 친밀성과 유연성을 측정한 '커플지도'(Couple Map)와 커플의 원가족의 친밀성과 유연성을 측정한 '가족지도'(Family Map)를 통해 커플 관계와 커

플과 원가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뒤에 커플 간에 서로 동의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6) SCOPE 성격 특성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파트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격에 따라 선호와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파트너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게 한다. 유사한 성격과 다른 성격으로 인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파악하게 한다. P/E 검사를 받은 결혼한 10,000 커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격이 유사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경향에 대한 연구(Kaufman & Larson, 2011)에 의하면, SCOPE 척도의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60퍼센트, 둘 다 중간 정도의 점수인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20퍼센트, 둘 다 높거나 낮은 점수인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각각 10퍼센트였다. 둘 다 점수가 높은 10퍼센트의 커플이 결혼 만족도가 가장 높고 둘 다 점수가 낮은 10퍼센트의 커플이 가장 낮기는 하지만, 나머지 80퍼센트의 커플의 결혼 만족도는 성격이 유사성이나 차이성에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3]

다. 선택적 연습과제

P/E 커플 워크북에는 피드백 나눔을 위해 상담자의 판단에 의해 커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18개의 선택적 커플 연습과제가 제시된다. 상담자는 피드백 나눔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선택적 연습과제 중에서 커플에게 필요한 것을 숙제로 내줄 수 있다. 선택적 연습과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매일의 대화와 매일의 칭찬, ②우선순위의 균형 잡기, ③결혼 스트레스, ④타임아웃, ⑤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 ⑥예산 세우기, ⑦돈의 의미, ⑧데이트 연습, ⑨친밀감 형성하기, ⑩역할 나누기, ⑪영적인 여정, ⑫기대 관리, ⑬자녀 계획, ⑭가족회의 계획하기, ⑮복합가족에 대한 현실적 기대, ⑯친밀성 연습, ⑰유연성 연습, ⑱목표 달성하기.

93) Olson, "PREPARE-ENRICH Program," 33.

라. 피드백 나눔 과정의 목표

P/E 설문지 결과에 따라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①커플들이 관계 강점 영역과 잠재적 성장 필요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커플들이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③커플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커플과 가족지도를 통해 커플 간의 관계성과 원가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돕는다; ⑤커플들이 각각의 성격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⑥커플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는다; ⑦예산과 재정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⑧커플의 개인적인 목표와 커플의 목표 그리고 가정의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그밖에도 피드백 나눔 과정은 많은 커플들에게 커플 평가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부여를 갖게 하고, 커플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통찰력과 관계성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4. 소그룹을 위한 PREPARE/ENRICH 그룹 프로그램[94]

P/E 그룹 프로그램은 커플 관계나 가족 구조, 혹은 종교적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는 커플들을 소그룹으로 모아 그룹 워크숍 형태로 피드백 나눔 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결혼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보다는 주로 약혼한 커플이나 신혼부부 혹은 결혼초기 부부들을 위한 예방사역과 관계 강화사역에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소그룹용 맞춤형 P/E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가. P/E 그룹 프로그램의 활용

P/E 그룹 프로그램은 맞춤형 P/E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커플들이 온라인으로

94) 모든 자료는 Life Innovations, Inc., *Prepare/Enrich Group Program Instructor's Guide*, (Online Version;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2012)를 본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P/E 설문지를 통한 커플 평가 검사를 받은 뒤에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개별적으로 하는 대신 그룹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1) 그룹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P/E 그룹 프로그램을 위한 이상적인 그룹의 규모는 4-5 커플들과 하나의 멘토 부부로 구성된 소그룹이다. 커플의 숫자가 많을 경우 이런 소그룹 몇 개가 모여서 구성된 그룹 형태를 이루어 강의는 같이 듣고, 워크숍과 나눔은 강사의 지도하에 소그룹별로 시행하면 된다.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커플들이 P/E 프로그램의 상담자(facilitator)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룹 프로그램의 강사(instructor)를 통해 온라인으로 P/E 설문지 검사를 마치게 되면 강사는 이메일을 통해 그룹에 속한 모든 커플들에 대한 '상담자 보고서'와 '그룹용 커플 보고서'(Couple's Report-Group Edition)를 받게 된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강사 가이드'(Instructor's Guide)와 '커플 워크북'을 내려 받아서 P/E 그룹 프로그램의 강의와 진행, 그리고 커플 워크숍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커플들에 대한 P/E 설문지 검사 결과 '갈등 있는 커플'이나 '활기 없는 커플'로 나온 커플들은 강사가 따로 만나서 그룹 프로그램 대신 개별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별 피드백 나눔 과정을 통해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상담가나 상담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그룹 워크숍

P/E 그룹 프로그램의 워크숍은 피드백 나눔 과정을 그룹 워크숍 형태로 변형시켜놓은 것으로 전체 10회기로 되어 있으나 강사애 판단애 따라 커플들의 필요애 맞추어 5-8회기로 구성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강사 가이드애는 전체 10회기애 대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룹 프로그램애 참석한 커플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강사가 판단하고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워크숍을 진행할 때 강사는 각 회기 때마다 그 회기애 해당되는 커플 보고서와 커플 워크북을 커플들애게 제공함으로써 그 회기의 주재애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사의 역할

P/E 개별 프로그램에서의 상담자(facilitator)는 촉진자의 역할보다 상담자의 역할이 더 강하고 한다면, P/E 그룹 프로그램의 워크숍 강사(instructor)는 상담자의 역할보다 촉진자의 역할이 강하다. 강사는 그룹 내의 각 커플들이 워크숍을 통한 배움의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① 돌봄과 배려의 리더십을 제공한다. ②프로그램 안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제공한다. ③그룹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스케줄대로 움직이도록 한다. ④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적절한 예시들을 제공한다. ⑤다양한 연습들을 통한 커플 학습을 촉진한다. ⑥그룹 나눔과 토의 시간을 통한 그룹 학습을 촉진한다. ⑦적절할 때 적절한 수준의 개인적 경험들을 나눈다.

(4) 그룹 규칙

그룹 프로그램의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룹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 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그룹에서 듣거나 나눔을 통해 획득한 어떤 정보나 내용도 당신의 배우자 외에 어떤 사람과도 나누거나 토의하지 않는다.
- 그룹 안에서 다른 커플들과의 모든 나눔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다. 그룹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커플들과 나눔과 토론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과 토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절대로 강권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그룹 안에서 무언가를 나눌 때에는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을 말하라. 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진술 대신에 "나" 진술을 하는 것이 좋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느낀다."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커플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나눌 때는 먼저 파트너에게 물어보고 하라.

커플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을 나누기 전에 나눌 내용과 나누이도 될지의 여부를 자신의 파트너와 상의하고 확인해야 한다.

- 그룹의 목표는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기는 것이다. 다른 커플들과 함께 가지는 그룹 경험은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 동시에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누는 많은 내용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긴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는 것은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 P/E 그룹 프로그램 워크숍

앞에서 설명한 대로 P/E 그룹 프로그램의 워크숍은 10회기로 되어 있고 각 회기마다 60-90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워크숍의 진행 순서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95]

(1) 환영(Welcome)

전체적인 환영은 P/E 그룹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첫 날에만 시행한다. 커플들이 안내를 받아 이름표를 달고 자리에 앉게 되면 그룹 리더인 맨토 부부가 소그룹에 속한 커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 시작 시간이 되면 강사가 먼저 자신을 먼저 소개한 뒤에 참여한 커플도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아이스브레이커는 커플들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재미있는 질문들과 해당 회기에 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워밍업을 시키는 질문들로 되어 있다.

---

95) P/E 그룹 프로그램의 전체 10회기에 대한 각 회기별 워크숍 진행 지침은 <부록 2>을 참조하기 바람.

(3)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각 회기마다 해당 회기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커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룹 토의를 시행한다. 이때 강사는 주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이끌어내는 하나 내지 두 개의 질문을 주고 그룹 전체가 다같이 토의하거나 가까이에 앉은 두 세 커플들이 함께 토의하도록 한다.

(4) 강의 요점(Teaching Point)

'강사 가이드'에 나오는 각 회기를 위한 강의 요점을 강의하는 시간으로, 이때 강사가 강의 주제에 맞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좋다. 강사가 먼저 적절하게 자신을 노출시키면 커플들도 기꺼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5)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커플들에게 해당 회기의 커플 보고서를 나누어주고 그룹으로부터 분리되어 커플끼리 커플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 혹은 해석하게 한다. 이어서 해당 회기의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커플 연습과제를 나누어주고 강사의 지침에 따라 과제를 15-20분에 걸쳐 마치도록 한다. 이때 강사는 커플들이 질문할 경우 대답을 주거나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토의를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6)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커플들을 다시 그룹으로 모이게 한 뒤에 커플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것과 커플 연습관제를 푼 것에 대한 반응을 나누도록 한다. 이때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거나 통찰력을 제시하는 것이 환영된다.

(7)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전체 피드백 나눔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천, 숙제 그리고 주제에 관련된 책읽기를 제안한다.

다. P/E 그룹 프로그램의 효과성

P/E 그룹 프로그램은 잘 갖추어진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한 커플들의 독특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디자인된 프로그램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다. 특히 P/E 그룹 프로그램의 예방적 접근은 성공적인 결혼과 관련된 요소들 인식하는 것, 이러한 요소들에 근거하여 커플들을 평가하는 것, 커플들에게 문제 영역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피드백 나눔과 커플 연습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커플들에게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연습을 제공하는 것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P/E 그룹 프로그램은 8개의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들(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MPEP)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하는 연구에서 내용 면에서는 92퍼센트의 점수를, 교습 과정 면에서 90퍼센트의 점수를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92퍼센트의 내용 점수는 이론과 연구조사(97퍼센트), 전후맥락(82퍼센트), 실천방안(96퍼센트) 그리고 혼전 예측(88퍼센트)의 네 가지 요소에 근거한 점수이고, 90퍼센트의 강의 과정 점수는 강의 계획(88퍼센트)와 프레젠테이션(92퍼센트)의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한 점수이다.[96] 또한, P/E 그룹 프로그램과 개별적인 P/E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두 프로그램은 효과성의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며, 프로그램 진행에서도 피드백 나눔 과정이나 그룹 워크숍을 회기별로 하는 것과 하루 워크숍(1-day workshop)으로 하는 것이 효과성의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7]

---

96) Geniel Childs, "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An Evaluation of Essential Elements of Qu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Brigham Young University, 2008).

97) Ted G. Futris, Allen W. Barton, Tiffiany M. Aholou, and Desiree M. Seponski, "The Impact of PREPARE on Engaged Couples: Variations by Delivery Format,"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10 (2011), 69.

5. PREPARE/ENRICH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맞춤형 P/E 프로그램과 소그룹용 P/E 그룹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과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용이한 접근성

P/E 프로그램은 이론적 기초와 연구조사의 기반이 매우 강하고, 문서로 된 자료들뿐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자(facilitator) 혹은 강사(instructor)와 참여 커플들에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준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Life Innovations에서 하루 워크숍(1-day workshop) 형태로 제공되는 상담자 훈련을 받은 뒤에 온라인을 통해 P/E 설문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들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P/E 그룹 프로그램은 P/E의 상담자 훈련을 받은 준전문가 또는 비전문가 목회자나 가정사역자, 또는 평신도 상담자가 교회 등에서 혼전 커플이나 신혼 또는 결혼초기 부부들에게 부부문제 예방사역 차원에서의 교육과 상담에 사용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진 소그룹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다.

나.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접근방식

P/E 프로그램은 커플이 각자의 성장 배경과 타고난 성격 특성을 주의 깊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하는 등 과거와 현재를 살펴서 커플 관계의 갈등과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차원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하게 한다. 동시에 P/E 프로그램은 주로 각자의 관계 강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커플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하게 한다. 더욱이 P/E 그룹 프로그램은 커플들이 소그룹 안에서 멘토 부부를 통해 건강한 부부관계의 모델을 볼 수 있고, 커플들 간의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성장이 필요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

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다. 예방적 도구 및 능력 강화의 도구

P/E 프로그램은 커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커플 간의 어떤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예방적 도구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P/E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예방적 접근을 위한 네 가지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결혼의 성공과 관련된 요소들이 인식될 필요성; ②커플들의 중대한 변수들이 평가될 필요성; ③커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 영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피드백과 커플 연습이 주어질 필요성; ④커플들에게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기술들에 초점을 맞춘 커플 연습이 주어질 필요성. 또한, P/E 프로그램은 목회자나 상담자에게 커플 관계에 대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객관적 자료와 진단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커플들을 돕는 일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커플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도록 도움으로써 파악된 문제에 대한 상담의 방향설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특히 P/E 프로그램은 배우거나 사용하기가 쉽고 상대적으로 상담시간이 짧아 시간에 쫓기는 목회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교회 안에 대상 커플들이 많을 경우 P/E 그룹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라.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

P/E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개발되고 검증된 높은 수준의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PREPARE는 혼전커플들이 헤어지거나 결혼 후에 이혼하게 될지, 아니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지에 대한 구분에 대하여 80-85퍼센트의 정확도를 가지며, ENRICH는 결혼문제를 가질 것인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에 대하여 85퍼센트의 정확도를 가진다. 또한, P/E의 핵심척도들에 대한 신뢰도는 '알파 신뢰도'(alpha reliability) 점수로 .75-.85에 이르며, 검사/재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상관관계'(average correlation) 점수로 .80에 이른다.[98] 이상과 같은 타당도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P/E 프로그램은 커플의 궁극적인

결혼의 성공이나 행복 여부를 예측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한 목적으로 P/E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오히려 P/E 설문지 결과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낮은 점수는 결혼의 성공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상담을 더해야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P/E 설문지의 결과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마.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영적 만족도

P/E 프로그램은 일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과 달리 핵심 척도에 부부의 '영성'(Spiritual Beliefs)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다.[99] 그런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적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고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Larson과 Olson(2005)은 P/E 설문지 검사를 받은 24,671쌍의 미국 기독교인 부부들[100]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영적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의 36퍼센트가 '활기 있는 부부'인 반면 낮은 부부들은 5퍼센트만이 '활기 있는 부부'로 나타났고, 영적 만족도가 낮은 부부들의 82퍼센트가 '갈등 있는 부부'인 반면 높은 부부들은 9퍼센트만이 '갈등 있는 부부'로 나타났다.[101] 또한, 김덕일과 송원영(2011)은 ENRICH 검사를 받은 815쌍의 한국 기독교인 부부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영적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상위 25퍼센트)의 63.7퍼센트가 결혼 만족도가 높은 반면 낮은 부부(하위 25퍼센트)는 25.56퍼센트만이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영적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의 4.3퍼센트만이 이 둘 다 이혼을 고려하는 반면 낮은 부부들은 17.9퍼센트가 이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2] 이러한 연구결과

98) Life Innovations, Inc., *커플 워크북*, 8.
99) 영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부부관계의 성장을 돕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가 함께 신앙을 의지하는지, 영적인 신념들 때문에 부부가 더 가깝게 느끼는지 등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개인의 영적 만족도를 측정할 뿐 아니라 부부간의 영적 만족도의 일치 여부도 보여준다.
100) 개신교 50퍼센트, 천주교 15퍼센트, 다른 형태의 기독교 교단들 35퍼센트.
101) The Olsons and Larson. "PREPARE-ENRICH Program," 25, 38.
102) 김덕일, 송원영,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11. 5.), 56-63.

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P/E 프로그램은 영성에 대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근거한 '친밀한 사랑'과 '자발적 헌신'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워주신 '한 몸'된 부부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려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노력이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6. 한국판 ENRICH의 타당화와 표준화

PREPARE/ENRICH는 1998년 ENRICH Korea를 통해 한국 내에 소개되었는데, 한국인 커플들의 특성에 따라 혼전 커플들을 위한 PREPARE보다는 신혼기와 결혼초기의 기혼 커플들을 위한 ENRICH를 비중 있게 활용하면서 2009년까지 1,500 커플 이상이 참여하였고 지금도 계속하여 상담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103]

ENRICH Korea에서는 2007년 한국판 ENRICH의 타당화와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상담 전문가나 성직자를 통해 ENRICH 설문지를 통해 커플 평가와 부부 상담을 받았던 1,058커플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최근 한국 가정 내에서의 역할 기대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부부 갈등 문제 및 이혼율 증가의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는 데에 필수적 척도가 되는 결혼만족도 척도의 도구로서의 한국판 ENRICH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04]

> 분석 결과 각각의 한국판 ENRICH 척도의 하위 척도들은 높은 수준의 내적 일치도(alpha=.629-.89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NRICH의 각 척도들은 결혼 불만족 집단과 만족 집단을 높은 수준의 정확률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척도가 높은 수준의 타당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ENRICH의 PCA 척도 변인 10개 중 7개의 변인이 부부

103) 김덕일 외, "한국판 ENRICH 결혼만족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09. 11), 13.
104) 박재우, "한국판 ENRICH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7), 80.

> 만족지수의 56%에 이르는 변량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ENRICH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검사로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영역을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척도의 하위 점수들은 결혼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NRICH Korea는 ENRICH의 10개의 PCA 척도에 대한 군집 분석을 통하여 PREPARE/ENRICH의 5가지 커플 유형이 한국인 부부에게 동일하게 확인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부부들에게도 미국뿐 아니라 다른 문화권들과 유사한 5가지 커플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미국에 비해 '전통적인 커플'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105] 이 연구의 5가지 커플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106]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부들도 ENRICH로 측정된 결혼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전반적으로 높은 '활기찬 커플'(Vitalized couple); 활기찬 커플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으나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아래에 언급한 '전통적인 커플'에 비해 육아 관련 스트레스 등에서 이혼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알려진 '조화로운 커플'(Harmonious couple); 조화로운 커플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으나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과 '영성/종교적 신앙'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높고 이혼율이 낮은 '전통적인 커플'(Traditional couple);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갈등 있는 커플'(Conflicted couple); 제반 만족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활기 없는 커플'(Devitalized couple)로 타문화 연구와 동일한 양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한국의 결혼한 커플들이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 역할에 지대한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과 한국인들의 특징 중의 하나인 영성, 즉 종교적 신앙에 대한 열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107]

---

105) 5가지 커플 유형에 대한 한국 vs. 미국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활기찬 커플(15.7 vs. 13), 조화로운 커플(11.3 vs. 12), 전통적인 커플(23.8 vs. 15), 갈등 있는 커플(26 vs. 28), 활기 없는 부부(23.2 vs. 31).

106) 송원영, "ENRICH를 근거로 한 한국 부부의 5가지 유형,"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7): 82.

107) ENRICH Korea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여 한국인 부부들 가운데 영적으로 만족하는 기독교인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

제 4 절 요약

본 장에서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얻기 위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그리고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의 실태 파악 및 분석 결과에 따라 기독교인 부부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부부사역 프로그램 모델로 평가되는 PREPARE/ENRICH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정사역 중에서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사역, 즉 부부사역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미국과 한국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부부관계에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된 후에 치료적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것보다 결혼 전이나 가능하면 결혼초기에 부부문제나 갈등을 예방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부부관계를 향상 및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신혼기나 결혼초기에 시행되는 부부문제 예방과 관계 강화를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장에서 기독교인 부부관계를 위한 예방사역과 관계 강화사역에 효과적인 부부사역 프로그램 모델인 PREPARE/ENRICH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본 논문의 주제인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와 실제적인 방안들을 얻게 되었다.

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PREPARE/ENRICH에서 혼전 커플들에게 PREPARE를 시행한 후 3년간 종단연구를 한 결과 영적 만족이 낮은 커플일수록 이혼을 많이 하였다는 연구보고(1992)와 ENRICH를 사용하여 영적 만족이 높은 부부가 낮은 부부에 비해 원가족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모든 결혼 만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보고(2005)를 한국인 커플들에게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Cf. 김덕일, 송원영,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11. 5.), 49-70.

제 5 장
부부문제 예방과 관계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

본 장에서는 '치료적 전략이 있는 예방사역'과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관계 강화사역'을 핵심 과제로 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108] 본 논문에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란 말은 '소그룹 형태로 되어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이라는 말이기보다는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이 있는 소그룹 사역'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PREPARE/ENRIC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부 성장 소그룹 모델'을 적용하여 부부문제 예방과 관계 강화를 위한 '한시적인 맞춤형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109]을 개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제 1 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신혼부부 시기의 특성

인생에 생애주기가 있는 것처럼 가정도 일련의 발달주기가 있고, 주기의 각 단계마다 발달적 과업과 가족체계의 변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결혼에서 첫 자녀 출산까지의 '가정 형

108) 본 논문은 부부관계의 문제나 갈등을 겪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치유사역적인 측면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존재가 변화되는 과정(롬 8:28-29)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장을 이루어 건강한 부부관계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09) '한시적'이라 함은 결혼 직전의 혼전상담을 포함해서 결혼 후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의 사역 기간을 말하고, '맞춤형'이라 함은 신혼부부를 사역 대상으로 함을 말한다.

성기'로부터 시작하여 자녀(들)의 출산과 성장을 통한 '가정 확대기'와 자녀(들)의 결혼과 분가 및 독립을 통한 '가정 축소기'를 거쳐 부부(부모)의 사망을 통한 '가정 해체기'에 이르는 단계에 따르는 가정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과업이 발달되고 변화되는 연속적이고 주기적인 발달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가족생활주기 모델들이 제시되고 체계화되었다.[110] 이러한 모델 중에서 가정사역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Duvall과 Miller(1985)의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가족생활주기를 주로 결혼과 첫 자녀의 성장 단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8단계로 체계화한 것이다: ①가정 확립기, ②자녀출산 및 미취학 아동기, ③초등 교육기, ④고등 교육기, ⑤대학 교육기, ⑥자녀의 직업 적응기, ⑦경제적 회복기, ⑧은퇴기의 8단계.[111]

한국인의 가족생활주기 모델 중에서 가정사역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송성자(1992)의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결혼을 중심으로 결혼 전과 후를 나누는 동시에 첫 자녀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의 양육과 독립 및 출가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가족생활주기를 다음과 같이 8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①결혼 전기(본인의 출생에서 결혼 전까지), ②결혼 적응기(결혼하여 첫 자녀를 낳기까지), ③자녀 아동기(첫 자녀를 낳은 후부터 자녀의 아동기까지), ④자녀 청년기(첫 자녀의 청년기 및 결혼 전까지), ⑤자녀 독립기(모든 자녀가 독립하여 출가할 때까지), ⑥노년기(부부만이 남는 인생 후기).[112] 송성자의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르는 단계별 발달과업과 체계변화는 <표 5>과 같다.[113]

---

110)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Rowntree(1903)이 가족생활주기를 3단계로 구분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30년대부터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주기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Sorokin(1931)외 두 명의 학자들이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주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고, Kirkpatrick(1934)는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로 4단계로, Bigelow(1942)는 가정의 수입변화와 자녀의 교육기간을 중심으로 7단계로, Rodgers(1962)는 첫 자녀와 마지막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10단계 24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Wells와 Gubar(1966)은 마케팅에 적용하기 위해 '미혼단계'부터 '배우자와 사별'까지를 9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사회경제분야의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표준이 되었다. Cf. 안종수,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제23집 (2002): 276-278.

111) E. M. Duvall and B. C. Miller,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Lippincott, 1985), 62; 윤정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정사역 프로그램," *신학지평* 제14집 (2001), 117에서 재인용.

112)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홍익제, 1992), 35.

113) Ibid., 35.

<표 5> 송성자 모델의 가족생활 주기의 체계변화

단계	전이과정의 발달과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체계변화
제1단계 결혼 전기	부모-자녀 관계의 분리를 받아들임	• 원가족과의 관계로부터 분화 • 밀접한 이성관계의 발전 • 자기 과업의 확립
제2단계 결혼 적응기	새로운 체계에 대한 인정	• 부부체계 형성 • 지위, 역할, 기대 변화에 대한 적응 • 배우자의 가족, 친구와의 관계 제휴 • 부부관계에서 새로운 행동유형 발전
제3단계 자녀 아동기	새로운 가족 구성원 증원	• 부부체계가 자녀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적응 • 부모 역할의 발달 • 확대가족과의 관계 제휴
제4단계 자녀 청년기	자녀의 독립성 인정을 위해 가족 영역의 융통성 증가	• 청년기 자녀가 가족체계의 내외에서 움직이도록 부모-자녀 관계를 변화시킴 • 중년기 부부의 경력 문제에 대한 재관심 • 노인세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함
제5단계 자녀 독립기	융통성 있게 가족 구성원의 증감에 적응	• 부부만의 체계로 재조정 • 성장한 자녀와의 관계를 성인과의 관계로 발전시킴 • 조부모로서 손자/손녀와의 관계 형성 • 자신의 노부모의 죽음에 대처
제6단계 노년기	세대 변화에 따른 역할과 사회 은퇴에 적응	• 새로운 가족과 사회적 역할을 탐색 • 다음 세대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 • 연장자로서의 지혜와 경험을 근거로 정신적 여유를 가짐 • 배우자, 형제, 친구들의 죽음에 대처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함 • 삶을 되돌아보고 통합함

송성자의 가족생활주기 모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혼 직후로부터 첫 자녀 출산 전까지의 기간인 '신혼부부 시기'(신혼기)는 대부분 '결혼 적응기'[114]로 불린다. 가족

114) '적응'이란 심리학적 용어로 쓰일 때 사람이나 생물이 자기의 욕구와 환경 사이에서 조화를 구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인생의 목표는 단순히 살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보다 적절한 자아의 유지 및 상승에 있으므로,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하려는 자아 적절성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자아충족과정을 '적응'이라 할 수 있다. Cf. 유영주,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4), 128-129.

생활주기에서 신혼기를 결혼 적응기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부부관계로 형성된 새로운 체계인 가정 안에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해 각자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인격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둘째, 더 나아가서 결혼을 통해 형성된 확대가족, 그리고 각자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며 적응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설은주는 이러한 결혼의 적응기인 신혼기 혹은 결혼초기의 부부관계가 결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115]

> 신혼 초에는 부부 각자가 상대방의 욕구나 필요에 민감하므로 상호 행위의 변화가 보다 용이하나, 결혼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덜 민감해지며, 개인의 행위는 보다 습관적으로 굳어버리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보인다. (결혼한 신혼부부는) 결혼초기의 다양한 문제와 상이점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부부가 어떻게 적응해나가며 또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는 이후의 가족생활주기 진행에 따른 재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인격체가 부부로 하나가 되는 체제적 연합인 동시에, 각각의 원가족과 친족으로 구성된 크고 복잡한 두 가족체계가 합치져서 확대가족을 형성하는 체계적 전환이다. 가족생활주기는 그 단계들마다 나름대로의 전환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결혼을 통한 신혼부부 단계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신혼부부는 원가족과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 하나의 하위체계로서의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원가족과의 지위 및 관계 변화를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116] 따라서 신혼기의 결혼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

---

115) 설은주, *가정사회론*, 개정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243.

116)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여 '결혼 적응기'로 넘어간다. 그러나 한국 문화권에서는 미혼 자녀,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결혼하기까지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상례이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 독립기'와 '결혼 전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결혼 적응기'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 독립기'와 '결혼 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곧 원가족에게서 분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연되어 '결혼 적응기'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화권에서는 '결혼 적응기'에 시댁의 기대와 요구가 많을 뿐 아니라, 부부 각자의 원가족과의 밀착, 또는 반목이 부부의 생활과 갈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Cf. 정문자, 이

이와 부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의 기술 등과 같은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인 남자와 여자가 원가족과의 체계 변화와 함께 부부관계로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신혼기는 이러한 결혼 적응과 함께 자녀(들)의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통한 부부간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상호협력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인 동시에 원가족과 확대가족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과 같은 대체가족의 전폭적인 지지와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 부부 멘토링 사역

멘토링은 오래 전부터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가족 체계 안에서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을 통한 멘토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함께 일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멘토링 관계가 존재해왔기 때문이다.[117] 사실 성경에는 멘토링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멘토링 관계와 멘토링의 원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발견된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멘토링 관계로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 등의 멘토링 관계가 있으며,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멘토링의 관계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가. 멘토링의 의미와 특성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여기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멘토'(mentor)라고 하고,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멘티'(mentee) 혹은 '프로테제'(protege)라고 한다.

현수, 김연희, "가족생활주기별 내담자의 문제와 가족치료기법 분석," *Annual Report of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vol.16 (2002), 93.

117) 시대가 발전하면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멘토링이 많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멘토링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다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멘토링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멘토)이 다른 사람(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선배나 경험이 많은 사람(멘토)이 후배(멘티)와 진지한 관계를 맺으며 역할 모델이 되고 개인적이며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18] 여기서 멘토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지혜, 통찰과 전망 등을 제공하며 조언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영적 혹은 신앙적 의미에서 볼 때 멘토링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멘토)이 다른 사람(멘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긍정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나눔으로써 변화와 성장 및 성숙을 위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혹은 신앙적 의미의 멘토링은 영적 상담, 영적 지도, 영혼의 우정, 제자도, 또는 간단히 영적 인도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통칭하여 '영적 멘토링'이라고 한다.[119] 여기서 멘토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것,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120]

일반적인 의미에서든 영적, 혹은 신앙적 의미에서든 멘토링은 일종의 관계이다. Biehl은 "멘토링은 평생을 지속해야 하는 관계이다"[121]라고 했다. 이상적인 멘토링 관계는 멘토와 멘티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계속될 수 있는 것이요, 심지어는 멘토가 죽은 뒤에도 멘토의 모범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지속될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으며 살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즉 자신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 더욱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찾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멘토링 관계'이다. 멘토링 관계는 대부분 멘티가 경험이나 지식이 많거나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을 멘토로 삼으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멘토링 관계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면 멘티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우정관계로 발전되고 더욱 균형이 잡힌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

118)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https://www.koreanpsychology.or.kr/), 2014. 4.
119) Keith R. Anderson and Randy D. Reese, *영적 멘토링 (Spiritual Mentoring)*, 김종호 역 (서울: IVF, 2001), 44.
120) 이를 위해 멘토는 자신뿐 아니라 멘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의 의미를 분별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Cf. Anderson and Reese, *영적 멘토링*, 57.
121) Bobb Biehl, *멘토링 (Mentoring)*,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37.

때로는 친구나 형제와 같은 관계가 된다. 이것이 바로 멘토링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멘토링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관계를 처음에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시작하셨으나 계속되는 멘토링을 통해 때로는 '친구의 관계'(요 15:14-15)로, 더 나아가서 '형제의 관계'(마 12:49- 50)로 발전시키셨다.

나. 멘토링의 종류

교회에서의 멘토링 관계는 멘토링 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멘토링과 일시적인 멘토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멘토링 방식에 따라 적극적인 멘토링과 소극적인 멘토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비형식적인 멘토링인 영적 멘토링이 있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멘토링은 규칙적인 상호작용과 계획성이 필요한 멘토링 관계로서 제자훈련, 영적 안내, 코치 멘토링 등이 있다. '제자훈련'은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며 순종하는데 필요한 제자도의 기능을 위해 가르치고 격려하며 능력 부여를 추구하는 멘토링이고, '영적 안내'는 영성을 위한 점검과 확인,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영적 훈련을 제공하는 멘토링이며, '코치 멘토링'은 영적인 헌신과 사역을 위해 방법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도록 도전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훈련시키는 멘토링이다.[122]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멘토링은 적절한 때에 특별한 역할을 하면서 관계와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 관계로서 상담자 멘토링, 교사 멘토링, 후원자 멘토링 등이 있다. '상담자 멘토링'은 멘티가 삶과 사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언과 통찰력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멘토링이고, '교사 멘토링'은 멘티의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해력을 증진시키며 동기를 부여하는 멘토링이며, '후원자 멘토링'은 사역 환경 속에서 멘티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적인 안내와 보호를 제공하는 멘토링이다.[123]

영적 멘토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겨지는 인도와 분별력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는 비형식적인 멘토링이다. 영적 멘토링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선교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등의 직접적인 신적 접촉을 통해

122) Anderson and Reese, *영적 멘토링*, 45.
123) Ibid., 45.

주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사람을 통해 말씀이나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는 간접적인 신적 접촉을 통해 주어지기도 한다.[124] 교회에서 멘토링 사역을 할 때에는 모든 멘토링 관계가 단순히 멘토와 멘티의 이자관계가 아니라 멘토와 멘티, 그리고 성령의 '영적인 삼각관계'[125]임을 인식하고 멘토링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김으로써 어떤 이유나 사정으로 멘토와 멘티 사이의 멘토링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더라도 성령과의 멘토링 관계는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평생을 지속하는 멘토링을 하셨다. 이러한 멘토링이야말로 멘토링 관계를 통하여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부부 멘토링 사역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멘토링을 필요로 하지만, 가정사역, 특히 부부사역에서의 멘토링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결혼한 뒤에 부부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별거나 이혼으로 쉽게 도피하게 되고, 남녀의 성역할과 성주체성의 혼돈을 겪으면서 역기능적인 부부관계와 동성애적 관계들이 늘어가며, 부모가 되어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서 자녀를 갖기를 두려워하거나 자녀양육을 거의

---

124) Cf. Anderson and Reese, *영적 멘토링*, 45-72.

125) Murray Bowen은 '가족치료이론'에서 '치료적 삼각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치료적 삼각관계는 가족구성원 중에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즉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구성원 두 사람과 멘토의 역할을 하는 치료자 혹은 상담자가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역기능적인 가족투사의 고리를 끊고 자아분화 수준을 높여서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전체 가족관계가 향상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Bowen의 이론을 부부사역에 적용하면 부부가 목회자나 평신도 상담자와의 치료적 삼각관계를 통해 원가족 구성원과의 증상적인 삼각관계의 정서적 구조가 변화되고 치료됨으로써 부부문제의 해결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부부관계 건강한 상호 독립적 의존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적 삼각관계를 통한 상담심리적 치료조차도 그 주도권을 치료자나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목회자나 평신도 상담자가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것이 교회에서의 멘토링 사역이라 할 수 있다. Cf. Daniel V. Papero, *보웬 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Bowen Family Systems Theory)*, 남순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136-138.

가정 외의 기관들에 맡겨버리는 일들이 현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부 멘토링 사역으로는 Marriage Savers와 Caring Couples Network가 있다. Marriage Savers는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세우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여 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돕도록 하는 부부 멘토링 사역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결혼정책'(CMP)[126]을 세우도록 하고, 이 결혼정책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교회들에 속한 부부들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각 교회에 있는 다른 결혼관계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멘토 부부로 선발하고 훈련하여 혼전 커플의 결혼준비, 결혼생활의 문제와 갈등해결,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의 화해, 심지어는 재혼을 통해 형성된 복합가정(step family)을 돕는 일까지 감당하는 포괄적인 사역을 시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멘토 부부들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도 공헌한다.[127]

Caring Couples Network은 미연합감리교단(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시작된 것으로, 교회 내에서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을 선발하여 '도움 부부'(caring couples)로 훈련시킨 뒤에 '파트너 부부'라고 부르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부부들을 연결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부 멘토링 사역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시행되는 평신도 부부 멘토링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사역과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른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전문 상담가들과 상담기관들을 연계시켜서 팀 사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공헌하는 부부사역 프로그램이다.[128]

이상과 같은 부부 멘토링 사역은 본질적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

126) 2000년 3월까지 미국 120개 도시에서 CMP를 받아들였으며, CMP를 채택한 도시들은 이혼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예를 들면, Modesto, CA는 CMP를 처음으로 적용한 도시인데 이혼율이 30퍼센트나 감소했고, Kansas City, KS는 CMP적용 후 3년 만에 이혼율이 33퍼센트나 감소했으며, 국가적으로도 이혼으로 소문난 곳인 Dalton, GA는 CMP적용 후 1년 만에 이혼율이 21퍼센트나 감소했다; Michael J. McManus, *Marriage Savers*, 317.

127) Cf. Michael J. McManus, *Marriage Savers Manual* (Potomac, MD: Marriage Savers, 2000).

128) Cf. Richard and Joan Hunt, *Caring Couples Network Handbook* (Nashville, TN: Discipleship Resources, 1996).

회복하기 위한 가정사역의 일환으로서 특별히 가족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에 관심을 두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멘토 부부들을 선발하고 훈련하여 다른 부부들을 돕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이끌어줌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사역이다. 물론 목회자나 목회자 부부가 멘토 혹은 멘토 부부가 되어 교회의 모든 부부들을 멘토링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목회자 부부의 지도와 감독(supervision) 하에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성숙한 부부들, 특히 부부문제와 갈등을 잘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 부부들을 멘토 부부로 세워서 혼전 커플들, 신혼부부들이나 결혼초기의 부부들, 또는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멘토링하도록 하는 부부 멘토링 사역은 교회 안에서 매우 절실하고 또한 효과적인 가정사역이 아닐 수 없다.

3. 부부 성장 소그룹 모델

소그룹은 한 마디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그 중간 단계에 소그룹이 있다. 소그룹 사역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사역이다.[129] 따라서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그룹 사역이 건강한 가정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 소그룹의 의미

소그룹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통해 세워진다.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관계성'을 중심으로 보면, 소그룹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작용을 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보호와 지지를 받는 관계들이 모인 하나의 관계 공동체이다. 관계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에 대하여 Icenogle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지음 받았고, 공동체 안에서

---

129)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이렇게 할 것인가?*, 18.

살고 성숙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자연스럽고도 단순하게 과시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다"[130]라고 했다. 또한, Hestenes는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인 모임이다"[131]라고 정의하였다.

나.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기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소그룹의 원형들이 나온다. 첫째는 구약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공유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모델이다. 둘째는 신약의 예수와 그의 열두 제자로 구성된 제자훈련의 모델(막 3:13-15)이다. 셋째는 다락방 성령강림을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고 신앙과 삶을 공유하게 된 협력과 회복을 위한 소그룹 모델이다. 넷째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 돌봄과 보살핌을 나누게 되는 융화그룹의 소그룹 모델이다.[132]

이러한 소그룹의 원형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소그룹은 예수님의 '제자훈련 소그룹 모델'이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택하여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듣고 배우게 하는 '멘토링이 있는 소그룹'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책임을 맡기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모든 족속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마 28:18-20).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제자훈련 사역을 계속해나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행 1:8, 2:1-4).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훈련 소그룹 모델은 멘토가 되는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소그룹을 만들어 가르치고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소그룹을 재생산시켜서 소그룹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멘토링하는 '성육신적 제자훈련 소그룹'이었다.

---

130)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20.
131)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19에서 재인용.
132) Cf.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23-28.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제자훈련 소그룹'은 신학적으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기독교적 의미로 볼 때 공동체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133]이다. 성경에서 공동체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정'라는 개념은 혈연 공동체보다는 믿음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의미가 더 강하다. Icenogle은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교회의 소그룹 사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134]

> 공동체는 둘 이상의 존재가 상호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존재하신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인간들이 공동의 삶(common life)을 위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또한 공동의, 친밀하게, 상호 연결된 삶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인격(persons)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독특하고 개별적이며, 다르면서도 공동의 삶을 갖도록 지으셨다. 결국 공동체는 개별적인 인간들이 함께 모여(coming) 하나(unity)가 되는 과정이다(com+ unity).

교회사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소그룹 모델인 동시에 모든 소그룹 운동의 기초가 되는 것은 18세기 웨슬리(John Wesley)의 소그룹 운동이다. 웨슬리의 소그룹은 개인적인 돌봄과 영적훈련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감리교 운동의 핵심 요소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웨슬리는 자신이 영적, 목회적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여러 형태의 목회 방법들을 분별력 있게 차용하여 효과적으로 조합,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속회'(class meeting)를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체계이다.[135] 웨슬리의 소그룹 체계는 당시 영국 교회에 신약

---

133) 문석호, *한국 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59.
134)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6,
135) 웨슬리의 소그룹들의 특성을 그 기능과 역동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속회(class meeting)는 감리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그룹 교육 단위로서 성경의 이상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체화하고 융화시켜서 회심자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신앙인으로 훈련시키는 데 가장 훌륭한 행동 수정 도구로서의 소그룹 모임이었다. ②신도회(society)는 감리교의 신념을 대상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적 통로로서 대인관계의 역동성을 거의 배제하다시피 한 인지적 습득 도구로서의 소그룹 모임이었다. ③신도반(band)은 성별과 나이, 결혼 여부까지도 같은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후 사랑과 거룩함, 순결함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 감정과 태도를 바로 잡는 정서적 방향 재설정을 촉진하는 소그룹 모임이었다. ④선발 신도회(select

시대 기독교의 영적 생명력을 되살려내는데 놀라운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웨슬리의 소그룹 운동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수많은 교회들의 소그룹 사역으로 정착되어 활용되었으며,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를 화두로 하는 이 시대에는 교회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 대체 대가족으로서의 부부 성장 소그룹

(1) 소그룹의 세 가지 형태

교회에서의 소그룹은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소그룹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교회 차원에서 목회적, 사역적 목적에 따라 의도와 계획 하에 만들어진 형태의 소그룹이다. 이러한 소그룹에는 각종 행정위원회, 남녀 선교회, 교회 내 봉사부서들, 대내외 선교그룹 등과 같은 '사역 소그룹'이 있고, 각종 성경공부반이나 제자훈련반과 같은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소그룹'이 있다.

둘째는 교회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소그룹이다. 이러한 소그룹에는 개인 차원에서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지는 '취미 소그룹'이 있고, 대외적인 봉사를 같이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봉사 소그룹'이 있다.

셋째는 필요성에 따라 교회 차원과 개인 차원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태의 소그룹이다. 이러한 소그룹에는 교인 개개인의 신앙과 인격의 성장에 대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속회, 구역회, 셀, 혹은 가정교회 등으로 불리는 '관계중심의 성장 소그룹'이 있고, 문제를 가진 교인이나 가정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치유그룹이나 회복그룹 등으로 불리는 '치유중심의 성장 소그룹'이 있다.

---

society)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본을 보이는 교육 체계 최상부의 그룹에 속하는 훈련 소그룹 모임이었다. ⑤참회 신도회(penitents)는 속회의 행동적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에 의지력이나 절제력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회복 소그룹 모임이었다.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John Wesley's Class Meetings: A Model for Making Disciples)*, 이혜림 역 (서울: 서로사랑, 2011)을 참고.

이상과 같은 소그룹 유형들에 준하여 신혼부부 소그룹의 성격을 규정해본다면, '치료적 전략이 있는 예방사역'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 및 훈련 소그룹'의 성격을 포함하는 '치료중심의 성장 소그룹'이며,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관계 강화사역'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 및 훈련 소그룹'의 성격을 포함하는 '관계중심의 성장 소그룹'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의 성장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신혼부부 소그룹이 신혼부부들에게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상담적 차원의 교육과 훈련이 있는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을 통해 부부관계의 문제나 갈등을 치유해나갈 뿐 아니라, 소그룹의 리더인 멘토 부부와의 부부 멘토링 관계와 소그룹 내의 다른 신혼부부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부부 성장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부부 성장 소그룹

일찍이 Clinebell은 가족들의 성장을 위해 혈육의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 개념의 '성장 그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136] 이는 마치 핵가족의 부부들이 대가족 가정에서 돌봄과 지원 받는 것과 같은 도움을 성장 그룹을 통해 얻게 되는, 한 마디로 '대체 대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137] 이처럼 대가족을 대체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소그룹은 4-5 가정들이 서로 보살피고 후원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문이나 관심, 또는 문제들과 관련된 경험들을 나누며 함께 배움으로써 가정들이 건강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가족들의 잠재력이 개발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성장 소그룹'을 말한다.

이러한 '가족 성장 소그룹'이 그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되려면 소그룹의 리더 혹은 리더 부부가 대가족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신혼부부 소그룹이 목사 부부의 감독(supervising) 하에 소그룹 리더 부부가 소그룹을 인도하고 섬기면서 대

136) Howard J. Clinebell, Jr. *성장그룹 (Growth Groups)*, 이종헌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141.
137) Howard J. Clinebell, Jr. *목회상담신론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박근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7), 290-291.

가족의 부모나 장남 혹은 장녀 부부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신혼부부들에게 '대체 대가족'의 기능을 하는 '부부 성장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신혼부부들이 부부 성장 소그룹의 역학적 영향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와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면서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핵가족화를 넘어서는 '탈 핵가족화'로 인한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의 갈등이나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고 해결해나가면서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본 연구자는 결혼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부부사역은 결혼 적응기인 결혼초기, 특히 신혼기에 시행하는 '부부문제 예방사역'과 '부부관계 강화사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혼기에 부부간에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기 전에 초기에 해결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부문제 예방사역'과 결혼생활 전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부부문제나 갈등의 요소를 미리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부관계 강화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혼부부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문제 예방사역을 '치료적 전략이 있는 예방사역'으로, 부부관계 강화사역을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관계 강화사역'으로 구체화하여 신혼부부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부부 멘토링이 있는 소그룹 환경'에서 시행하고, 멘토 부부를 소그룹 리더로 하는 '신혼부부 소그룹'을 구성하여 건강한 부부관계가 세워지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과제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기존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

을 연구한 결과 네 가지 주요 문제점과 두 가지 실천적 과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가.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본 연구자는 기존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주요 문제점들과 그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점은 기존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이 주로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중심의 심리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지식 전달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설문지 결과를 근거로 하는 심리교육과 함께 커플 연습과 피드백 나눔 과정을 통한 상담훈련을 제공하는 P/E 프로그램, 특히 이러한 심리교육과 상담훈련을 그룹 워크숍을 통해 소그룹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P/E 그룹 프로그램을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핵심 자료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기존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에 사용된 기법들이 어려워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실용적인 면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기주장(표현)과 적극적 경청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연습'과 '갈등해결을 위한 10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P/E 프로그램과 함께 '화자-청자 기법'과 '타임아웃 기술' 그리고 'XYZ 진술'과 같이 사용이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부부대화 및 갈등해결 기법들을 신혼부부 소그룹의 교육상담 및 심리훈련에 활용하였다.

세 번째 문제점은 기존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이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참석한 부부들의 필요와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커플들의 결혼 단계와 가족 구조에 따라 모든 커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척도들과 데이트 중인 커플이나 약혼한 커플 혹은 기혼 커플들(결혼, 재혼 혹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핵심 척도들, 그리고 자녀 유무, 종교적 다양성, 문화적/인종적 문제, 건강문제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P/E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P/E 그룹 프로그램은 맞춤형 온

라인 설문지의 결과에 따라 시행되는 피드백 나눔 과정과 커플 연습 및 그룹 워크숍을 커플들의 필요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켜서 시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혼기나 결혼초기의 부부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소그룹 부부사역 프로그램이다.

네 번째 문제점은 기존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영성이나 신앙적인 영역이 중요시되는 교회 내의 부부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P/E 프로그램의 핵심 척도 중의 하나인 부부의 영성을 측정하는 척도와 그 결과를 근거로 가지는 피드백 나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된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뚜렷한 헌신과 결혼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반영하는 기독교적 기초 위에 세워진 부부사역 프로그램인 Christian PREP[138]의 내용들을 신혼부부 소그룹 나눔에 사용함으로써 부가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부록 4> 참조).

나. 프로그램 개발의 실천적 과제

기존의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을 연구한 결과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 외에도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실천적 과제들이 발견되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과제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문제'와 프로그램을 참여한 뒤의 '사후관리 문제'이다.

(1) 동기부여 문제

예방사역 차원에서만 본다면 결혼 전에 시행하는 혼전상담이나 결혼예비학교와 같은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혼전

138) Christian PREP은 1970년대 중반에 Scott Stanley이 부부관계 예방 및 관계 강화 프로그램인 PREP(The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을 기독교적으로 적용하여 결혼을 계획 중인 커플이나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쓴 기독교인 부부관계 예방 및 관계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기독교적 결혼관인 '하나 됨'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의사소통 기법들을 통한 갈등과 문제 해결도 '하나 됨을 지키기'로 풀이내며, '하나 됨의 회복'으로서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부부들에게 '영적으로 하나 됨'을 심어주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부부사역 프로그램이다. (cf. Online: https://www.prepinc.com/)

커플, 즉 예비부부들은 대부분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자신들의 낭만적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적 왜곡 현상이 심하며, 현실적으로 데이트와 결혼준비로 분주한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 이후에 생기는 부부문제나 갈등과 관련된 일들을 미리 배우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 반면에 결혼 직후부터 결혼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독특하고 새로운 삶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부부의 상호작용 유형을 형성하며 결혼생활에 적응해나가야 할 뿐 아니라 머잖아 맞게 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준비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부부사역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따라서 혼전상담을 통해 결혼을 막아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국 결혼을 하게 되므로 그나마 동기부여가 용이한 신혼기에 부부문제 예방뿐 아니라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 하겠다.[139]

본 연구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서 두 단계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는 결혼 전 혼전상담을 할 때 결혼할 커플들에게 P/E 설문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함께 검토하면서 대화하고 상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결혼 후에 P/E 그룹 프로그램 혹은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미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는다. 두 번째 단계로는 결혼 후 1년 동안 가지게 되는 개별적인 부부 멘토링과 신혼부부 소그룹을 통해 혼전상담 때 약속한 대로 P/E 그룹 프로그램 혹은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2) 사후관리 문제

신혼기나 결혼초기는 새로운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과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결혼 갈등과 해체를 경험하기 쉬운 취약기인 동시에 부부사역 프로그램의 예방적 효과성이 가장 큰 시기이다. 하지만 신혼기나 결혼초기의 부부사역 프로그램이 그 시기의 중요성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김희진은

139) 만일 혼전상담을 통해 결혼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결혼상담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결혼초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요인들을 강화하여 앞으로 나타나는 결혼생활의 문제에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제반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140]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개발된 몇몇 프로그램들[141]도 신혼기나 결혼초기의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실행이 부족할 실정이다. 특히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의 사후관리는 부부 스스로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지속적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의 사후관리 문제를 해소 또는 해결하기 위해 'P/E 결혼 멘토 프로그램'[142]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들이 개별적인 부부 멘토링을 받도록 하고, P/E 프로그램을 '부부 멘토링이 있는 소그룹' 환경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멘토 부부를 소그룹 리더로 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을 통해 부부문제 예방뿐 아니라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예방 및 강화사역 차원의 PREPARE/ENRICH 프로그램

가. 동기부여를 위한 혼전상담: P/E 설문지 사용

---

140) 김희진,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879.

141)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은희·정현숙(1995)가 개발한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우혜민(2001)의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방현주(2002)의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이 있다.

142) 'P/E 결혼 멘토 프로그램'은 상담자(facilitator) 자격을 가진 목사가 P/E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결혼 멘토 매뉴얼'(Marriage Mentor Manual)과 '결혼 멘토 훈련 가이드'(Marriage Mentor Supervisor Training Guide)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교회 내에서 P/E 프로그램을 거친 부부 중에서 멘토 부부(들)을 모집하고 선발하여 훈련한 뒤에 혼전상담과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목사(부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부 멘토링 사역이 잘 진행될 경우 멘토 부부 중에서 목사(부부)를 도와 '부부문제로 고민하는 부부들'(distressed married couples)을 P/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담하고 돕는 사역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멘토 부부가 세워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Life Innovations, Inc., *Marriage Mentor Manual* (Customized Version;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2008) 참조.

교회의 부부사역과 가정사역의 첫 걸음은 '혼전상담'이다. 물론 청년부 사역으로 '결혼예비학교'를 시행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가정사역의 시작은 약혼을 했거나 결혼 날짜를 잡은 예비부부들에 대한 '혼전상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혼전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비부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혼전상담을 결혼 주례부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는 형식적인 의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 전에 반드시 혼전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교회의 규칙 때문에 목사의 주례를 받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하게 되더라도 아직 결혼생활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부족하여 동기부여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혼전상담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결혼 전에 준비할 것들과 신경 쓸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혼전상담을 결혼 후로 미루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혼 전 혼전상담에 대한 동기부여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후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 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P/E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혼전상담(60분-90분 소요)을 4회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한다.

(1) 첫 번째 혼전상담: P/E 프로그램 소개와 P/E 설문지 등록

첫 번째 혼전상담에서 목사(부부)가 결혼할 커플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예비부부에게 개별적인 부부 멘토링을 제공할 평신도 멘토 부부[143]를 소개한다. 그리고 멘토 부부와 함께 결혼할 커플에 대하여 알기 위해 그들이 처음 만났던 일, 그동안 사귀면서 있었던 연애담, 프러포즈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누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조언과 권면을 겸한 대화를 나눈다. 그러는 중에 자연스럽게 목사(부부)는 결혼할 커플에게 P/E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미 P/E 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멘토 부부가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권면하게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P/E 온라인 설문지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두 번째 혼전상담을 받으러 오기

143) 혼전상담을 위한 부부 멘토링은 한 쌍의 멘토 부부가 한 쌍의 혼전 커플을 멘토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회에 훈련된 평신도 멘토 부부가 없을 경우에는 목사(부부)가 멘토 부부의 역할까지 감당하면 될 것이다.

전에 남녀가 각각 개별적으로 온라인 선상에서 설문지를 마치도록 권유한다. 멘토 부부는 첫 번째 혼전상담 후에 결혼할 예비부부와 연락하면서 P/E 온라인 설문지를 두 번째 혼전상담을 받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한다.

(2) 두 번째 혼전상담: P/E 설문지 결과에 대한 검토와 후속 질문

두 번째 혼전상담에서는 목사(부부)가 멘토 부부와 함께 결혼할 커플을 만나서 P/E 온라인 설문지 결과를 함께 검토하며 상담하는 시간을 갖는다.[144] 이 시간은 결혼할 커플에게 결혼 후에 P/E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설문지 결과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형태로 하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주로 나눈다. 동시에 'P/E 결혼 멘토 프로그램'의 '약혼한 커플들을 위한 후속 질문들'(Follow-Up Questions for Engaged Couples)[145]을 사용하여 결혼과 관련된 열린 질문들(open-ended questions)을 통해 커플 남녀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결혼에 대한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혼전상담을 마치기 전에 결혼할 커플에게 결혼 후에 P/E 그룹 프로그램 혹은 개별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약속받는다. P/E 설문지 결과에 따라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이 판단될 경우 지체하지 않고 가족들과 상의하여 P/E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하고 결혼하도록 하거나 상담 전문가 혹은 상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144) 설문지 결과에 따라 멘토 부부를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음.

145) '약혼한 커플들을 위한 후속질문들'은 결혼할 커플이 시행한 P/E 설문지 결과 중에서 2-3의 강점 영역과 2-3개의 성장필요 영역을 균형 있게 선택하여 결혼할 커플의 P/E 설문지 반응들을 점검한 뒤에 결혼할 커플과 함께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가지면서 해당되는 영역들에 대한 후속질문들을 선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P/E 프로그램의 핵심 척도 및 맞춤형 척도들과 관련된 총 20개 영역에 대한 후속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갈등해결,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 재정 관리, 여가 활동, 성적 기대, 가족 및 친구, 관계 역할, 영성/종교적 신앙, 종교 간/교회 간 문제, 결혼 기대, 부모 역할 기대, 부모 되기, 자녀 양육 및 부모 역할, 세대 간 문제, 의붓 부모 역할 기대, 동거 문제, 이전의 결혼 관계, 건강 문제, 문화적/인종적 문제. 샘플로 번역하여 수록한 '의사소통'에 대한 후속질문들은 <부록 3>를 참조하기 바람. 또한 Life Innovations, Inc., *Follow-Up Questions for Engaged Couples* (Online Version;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2009)을 참조.

(3) 세 번째 혼전상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세 번째 혼전상담은 목사(부부)가 결혼할 예비부부에게 결혼에 대한 성경의 이해와 영적이고 신앙적 의미를 가르치는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에는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결혼이 두 남녀만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두 남녀의 연합이라는 것과 결혼을 통해 부부가 동등성을 가진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 요소인 '친밀한 사랑'과 '자발적 헌신'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결혼할 커플에게 '가정 사명서'의 샘플을 주고 네 번째 혼전상담 때까지 스스로 자신만의 '가정 사명서'를 남녀가 각각 작성해오도록 숙제를 내준다. 세 번째 혼전상담은 굳이 멘토 부부가 함께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목사의 판단에 따라 멘토 부부를 참석시킬 수도 있다.

(4) 네 번째 혼전상담: 결혼식에 대한 준비 및 점검

네 번째 혼전상담은 결혼식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혼식 준비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의를 하고 점검하면서 결혼할 커플이 작성해온 각각의 '가정 사명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 세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적, 영적인 권면의 말씀들을 주고 결혼할 커플을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목사의 판단에 따라 양가 부모들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멘토 부부를 참석시킬 수도 있다.

나. 부부문제 예방을 위한 P/E 그룹 프로그램

결혼 전에 혼전상담을 받은 신혼부부들뿐 아니라 이미 결혼한 뒤에 교회에 등록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P/E 그룹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물론 부득이하여 혼전상담 시 혹은 교회등록 후에 P/E 설문지를 하지 못한 신혼부부 커플이라 할지라도 P/E 그룹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원할 경우 프로그램 시작 직전이나 프로그램 첫 시간에 참석한 후에 P/E 설문지를 시행해도 무방하다.

(1) P/E 소그룹 구성

P/E 그룹 프로그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4-5커플의 신혼부부들과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하는 40대 초반이나 중반의 멘토 부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6] 교회의 규모에 따라 한 해에 결혼한 신혼부부나 등록한 신혼부부가 많을 경우에는 4-5커플씩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한 커플의 멘토 부부를 그룹 리더로 세워서 강의는 함께 듣고 나눔의 시간은 그룹별로 시행하도록 한다. 만일 교회의 여건에 따라 한 해에 결혼한 신혼부부나 등록한 신혼부부 4-5커플이 되지 않을 경우 2-3년에 한번 시행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여건조차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P/E 개별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한다.

(2) P/E 그룹 프로그램 시행 시기

P/E 그룹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기는 교회의 목회 스케줄과 사역 스케줄에 따라 정하면 된다. 하지만, 상반기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매년 하반기 9월이나 10월에 P/E 그룹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P/E 그룹 프로그램을 2년에 한번 시행할 경우에는 굳이 하반기에 시행할 필요 없이 교회의 목회 스케줄과 사역 스케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이다.

(3) P/E 그룹 프로그램 진행 방식

P/E 그룹 프로그램의 진행은 교회의 상황과 신혼부부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시행한다.[147]

첫째는 교회 안에서 5-8회기로 매주 시행하는 '주중 혹은 주말 회기'(weekday or weekend sessions)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교회 안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

146) P/E 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신혼부부 커플들끼리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감안할 때 두 커플씩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커플의 신혼부부들과 한 커플의 멘토 부부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멘토 부부가 신혼부부 한 커플씩과 돌아가며 짝을 맺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된다.

147) 구체적인 10회기 P/E 그룹 프로그램 워크숍 진행 지침은 <부록 2>을 참조 바람.

진행을 위한 준비에 편리함이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것이므로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빌어지는 상황에 따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교회 밖에서 1박 2일로 시행하는 '주말 수련회'(weekend retreat)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혼부부들이 일상생활을 떠나서 함께 먹고 자면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므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신혼부부 중에 여건이 허락지 않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셋째는 교회 안에서 주말이나 휴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행하는 '하루 워크숍'(1-day workshop) 방식이다. 이 방식은 위의 두 가지 방식의 장점들을 유지하는 동시에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에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신혼부부들의 필요와 요구가 어느 정도 공통적이어서 5-6회기 정도 분량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

P/E 개별 프로그램은 교회의 사정이나 신혼부부들의 여건 혹은 목사의 판단에 따라 그룹 프로그램보다 개별 프로그램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한다. 여기서 교회의 사정이라 함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 한 해에 결혼한 신혼부부 커플이나 등록한 신혼부부 커플이 4-5커플이 되지 않아 그룹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여건이라 함은 결혼식을 한 뒤에 P/E 그룹 프로그램에 참석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P/E 그룹 프로그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그리고 목사의 판단이라 함은 P/E 설문지 결과나 그 밖의 에 따라 그룹 프로그램보다는 상담을 포함하는 개별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P/E 개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의 하나로 시행한다. 첫째는 교

회나 가정 혹은 기타 장소에서 5-8회기로 매주 시행하는 '주중 혹은 주말 회기'(weekday or weekend sessions) 방식이고, 둘째는 교회나 가정 혹은 기타 장소에서 주말이나 휴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행하는 '하루 워크숍'(1-day workshop) 방식이다. 만일 교회에 훈련받은 평신도 상담자나 평신도 멘토 부부가 있을 경우 목사의 감독(supervision) 하에 평신도 상담자나 평신도 멘토 부부가 P/E 개별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도 있다.

4. 사후관리를 위한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신혼부부들이 P/E 그룹 프로그램을 참석한 후에 계속되는 사후관리를 위해 혼전상담 기간과 결혼 후 1년 동안의 '부부 멘토링 사역'과 멘토 부부를 소그룹 리더로 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을 서로 연결시킨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을 시행한다.

가.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 멘토링

혼전상담에서 평신도 멘토 부부를 소개받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했던 신혼부부는 결혼 후 1년 동안 같은 멘토 부부를 통해 개별적인 부부 멘토링을 받으면서 약속했던 P/E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여건에 따라 P/E 개별 프로그램을 받는다.

(1) 독서 요법(bibliotherapy)을 통한 부부 멘토링

'P/E 결혼 멘토 프로그램'에서는 결혼 후 2개월, 6개월, 그리고 10개월 차에 부부 멘토링을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반드시 이 제안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혼부부를 결혼 후 1년 안에 3-4차례 만나 부부 멘토링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건강한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필독서들[148] 중에서 3-4권을 함께 상의

148) 건강한 부부관계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추천 필독서로는 ① John Gray,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김경숙 역 (서울: 도시출판 친구미디어, 1993), ② Gary D. Chapman, *5가지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하여 선택한 뒤에 3-4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나누며 대화하도록 한다. 독서 요법을 통한 부부 멘토링은 선별된 책들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멘토 부부와 신혼부부 모두가 안전하게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신앙적이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상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커플 검사(Couple Checkup)를 통한 부부 멘토링

'P/E 결혼 멘토 프로그램'은 신혼부부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멘토 부부의 지도 하에 '커플 검사'(Couple Checkup)[149]을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커플 검사는 '이상주의적 왜곡'이 수정된 더 정확한 커플 평가와 P/E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부부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부부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물론 결혼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멘토 부부가 필요에 따라 신혼부부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다과를 나누며 부부 멘토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가능하면 매년 결혼기념일에 정기적으로 커플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면하고 부부 멘토링의 기회로 삼는다.

(3) 멘토 부부 교육 및 돌봄

평신도 멘토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을 적절하게 돕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 사역에 대한 교육과 평신도 상담 훈련이 필요하며, 목회자로부터 지속적인 양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멘토 부부들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배운 것을 나누는 처지이며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며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Languages), 장동숙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③ Gary D. Chapman, and Jennifer M. Thomas, *5가지 사과의 언어 (The Five Languages of Apology)*,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④ Willard F. Harley, Jr, *베스트 부부 (His Needs Her Needs)*, 김희선 역 (서울: 나침반社, 1998), ⑤ Emerson Eggerichs, *부부를 세워가는 대화의 기술 (Cracking the Communication Code)*, 최광수 역 (서울: 죠이선교회, 2009), ⑥ Les Parrott III and Leslie Parrott, *결혼: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사랑하라 (Saving Your Marriage Before It Starts)*, 정동섭 역, 재판 (서울: 요단출판사, 1999) 등이 있다. 필독서들은 혼전상담시 결혼할 커플에게 미리 결혼선물로 주면 좋을 것이다.

149) https://www.couplecheckup.com/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 멘토 부부들 또한 이 사역을 통해 자신들의 부부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되며 풍성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150]

나.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신혼부부 소그룹은 신혼부부들의 시기적 특성에 따라 교회의 기존 소그룹 체계와 별개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부부 멘토링이 있는 소그룹'인 동시에 신혼부부들에게 대체 대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부부 성장 소그룹'이다.[151]

(1) 신혼부부 소그룹 구성

신혼부부 소그룹은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하는 멘토 부부를 포함해서 4-5커플의 신혼부부들이 서로 돌보고 도우면서 그들의 삶의 질문이나 관심, 또는 문제들과 관련된 경험들을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그룹이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은 P/E 그룹 프로그램 참석 전후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신혼부부 소그룹에 참여하게 된다.

첫째,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결혼 전에 P/E 설문지를 사용하는 혼전상담을 받았던 커플들은 결혼 직후에 1년 동안 부부 멘토링을 받으면서 신혼부부 소그룹에 속하도록 하며, 동시에 P/E 그룹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한다.

둘째, 신혼부부 기간(결혼 후 1년 진후)에 교회에 등록한 커플들은 먼저 평신도 멘토 부부를 소개해주어서 멘토 부부의 지도하에 P/E 설문지를 시행하고 P/E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신혼부부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가능하면 부부 멘토링을 받거나 소개받은 멘토 부부가 리더 부부로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에 속

150) 본 논문에서는 부부 멘토링 사역보다는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멘토 부부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151) 부부 성장 소그룹으로서의 신혼부부 소그룹은 목사 부부의 감독(supervising) 하에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하는 평신도 멘토 부부가 소그룹을 인도하고 섬기며 멘토링을 해줌으로써 핵가족 형태의 신혼부부들이 대가족 가정에서 돌봄과 지원 받는 것과 같은 도움을 받게 되는 소그룹이다.

하는 것이 좋다.

셋째,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일단 P/E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 프로그램에서 소그룹을 섬겼던 멘토 부부를 리더 부부로 하는 새로운 신혼부부 소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교회 안에 P/E 결혼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된 헌신적인 평신도 멘토 부부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야 하고, 청년부 사역과 젊은 부부 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 신혼부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부부관계가 세워지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신혼부부 소그룹의 특성

30대 전후의 신혼부부들에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들이 나타난다.

첫째, 신혼부부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놀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어서 기존의 소그룹에 속하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들이 결혼한 후에 신앙의 침체기에 들어가거나 한동안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회 내의 신혼부부 소그룹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신혼부부들은 초보 신랑, 초보 신부로서 부부싸움을 많이 할 시기이다. 이때 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나 통과한 멘토 부부나 동료 신혼부부들의 동병상련의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된다. 따라서 신혼부부 소그룹은 안전하게 부부 갈등을 노출시킬 수 있고 서로의 돌봄과 권면을 통해 해결의 돌파구 내지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부부회복 소그룹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가정의 사회적 성장에 대한 욕구와 함께 영적 성장의 욕구가 강할 때이다. 따라서 신혼부부 소그룹은 멘토 부부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영적 성장을 통해 사회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넷째, 신혼부부들은 소통의 욕구가 매우 강하다. 특히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한

정보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데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이다. 따라서 신혼부부 소그룹은 신혼부부들 간의 열린 소통의 장이 되는 동시에 그들의 필요에 맞춘 전문가나 경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단기 교육상담의 장이 되는 것이 좋다.

(3)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의 방법론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소그룹에 최대 4년까지 속하게 한 뒤에 자연스럽게 교회의 기존 소그룹[152]으로 연결하여 정착시키도록 하되 적용에 유연성을 가지도록 한다.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소그룹에 속해있는 동안 소그룹 리더인 멘토 부부의 지도하에 P/E 프로그램을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 안에 마치도록 한다.
-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은 교회 사정에 따라 매주, 격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수 있으나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일 년에 10번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한다.
- 교회의 기존 소그룹의 모임이 매주나 격주로 모이는 경우 신혼부부 소그룹도 기존 소그룹과 같은 형태의 모임을 가지면서 신혼부부들에게 맞도록 나눔과 적용을 시행하도록 하고,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일 년에 10번은 신혼부부들에게 맞는 맞춤형 소그룹 모임을 가지도록 한다.[153]
- 일 년에 한 차례, 7월과 8월 중에 신혼부부 소그룹들에 속한 신혼부부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자체 강사 혹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들을 포함하는 수양회 형식의 '신혼부부 소그룹 연합모임'을 시행한다. 이때 기존 소그룹으로 올라간 신혼부부들을 초청하여 '신혼부

152) 교회에 젊은 부부 소그룹이 따로 구성되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이 포함된 소그룹이나 젊은 부부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소그룹 리더가 있는 소그룹에 연결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53)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의 주제로는 "서로 사랑하라"(요일 4:11)는 말씀과 "피차에 복종하라"(엡 5:21)는 말씀에 근거한 '친밀한 사랑'과 '자발적 헌신'에 관련된 주제들이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부부관계 향상에 관한 책을 선정하여 그 책의 주제들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의 주제와 나눔 가이드 샘플'은 <부록 4>를 참조 바람.)

부 소그룹 재회 모임'(reunion)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심김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마친 신혼부부 중에서 평신도 멘토 부부들을 발굴하고 훈련하여 계속해서 신혼부부 소그룹 리더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일회성이나 단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소그룹에는 소그룹 리더인 멘토 부부와 함께 그들을 돕는 헬퍼 부부를 두어서 더 깊은 나눔과 돌봄을 위해 소그룹을 더 작은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눌 때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헬퍼 부부는 멘토 부부의 추천으로 P/E 결혼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은 뒤 멘토 부부로 부부 멘토링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신혼부부 소그룹에 속한 신혼부부 중에 심각한 갈등이나 결혼위기를 만나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언제라도 멘토 부부나 담임목사에게 알려서 교회 내 가정사역 담당목회자나 평신도 상담자로부터 일대일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받도록 한다. 교회 내에 가정사역 담당목회자나 평신도 상담자가 없는 경우나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결혼상담 전문가나 결혼상담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 신혼부부 소그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회의 가정사역부와 소그룹 사역부, 그리고 청년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교회에 가정사역부가 있다면 가정사역부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가정사역부가 없다면 소그룹 사역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의 모든 부분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의 과정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통해 신혼부부들을 더욱 잘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3 절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적용 및 평가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의 기간 동안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인 P/E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

부부 소그룹을 통해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년 내지 4년이 소요되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전체를 적용해보고 평가하기에 시간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자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부부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핵심 자료인 P/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적 적용 및 평가를 시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자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뉴저지에 소재한 B 연합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에서 표본 커플들을 선정하여 P/E 개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사전준비 차원의 실험적 적용 및 평가를 하였다.

둘째, 뉴저지에 소재한 G 연합감리교회를 표본 교회로 선정하여 젊은 부부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P/E 그룹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실험적 적용 및 평가를 하였고, 이어서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셋째,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에 속한 목사 부부들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분석, 평가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넷째,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에서 매년 시행한 '연합회 평신도 교육'에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단계적으로 교회들에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1. P/E 개별 프로그램의 사전준비 차원의 적용

가. 결혼 상담자 훈련 워크숍 참가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먼저 뉴저지 지역에 있는 한인 가정사역 전문기관인 '패밀리터치'(www.familytouchusa.org)에서 매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결혼 상담자 훈련 워크숍'(Certification Workshop: PREPARE/ENRICH)에 참석하여 P/E 프로그램의 상담자 자격증(facilitator's licence)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먼저 아내와 함께 온라인 P/E 설문지 검사를 받고 자체적인 피드백 나눔을 가졌다.[154]

나. 표본 커플들에 대한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

사전준비 차원의 실험적 적용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B 연합감리교회의 신혼부부 소그룹(셀)[155]에 속한 부부 중에서 네 쌍의 표본 커플들(K 부부, J 부부, L 부부, P 부부)을 선정하여 P/E 개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표본 커플 중에서 P/E 설문지 검사 결과 '활기찬 커플 유형'으로 평가된 L 부부는 피드백 나눔 과정을 시행한 뒤 2주 후에 아내가 출산을 한 관계로 P/E 설문지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1년 뒤에 '커플 검사'(Couple Checkup)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부들에 대한 P/E 설문지 사전 검사와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가진 뒤에 시행한 사후 재검사 결과, K 부부는 '조화로운 커플 유형'에서 '활기찬 커플 유형'으로 한 단계 상승되었고, J 부부는 '전통적인 커플 유형'에서 '조화로운 커플 유형'으로 한 단계 상승되었으며, P 부부는 '갈등 있는 커플 유형'에서 '조화로운 커플 유형'으로 두 단계 상승되었다.[156] 이상과 같은 결과는 세 쌍의 신혼부부들이 P/E 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P/E 프로그램의 부부 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에 대한 효과성을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세 커플들의 핵심 척도들에 대한 P/E 설문지 사전 검사와 사후 재검사에 대한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은 <표 6>과 같다.[157]

---

154) 본 연구자 부부의 P/E 설문지 검사 결과 '활기찬 커플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관계강점영역'(PCA=80~100%)은 '의사소통,' '성관계,' '가족 및 친구,' '역할 및 책임,' '종교적 신앙,' '자녀 및 자녀양육,' '용서'에 대한 항목들이고, '준 관계강점영역'(PCA=50~70%)은 '여가활동,' '재정관리'에 대한 항목들이며, '준 성장필요영역'(PCA=30~40%)은 '갈등해결,' '파트너 스타일 & 습관'에 대한 항목들이다. 그리고 성장필요영역(PCA=0~20%)은 없다.

155)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한 2013년 하반기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B 연합감리교회의 청년부 담당목사와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여 2014년에 신혼부부 소그룹(셀)을 구성하였다. 이미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한 커플들이 기존 소그룹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겉돌면서 방황하고 한동안 교회에도 잘 출석하지 않기나 심지어 아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기존의 소그룹을 탈퇴하고 다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거나 청년부 소그룹의 간사 부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 담당목사와의 상의하고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청년부에 속해 있는 신혼부부들과 기존 소그룹에 속해 있던 신혼부부들을 모아서 40대 초반의 멘토 부부를 소그룹 리더로 하는 실험적인 신혼부부 소그룹(셀)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156)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가장 큰 부부관계 향상이 이루어진 P 부부에 대해서는 이어서 나오는 "다. 심층적 피드백 나눔과 상담 사례"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57) 세 커플의 9가지 핵심 척도들의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에 대한 그래

<표 6> 핵심 척도들에 대한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 - I

핵심 척도 영역	P/E 설문지	K 부부	J 부부	P 부부	평균	상승률
의사소통	사전 검사	60	50	20	43.3	38.56%
	사후 재검사	70	60	50	60	
갈등해결	사전 검사	40	30	10	26.6	75.18%
	사후 재검사	50	50	40	46.6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	사전 검사	30	40	20	30	55.33%
	사후 재검사	50	50	40	46.6	
재정관리	사전 검사	50	40	60	50	13.2%
	사후 재검사	60	50	60	56.6	
여가활동	사전 검사	40	30	40	36.6	18.3%
	사후 재검사	40	40	50	43.3	
성관계	사전 검사	80	60	50	63.3	10.58%
	사후 재검사	80	70	60	70	
가족 및 친구	사전 검사	70	40	40	50	13.2%
	사후 재검사	70	50	50	56.6	
역할 및 책임	사전 검사	40	40	30	36.6	45.62%
	사후 재검사	60	50	50	53.3	
영성(종교적 신앙)	사전 검사	90	80	50	73.3	9.14%
	사후 재검사	90	80	70	80	

이상의 P/E 프로그램의 9가지 핵심 척도 중에 부부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에 대한 효과성 검증에 적합한 대표적인 척도는 부부간의 상호존중적인 대화 여부를 보여주는 '의사소통'과 부부간의 의견 차이나 논쟁 등을 통한 갈등해결의 기술 여부를 보여주는 '갈등해결'에 대한 척도이고, 부차적인 척도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의 성격 특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과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의사 결정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는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표본 커플들에 대한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P/E 설문지 검사 결과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한 PCA 평균 상승률이 38.56퍼센트과 75.18퍼센트로 나왔

프는 <부록 5>을 참조 바람.

고,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PCA 평균 상승률이 55.33퍼센트과 45.62퍼센트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P/E 프로그램이 신혼부부들의 부부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갈등해결'에 대한 PCA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P/E 프로그램이 부부 갈등에 대한 '치료적 전략이 있는 예방사역'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처럼 P/E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사전준비 차원의 실험적 적용의 결과가 유의미하고 긍정적이긴 하지만, 표본 커플의 숫자가 네 쌍이지만, 그중에서도 사후 재검사를 시행한 커플이 세 쌍에 불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성 분석과 평가의 보편성과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158]

다. 심층적 피드백 나눔과 상담 사례

P 부부를 상담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자가 혼전상담과 결혼주례를 한 부부인 동시에 P/E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상담을 포함하는 좀 더 심층적인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가짐으로써 P/E 설문지 사후 재검사에서 '갈등 있는 커플 유형'에서 '조

158) 본 연구의 경우처럼 표집수가 적은 실험 장면에서는 처치효과가 매우 크지 않는 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확률은 현저히 낮다(e.g., De Winter, 2013). 이런 이유로 본 논문의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참고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시행하여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의 향상이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모든 척도 영역에 대해서 재검사 시 점수의 상승 경향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척도 영역($p<.05$)은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과 '역할 및 책임' 두 가지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소통'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16.67(표준오차=6.67, t=2.50, df=2, p=.13), '갈등해결'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20.00(표준오차=5.77, t=3.46, df=2, p=.07),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16.67(표준오차=3.33, t=5.00, df=2, p=.04), '역할 및 책임'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16.67(표준오차=3.33, t=5.00, df=2, p=.04), '재정관리'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6.67(표준오차=3.33, t=2.00, df=2, p=.18), '여가활동'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6.67(표준오차=3.33, t=2.00, df=2, p=.18), '성관계'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6.67(표준오차=3.33, t=2.00, df=2, p=.18), '가족 및 친구'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6.67(표준오차=3.33, t=2.00, df=2, p=.18), 마지막으로 '영성(종교적 신앙)'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6.67(표준오차=6.67, t=1.00, df=2, p=.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집의 수가 세 커플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De Winter, J. C. F., "Using the Student's T-test with Extremely Small Sample Size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8 (October 2013), 2-13을 참조 (Online: http://pareonline.net/pdf/v18n10.pdf/).

화로운 커플 유형'로 두 단계 상승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1) P 부부에 대한 프로파일

P 부부는 남편이 41세, 아내가 30세로서, 남편은 본인이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B 연합감리교회 청년부를 오래 다녔으나 결혼을 하지 못하고 마흔 살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지인의 소개로 미국에 유학 온 11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 2010년 초에 결혼한 부부로 본 연구자가 혼전상담과 결혼주례를 하였다.

아내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본 연구자가 세례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받도록 한 뒤에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을 받고 결혼주례를 해준 커플이다. 하지만, 결혼 후에 아내가 신앙에 대한 경험과 열정이 부족하고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관계로 소그룹(셀)에 참석하지 않고 겨우 주일예배 정도만 참석하다가 오래지 않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이 급격히 약해지고 주일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청년부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터라 청년부에 속한 청년들의 권면으로 아내와 나이대가 비슷한 청년부 예배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다. P 부부는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청년들과 잘 어울리면서 잘 정착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청년부 간사를 맡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회복된 경우이다.

(2) P 부부에 대한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

P 부부는 이미 결혼한 지가 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신들이 더는 신혼부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교회의 신혼부부 소그룹(셀)에도 참석하지 않고 기존 소그룹(셀)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가 혼전상담과 결혼주례를 했던 커플이고 어느 정도의 부부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개인적으로 몇 차례 진지하게 권면한 결과 P/E 개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P/E 설문지 검사에 거부반응도 있고 매우 미온적이었으나 본 연구자의 권면과 그들보다 먼저 P/E 개별 프로그램을 시행한 신혼

부부들의 설득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P 부부에 대한 사전 검사의 결과는 '갈등 있는 커플 유형'으로 평가되었고, 피드백 나눔 과정은 남편이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관계로 주말 토요일 저녁에 네 번에 걸쳐 시행하였다. 아내는 성격적으로 성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세례교육을 받을 때에도 열심히 하였고, 마찬가지로 P/E 피드백 나눔 과정에서도 남편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반면에 남편은 성격적으로 느긋하고 성실하지 못한 면이 있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별로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없었다. 또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과 열심은 있으나 기본적인 성경지식이나 신앙경험이 없었다.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는 P/E 피드백 나눔 과정 중에 특별히 성경구절이 있는 '커플 워크북'을 선택하여 부부관계와 관련된 신앙적이고 영적인 성경공부를 겸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피드백 나눔을 가지는 과정에서 P 부부의 부부문제와 갈등 저변에 남편이 오랜 신앙인이지만 아내에게 신앙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부부간의 나이차이가 많은데다가 과묵한 성격을 가진 남편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아내에게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성격차이나 생활 스타일 및 태도 그리고 가사일과 관련된 역할 및 책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부문제가 발생하지만 남편은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결과 아내와의 의사소통도 점점 더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P 부부의 관계회복과 증진을 위해 부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기법과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커플연습을 시키면서 상담교육적인 피드백 나눔 과정을 시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P/E 개별 프로그램과 성경구절이 있는 커플 워크북을 가지고 심층적 상담을 포함하는 피드백 나눔 과정을 시행한 후 4주 뒤에 시행한 P/E 설문지 재검사에서 P 부부는 두 단계 상승된 '조화로운 커플 유형'로 평가되었다.

(3) 상담 사례에 대한 평가

이미 앞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P/E 프로그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적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고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도 낮다. 이는 기독교인 부부가 성경에 근거한 '친밀한 사랑'과 '자발적 헌신'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한 몸'된 부부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려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노력이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P/E 개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행한 P 부부의 심층적 상담을 포함하는 피드백 나눔 과정의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담 사례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에 의지하는 영적인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기독교인 부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상담 교육적 시도와 노력은 건강한 기독교인 부부관계의 놀라운 회복과 증진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상담자의 지식이나 열정, 그리고 피상담자 부부의 의지와 노력을 초월하는 보혜사, 곧 상담자되시는 성령(요. 14:26, 16:7)의 도우심을 통해 주어지는 건강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2. P/E 그룹 프로그램의 실험적 적용 및 평가

본 연구자는 2014년 하반기에 있었던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서 8쌍의 목사부부들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뉴저지에 소재한 G 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인 C 목사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 교회의 신혼부부와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실험적 적용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G 연합감리교회는 주일 출석이 120명 정도 되는 28년 된 교회로서 담임목사의 연령대는 40대 말이며, 최근 교회에 신혼부부들이 몇 가정 들어오면서 잘 정착되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40대 초반의 전도사 부부가 신혼부부들의 지도 교역자로 사역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C 목사와의 계속적인 상의와 협력를 통하여 G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실험적 적용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행하였다.

가. 담임목사 부부에 대한 P/E 개별 프로그램 시행

먼저 담임목사인 C 부부가 P/E 설문지 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활기 없는 커플 유형'[159]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C 목사 부부는 이러한 검사 결과로 인해 다소 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었으나 본인들의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열망과 G 연합감리교회의 부부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피드백 나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검사 결과와 피드백 나눔 과정에서 C 목사 부부의 갈등의 핵심에 홀로되신 C 목사의 어머니와 C 목사 사모의 고부간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집중적인 다루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C 목사 부부와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가진 뒤 4주 후에 시행한 P/E 설문지 사후 재검사에서는 두 단계 상승한 '조화로운 커플 유형'[160]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특별히 '가족 및 친구'가 준 성장필요영역에서 관계강점영역으로 상승했고, '세대간 문제'가 성장필요영역에서 준 성장필요영역으로 상승했다. 그 외에도 부부문제 예방과 관계 강화의 효과성 척도가 되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그리고 '파트너 스타일 & 습관'에서 긍정적인 증진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역할 및 책임'은 성장필요영역에서 관계강점영역으로 상승했다.

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P/E 그룹 프로그램 시행

C 목사 부부에 대한 피드백 나눔 과정을 마친 뒤, C 목사의 지도하에 예비 멘토 부부인 40대 초반의 전도사 부부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네 쌍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P/E 그룹 프로그램의 실험적 적용을 G 연합감리교회에서 시행하였

---

159) C 목사 부부의 사전 검사 결과 '관계강점영역'(PCA=80~100%)은 '종교적 신앙'뿐이었고, '준 관계강점영역'(PCA=50~70%)은 없었으며, '준 성장필요영역'(PCA=30~40%)은 '가족 및 친구,' '성관계,' '세대간 문제'였고, 성장필요영역(PCA=0~20%)은 '갈등해결,' '여가활동,' '역할 및 책임,' '용서,' '의사소통,' '재정관리,' 그리고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이었다.

160) C 목사 부부의 사후 재검사 결과 '관계강점영역'(PCA=80~100%)은 '종교적 신앙,' '가족 및 친구,' '역할 및 책임'이었고, '준 관계강점영역'(PCA=50~70%)은 '용서'였으며, '준 성장필요영역'(PCA=30~40%)은 '의사소통,' '파트너 스타일 & 습관,' '재정관리,' '성관계,' '세대간 문제'였고, 성장필요영역(PCA=0~20%)은 '갈등해결,' '여가활동'이었다.

다. P/E 그룹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참여하는 신혼부부들의 요청에 따라 주말 '하루 워크숍'(1-day workshop)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P/E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의 주요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표 7>와 같다.

<표 7> P/E 그룹 프로그램 참여 부부들의 인적 사항

항목(단위)	성별	J 전도사부부	K 부부	P 부부	L 부부	S 부부
연령 범위(세)	남자	41-45	31-35	31-35	26-30	26-30
	여자	41-45	31-35	31-35	26-30	26-30
결혼기간 (연수)	남자	11-20	1-5	1-5	1-5	1-5
	여자	11-20	1-5	1-5	1-5	1-5
최종 학력	남자	대학원	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
	여자	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
직업	남자	성직자	접객업	재정전문가	학생	학생
	여자	재정전문가	소매업	교육	전문인	무직
직책	남자	전도사	경영진	전문가	학생	학생
	여자	매니저	경영진	전문가	반주자	무직
출생 순서	남자	둘째	첫째	셋째	둘째	첫째
	여자	넷째	첫째	셋째	둘째	둘째
자녀수	남자	둘	하나	하나	하나	없음
	여자	둘	하나	하나	하나	없음

P/E 그룹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미리 참석 부부들의 이메일을 받아서 온라인 P/E 설문지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하루 워크숍'에서는 '피드백 나눔'과 '커플 연습' 및 '그룹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P/E 그룹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 참석한 부부들로부터 'P/E 그룹 프로그램 커플 평가서'[161]를 받았다. 커플 평가서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커플 보고서'가 프로그램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드백 나눔 과정 중에 시행하는 '커플 토의'가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룹 토의'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에 대한 핵심 척도 중에 가장 중요한 척도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한 향상에도 즉각적인 효과

161) 'P/E 그룹 프로그램 커플 평가서'는 <부록 6>을 참조 바람.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E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평가들은 P/E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P/E 그룹 프로그램 커플 평가서'의 설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P/E 그룹 프로그램 커플 평가서 설문 결과

질문	전혀	조금	이는 정도	만족 스럽게	대단히
커플 보고서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5	5
커플 토의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1	3	6
그룹 토의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2	5	3
당신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낍니까?			1	4	5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유용했습니까?				3	7
질문	안 좋았다	괜찮 았다	좋았다	매우 좋았다	탁월 했다
프로그램의 강사(그룹 리더)를 평가한다면?				2	8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면?			1	2	7

다. P/E 설문지 사전 검사와 사후 재검사 결과 및 분석

P/E 그룹 프로그램을 마친 뒤 P/E 그룹 프로그램 전에 시행했던 P/E 설문지를 가지고 사후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사후 재검사는 사전 검사에서 '활기찬 커플 유형'으로 평가된 J 전도사 부부(에비 맨토 부부)와 S 부부를 제외한 세 커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사후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K 부부와 P 부부는 '갈등 있는 커플 유형'에서 '전통적인 커플 유형'으로 한 단계 상승되었으며, L 부부는 '전통적인 커플 유형'에서 '활기찬 커플 유형'으로 두 단계 상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 쌍의 신혼부부들이 P/E 그룹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많은 증진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P/E 그룹 프로그램의 부부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에 대한 효과성을 구체적

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세 쌍의 신혼부부들의 핵심 척도들에 대한 P/E 설문지 사전 검사와 사후 재검사에 대한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은 <표 9>과 같다.[162]

<표 9> 핵심 척도들에 대한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 - II

핵심 척도 영역	P/E 설문지	K 부부	P 부부	L 부부	평균	상승률
의사소통	사전 검사	20	20	50	30	88.66%
	사후 재검사	50	30	90	56.6	
갈등해결	사전 검사	20	10	40	23.3	71.67%
	사후 재검사	30	20	70	40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	사전 검사	10	40	30	26.6	62.78%
	사후 재검사	20	40	70	43.3	
재정관리	사전 검사	20	30	70	40	25%
	사후 재검사	20	40	90	50	
여가활동	사전 검사	40	50	40	43.3	46.18%
	사후 재검사	50	50	90	63.3	
성관계	사전 검사	30	30	20	26.6	75.18%
	사후 재검사	40	30	70	46.6	
가족 및 친구	사전 검사	60	80	90	76.6	8.74%
	사후 재검사	70	80	100	83.3	
역할 및 책임	사전 검사	40	70	30	46.6	35.83%
	사후 재검사	50	50	90	63.3	
영성(종교적 신앙)	사전 검사	100	80	70	83.3	15.9%
	사후 재검사	100	90	100	96.6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상의 P/E 프로그램의 9가지 핵심 척도 중에 부부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에 대한 효과성 검증에 적합한 대표적인 척도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한 척도이고, 부차적인 척도는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한 PCA 평균 상승

162) C 목사 부부를 포함한 5 커플의 9가지 핵심 척도들의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는 <부록 5>을 참조 바람.

률이 88.66퍼센트과 71.67퍼센트로 나왔고,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PCA 평균 상승률이 62.78퍼센트과 35.83퍼센트로 나왔다는 것은 P/E 프로그램이 신혼부부들의 부부문제 예방과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의사소통'에 대한 PCA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 나머지 세 영역들에 대한 상승률 또한 높게 나온 것은 P/E 프로그램이 '치료적 전략이 있는 예방사역'과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강화사역'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163]

라. 신혼부부 소그룹 구성 및 시작

G 연합감리교회에서는 P/E 그룹 프로그램을 마친 직후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신혼부부들로 구성된 신혼부부 소그룹이 시작되었다. 소그룹 리더는 C 목사의 추천을 받아 P/E 그룹 프로그램에 에비 멘토 부부로 참석했던 40대 전도사 부부로 세워졌다. 그리고 C 목사 부부는 2015년 상반기에 페밀리터치에서 시행하는 '결혼 상담자 훈련 워크숍'에 참석하여 상담자 자격을 취득한 뒤에 멘토 부부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본 연구자는 C 목사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G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

163) P/E 그룹 프로그램의 실험적 적용에 대한 대응표본 T-점검(paired sample T-test)을 시행하여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의 향상이 있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모든 척도 영역에 대해서 재검사 시 점수의 상승 경향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척도 영역($p<.05$)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26.67(표준오차=8.82, t=3.02, df=2, p=.09), '갈등해결'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16.67(표준오차= 6.67, t=2.50, df=2, p=.13), '파트너 스타일 및 습관'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16.67(표준오차=12.02, t=1.39, df=2, p=.30), '재정관리'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10.00(표준오차=5.77, t=1.73 df=2, p=.23), '여가활동'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20.00(표준오차=15.28, t=1.31, df=2, p=.32), '성관계'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20.00(표준오차=15.28, t=1.31, df=2, p=.32), '가족 및 친구'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6.67(표준오차=3.33, t=2.00, df=2, p=.18), '역할 및 책임'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16.67(표준오차=23.33, t=.71, df=2, p=.55), 마지막으로 '영성(종교적 신앙)'의 경우, 평균점수 차이=13.33(표준오차=8.82, t=1.51, df=2, p=.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결과는 표집의 수가 세 커플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경우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확률이 매우 낮음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cf. De Winter, J. C. F., "Using the Student's T-test with Extremely Small Sample Sizes," 2-13. Online: http://pareonline.net/pdf/v18n10.pdf/).

3.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는 매년 하반기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가진다. 본 연구자는 2014년 10월에 있었던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서 8쌍의 목사 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한 쌍의 은퇴목사 부부를 제외하고 7쌍의 목사 부부가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들은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시행 가능성, 그리고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해결책과 수정할 점을 묻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되어 있다.[164]

1. 한인 교회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우기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 ② 필요하지 않다 ( ),
③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 ): 이유는?
2.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목사님 교회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① 가능하다( ): 이유는?
② 가능하지 않다( ): 이유는?
3.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교회 안에 어떤 여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장점들과 문제점들, 그리고 문제해결책을 말씀해주십시오.
① 장점: ② 문제점: ③ 해결책:
5.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한인 교회에 정착되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합회 목사 부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들을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평가가 가능했다.

가.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필요성

설문 결과 40명 정도의 한인 회중과 20명 정도의 미국인 회중을 동시에 섬기고

164)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는 <부록 8>를 참조 바람.

있고, 한인 회중 가운데에는 신혼부부는 물론 젊은 부부도 없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관계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응답한 한 목사 부부를 제외한 모든 목사 부부들이 한인 교회에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 한인 교회에 신혼부부들과 젊은 부부들을 위한 부부문제 예방 및 관계 강화를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소그룹 환경에서 시행하는 동시에 교회에서 신혼부부 및 젊은 부부 소그룹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지역 교회에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응답을 했던 40명 정도의 한인 회중과 20명 정도의 미국인 회중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목사 부부는 교회 안에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참석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없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력이나 섬길 수 있는 평신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지역 교회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6쌍의 목사 부부는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가능성의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①온라인으로 쉽게 P/E 설문지 검사에 응할 수 있는 점, ②회기별 혹은 하루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방식, ③접근성이 용이하다, ④신혼부부들이 목사와 좋은 관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⑤교회에 신혼부부들과 젊은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⑥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영적인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신혼부부 교회 자체의 필요성과 소그룹 프로그램의 특성 및 유익 때문에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교회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필수여건들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 교회 안에 형성되어야 하는 여건들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응답들이 나왔다. 이러한 응답들을 공통적인 것들끼리 묶으면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총 5쌍의 목사 부부들이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필수여건으로 제시하였다. 즉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담임목사의 "신혼부부 사역에 대한 비전과 열정," 그리고 "확고한 의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전도 및 선교,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있기에 가정사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시행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신중한 계획과 설득 작업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을 많이 경험하였다. 따라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신혼부부 사역에 대한 담임목사의 분명한 목회철학과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지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

총 4쌍의 목사 부부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를 필수여건으로 제시하였다. 즉 "교회 평신도 리더들의 동참"과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헌신"이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필수여건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신도 자원들이 교회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지만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담임목사의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교회의 리더들의 동참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신혼부부 사역에 대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분명하고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제직들이나 평신도 리더들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3) 신혼부부들의 필요성 인식

총 2쌍의 목사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의 필요성 인식"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필수어건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응답이다. 본 논문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과제로 동기부여의 어려움을 중요하게 다룬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그밖에도 각각 한 쌍의 목사 부부들이 "신혼부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교회의 사회 참여와 공헌에 대한 인식"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필수 여건이라고 응답하였다.

라.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교회 내 소그룹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점, ②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통한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결 가능성, ③신혼부부들과 젊은 부부들에 대한 전도 및 정착 가능성, ④신혼부부들이 목회자나 상담자와의 영적인 끈끈한 관계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점, ⑤가정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점, ⑥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젊고 진취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는 점, ⑦남자(남편)와 여자(아내)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 ⑧부부문제가 일어날 때 반응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됨, ⑨부부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됨, ⑩신혼부부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갈등의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게 할 수 있는 점, ⑪신혼부부들이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⑫신혼부부들에게 오랫동안 진정한(건강한) 부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⑬기존의 부부상담(교육)을 위한 교재들이 지나치게 교리적인 내용이 많고 실천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에 반해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은 실천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부부의 깊은 문제가 드러날 때 전문적 상담을 권고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②전문성이 없는 목회자에게 결혼상담이나 부부상담이 맡겨지면 위험성이 있다, ③목회자가 부부관계에 대한 너무 많은 문제를 알게 되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 ④신혼부부가 상담을 통해 드러낸 자신들의 문제가 교회에 소문이 나거나 험담을 듣게 될 위험성,

⑤부부상담을 통해 너무 자세한 사항까지 알려지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다고 느껴서 자격지심이 생기고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 ⑥계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가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⑦다른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한인 교회에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의 내용이 단점에 비해 갑절 가까이 될 뿐 아니라 그 내용들도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단점에 대한 내용은 교회에서 가정사역이나 상담사역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비밀유지(confidentiality issues)에 대한 문제와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한다면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은 한인 교회에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효과성과 유익성도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마. 프로그램의 단점 해결책과 보완책

설문조사 결과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단점인 비밀유지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들을 다음과 같다: ①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깊은 상담을 맡기는 것(outsourcing)이 좋겠다, ②프로그램 진행에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 ③좀 더 전문적인 기관과 전문가에게 상담(consult)을 해야 할 것이다, ④교육이 끝난 뒤에 좀 더 자세하고 깊은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다, ⑤개체 교회에서 하기보다 지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하면 좋겠다, ⑥지역사회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늘 열려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소그룹 사역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비밀유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위해 사전에 시행하는 P/E 설문지 결과 '갈등 있는 커플'이나 '활기 없는 커플'로 평가되는 신혼부부들은 P/E 그룹 프로그램의 워크숍 방식의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가지는 대신에 P/E 개별 프로그램의 개별 상담 방식의 피드백 나눔 과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보완책으로 멘토 부부(들)에게 철저한 비밀유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에 있는 가정사역 및 상담 전문기관인 '패밀리터치'와의 협력 사역을 통해 교회에서 멘토 부부나 평신도 상담자, 또는 목회자가 상담과 비밀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부부들은 패밀리터치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한인 교회에 정착되기 위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들을 다음과 같다: ①한인 교회의 특수성과 특별히 이민 사회의 특수한 사정이 잘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 ②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에게 맞는 언어 선택과 교회 차원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③신혼부부 소그룹을 위해 좀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재가 개발되면 좋겠다, ④인터넷 프로그램과 강좌를 통해 젊은 신혼부부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신혼부부 사역을 포함하는 부부사역과 가정사역은 개체교회의 사역에 그치지 않고 지역 교회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자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한인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기 위해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와 뉴저지에 있는 가정사역 전문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실천해나갈 것이다 .

첫째,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가 매년 시행하는 '연합회 평신도 교육' 때에 참석한 신혼부부와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문제 예방 및 관계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연합회 평신도 교육은 연합회에 속한 교회들에서 새롭게 선출된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동시에 기존의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과 평신도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연례 교육 행사이다. 본 연구자는 연합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설문을 받으면서 목사 부부들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한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시행하는 연합회 평신도 교육 때에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반응여부에 따라 연합회에 속한 교회들, 특히 자체적으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규모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본 연구자가 강사가 되어 P/E 그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계획하여 실행해볼 생각이다.

둘째, 뉴저지 지역사회에 있는 가정사역 전문기관 중의 하나인 '패밀리터치'[165]

와의 협력사역으로 연합회 목사 부부들이 매년 한번씩 시행되는 '결혼 상담자 훈련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독려하여 P/E 상담자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신혼부부 사역을 비롯한 부부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뉴저지 지역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과 전문 상담기관들, 그리고 전문 상담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지역 교회들과 가장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사역 전문기관이 '패밀리터치'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B 연합감리교회에 패밀리터치 원장인 정정숙 박사를 소개하여 '행복한 부부생활 세미나'를 시행한 적이 있고 연합회 목회자 수련회에서도 목사 부부들을 대상으로 같은 세미나를 시행한 적이 있다. 또한 2013년 '연합회 평신도 교육' 때에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중독 세미나'를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자는 앞으로 패밀리터치와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뉴저지 연합감리교회들이 구체적인 부부사역과 가정사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생각이다. 그뿐만 아니라 뉴저지 지역사회에 있는 가정사역 및 상담 전문가들과 전문기관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뉴저지 연합감리교회들뿐 아니라 뉴저지 지역교회들에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제 4 절 요약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가 되어지는 '치료적 전략이 있는 예방사역'과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관계 강화사역'을 핵심 과제로 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자는 먼저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신혼부부 시기의 특성과 부부 멘토링 사역, 그리고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위한 소그룹 이론과 부부 성장 소그룹 모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의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의

---

165) '패밀리터치'는 자체적으로 가족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싱글 프로그램, 시니어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고, 가족관계 강좌 세미나, 자녀양육학교, 분노조절 세미나, 죽음준비학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 강사교육, 대화기술 강사교육, 그리고 P/E 프로그램의 상담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결혼 상담자 훈련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다.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을 연구한 결과 발견하게 된 네 가지 주요 문제점과 두 가지 실천적 과제의 해결을 제공하는 P/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P/E 개별 프로그램과 그룹 프로그램의 실험적 적용 및 평가를 시행하고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데 공통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문제'와 프로그램을 참여한 뒤의 '사후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의 적용은 본 논문의 주제인 "부부문제 예방과 관계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개발"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자가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핵심적인 소득은 남은 목회의 패러다임을 '가정 중심의 목회'로 해야겠다는 결심과 그 결심을 실행해나갈 수 있는 가정신학과 가정사역에 대한 많은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정보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논문을 준비하고 완성해나가는 연구과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사역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목회철학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가정을 통해 세워진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의 근간이 되는 건강한 기독교인 부부관계의 기초는 남자(남편)과 여자(아내)가 합하여 육적으로 '한 몸'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롭고 거룩한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관계적으로 기독교인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친밀한 사랑'과 '자발적 헌신'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받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역적으로 신혼기에 시행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동시에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부문제 예방사역' 및 '부부관계 강화사역'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가정사역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풀러신학교의 엄예선 박사는 한인 목회학 박사원을 통해 발표한 "한인 이민교회 내에서의 가정사역의 중요성과 방향"이라는 글에서 교회가 가정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그 첫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하므로"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근간이 되는 사역은 교회의 신혼부부들과 젊은 부부들의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예방사역'과 '관계 강화사역'이라고 확신한다.[166] 개인의 건강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이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건강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본 연구자는 이런 연유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예방사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부문제 예방사역을 본 논문의 주제로 삼은 것이다. 또한, 개인의 건강을 위해 예방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저항력을 키워주는 적절한 음식섭취와 적당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건강도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병들지 않도록 저항력을 키워주는 관계 강화사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 본 연구자는 예방사역을 '치료적 전략이 있는 부부문제 예방사역'으로, 관계 강화사역을 '예방사역의 연장으로서의 부부관계 강화사역'으로 구체화하고, 부부문제를 예방하고 부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을 부부 멘토링이 있는 소그룹 환경에서 실행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에 대한 본 연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주제와 의의에 따라 논의된 본 논문의 각 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결혼 후 4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점과 기독교인들의 이혼율 역시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주지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건강한 부부관계의 기초요 근간이 되는 신혼부부 사역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역으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임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위하여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 가정의 토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필수요소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목적과 부부 권력구조의 동등성 이론에 근거한 동역자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166) 물론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치유사역'과 '회복사역'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또 다른 주요 사역들이다. 만일 건물로 비유한다면 '예방사역'과 '관계 강화사역'은 건물의 기초가 되고, '치유사역'과 '회복사역'은 건물의 기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실천적 근거를 위하여 부부사역을 포함하는 한국 교회의 가정사역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예방사역 및 강화사역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얻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고,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안을 얻기 위해 부부사역 프로그램들의 실태 파악 및 분석과 함께 부부문제 예방사역과 부부관계 강화사역에 효과적인 부부사역 프로그램 모델인 'PREPARE/ENRICH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하였다.

5장에서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신혼부부 시기의 특성과 부부 멘토링 사역, 그리고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위한 소그룹 이론과 부부 성장 소그룹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PREPARE/ENRIC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실험적 적용 및 평가를 시행하고 다각적인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연구의 의의와 내용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결정적인 한계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한계는 'PREPARE/ENRIC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부부 멘토링이 있는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이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실행되도록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 적용과 효과성 분석 및 평가를 하기에 피치 못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자는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P/E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준비 차원의 실험적 적용과 효과성 분석 및 평가, 표본 교회의 신혼부부와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P/E 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적 적용과 효과성 분석 및 평가, 그리고 표본 교회에 신혼부부 소그룹을 시작하도록 돕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 한계는 본 연구가 신혼부부 소그룹 사역에 대한 것인 관계로 두 번에 걸친 실험적 적용의 표본 부부들의 숫자가 각각 네 커플과 다섯 커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적용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평가의 통계학적인 객관성과 보편성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향후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연합회 교회들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적용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미주 전체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와의 협력을 통한 더 폭넓은 적용을 시도해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교단의 교회들에 대한 적용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및 제언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 부부사역과 가정사역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와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을 위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은 이미 검증되어진 PREPARE/ENRICH 프로그램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을 위한 교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 못지않게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을 위한 교재 개발 또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 멘토링의 '독서요법'에 필독서로 쓰이는 책들[167]과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의 주제 및 나눔 가이드 샘플'에 쓰인 책,[168] 그리고 Christian PREP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의 주제들에 맞는 소그룹 교재 개발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둘째,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 외에도 교회의 모든 부부들을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결혼한 지 1년 전후의 신혼부부들은 문제나 갈등을 심각하게 겪기 전에 예방사역과 관계 강화사역을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젊은 부부들이나 결혼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은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치유사역과 관계 회복 및 증진사역을 위한 부부사역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상담심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 내에 준 전문적인 평신도 상담자나 가정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

167) 각주 148을 참조 바람.
168) <부록 4>를 참조 바람.

물론 담임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가정신학 정립과 가정사역 중심 내지는 가정사역에 열린 목회철학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의 리더십들이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솔선수범하여 평신도 상담자나 가정사역자, 혹은 멘토부부에 헌신하면서 교회 내에 이러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정사역의 체계화'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가족체계가 필요하듯 교회가 건강한 가정으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정사역의 체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혼부부 사역을 포함하는 부부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가정사역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사역의 체계화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한국 교회에 제언한다. 이를 위해 개교회의 전통과 사명, 그리고 비전에 따라 가정사역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교인들이 가정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회 내에 '가정사역 준비팀'이나 '가정사역 위원회'을 구성하여 가정사역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가정사역 체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 가정사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을 지역 교회들과 함께 공유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공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가정사역 전문가들과 전문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이민사회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동역하는 선교적 차원의 섬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부록 1. 혼인-이혼 추세 및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와 구성비 추이

"혼인-이혼 추세, 1970-2010" (출처: 한국 통계청 2010년)

연 도 *	혼 인 (건)	증감률 (%)	조혼인율 (인구 1천명당 건)	이 혼 (건)	증감률 (%)	조이혼율 (인구 1천명당 건)
1970	295,137	-	9.2	11,615	-	0.4
1971	239,457	-18.9	7.3	11,361	-2.2	0.3
1972	244,780	2.2	7.3	12,188	7.3	0.4
1973	259,112	5.9	7.6	12,719	4.4	0.4
1974	259,604	0.2	7.5	14,073	10.6	0.4
1975	283,226	9.1	8.0	16,453	16.9	0.5
1976	285,910	0.9	8.0	17,178	4.4	0.5
1977	303,156	6.0	8.3	20,280	18.1	0.6
1978	343,013	13.1	9.3	19,734	-2.7	0.5
1979	353,824	3.2	9.4	17,178	-13.0	0.5
1980	403,031	13.9	10.6	23,662	37.7	0.6
1981	406,795	0.9	10.5	24,278	2.6	0.6
1982	387,468	-4.8	9.9	26,124	7.6	0.7
1983	412,984	6.6	10.3	28,549	9.3	0.7
1984	385,188	-6.7	9.5	35,772	25.3	0.9
1985	384,686	-0.1	9.4	38,187	6.8	0.9
1986	390,229	1.4	9.5	39,132	2.5	0.9
1987	390,276	0.0	9.4	42,268	8.0	1.0
1988	410,129	5.1	9.8	42,757	1.2	1.0
1989	410,708	0.1	9.7	44,017	2.9	1.0
1990	399,312	-2.8	9.3	45,694	3.8	1.1
1991	416,872	4.4	9.6	49,205	7.7	1.1
1992	419,774	0.7	9.6	53,539	8.8	1.2
1993	402,593	-4.1	9.0	59,313	10.8	1.3
1994	393,121	-2.4	8.7	65,015	9.6	1.4
1995	398,484	1.4	8.7	68,279	5.0	1.5
1996	434,911	9.1	9.4	79,895	17.0	1.7
1997	388,960	-10.6	8.4	91,160	14.1	2.0
1998	373,500	-4.0	8.0	116,294	27.6	2.5
1999	360,407	-3.5	7.6	117,449	1.0	2.5
2000	332,090	-7.9	7.0	119,455	1.7	2.5
2001	318,407	-4.1	6.7	134,608	12.7	2.8
2002	304,877	-4.2	6.3	144,910	7.7	3.0
2003	302,503	-0.8	6.3	166,617	15.0	3.4
2004	308,598	2.0	6.4	138,932	-16.6	2.9
2005	314,304	1.8	6.5	128,035	-7.8	2.6
2006	330,634	5.2	6.8	124,524	-2.7	2.5
2007	343,559	3.9	7.0	124,072	-0.4	2.5
2008	327,715	-4.6	6.6	116,535	-6.1	2.4
2009	309,759	-5.5	6.2	123,999	6.4	2.5
2010	**326,104**	**5.3**	**6.5**	**116,858**	**-5.8**	**2.3**

* 1981년 이후 자료는 신고기준(1970 - 1980년은 발생 기준임)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 추이, 1990-2010" (출처: 한국 통계청 2010년)

□이혼 건수

(단위 : 건)

연도	계*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1990	45,694	18,053	13,320	8,323	3,630	2,363
1991	49,205	18,521	13,785	9,582	4,393	2,810
1992	53,539	19,423	14,578	11,046	5,131	3,268
1993	59,313	20,597	15,507	12,643	6,339	3,977
1994	65,015	21,936	16,522	13,867	7,538	4,711
1995	68,279	22,272	17,179	14,052	8,974	5,571
1996	79,895	25,687	19,689	15,697	10,998	7,078
1997	91,160	28,235	22,115	17,775	13,315	8,931
1998	116,294	34,241	27,109	22,383	18,067	14,375
1999	117,449	34,347	26,748	22,198	18,306	15,816
2000	119,455	35,047	26,643	22,360	18,342	16,978
2001	134,608	38,003	31,014	25,611	19,924	19,963
2002	144,910	38,963	33,695	28,152	21,357	22,735
2003	166,617	40,925	38,515	32,664	24,800	29,711
2004	138,932	34,976	31,777	26,323	20,492	25,364
2005	128,035	33,144	28,516	23,621	18,887	23,867
2006	124,524	33,023	27,266	22,384	18,014	23,837
2007	124,072	33,670	25,493	21,662	18,252	24,995
2008	116,535	33,114	21,694	18,307	16,478	26,942
2009	123,999	33,718	23,636	19,986	18,398	28,261
2010	**116,858**	**31,528**	**21,963**	**18,638**	**16,906**	**27,823**

* 동거기간 미상 포함

□ 구성비

(단위 : %)

연도	계*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1990	100.0	39.5	29.2	18.2	7.9	5.2
1991	100.0	37.6	28.0	19.5	8.9	5.7
1992	100.0	36.3	27.2	20.6	9.6	6.1
1993	100.0	34.7	26.1	21.3	10.7	6.7
1994	100.0	33.7	25.4	21.3	11.6	7.2
1995	100.0	32.6	25.2	20.6	13.1	8.2
1996	100.0	32.2	24.6	19.6	13.8	8.9
1997	100.0	31.0	24.3	19.5	14.6	9.8
1998	100.0	29.4	23.3	19.2	15.5	12.4
1999	100.0	29.2	22.8	18.9	15.6	13.5
2000	100.0	29.3	22.3	18.7	15.4	14.2
2001	100.0	28.2	23.0	19.0	14.8	14.8
2002	100.0	26.9	23.3	19.4	14.7	15.7
2003	100.0	24.6	23.1	19.6	14.9	17.8
2004	100.0	25.2	22.9	18.9	14.7	18.3
2005	100.0	25.9	22.3	18.4	14.8	18.6
2006	100.0	26.5	21.9	18.0	14.5	19.1
2007	100.0	27.1	20.5	17.5	14.7	20.1
2008	100.0	28.4	18.6	15.7	14.1	23.1
2009	100.0	27.2	19.1	16.1	14.8	22.8
2010	**100.0**	**27.0**	**18.8**	**15.9**	**14.5**	**23.8**

* 동거기간 미상 포함

부록 2. PREPARE/ENRICH 그룹 프로그램의 워크숍 진행 지침[169]

PREPARE/ENRICH 그룹 프로그램의 10회기 워크숍

1. 관계 강점 및 성장필요 영역 나누기(Sharing Strength & Growth Areas)

* 자료: 커플 워크북 - "관계 강점 및 성장필요 영역 나누기" *(각자 한부씩)*

1) 환영(Welcome)

- 강사(그룹리더)가 자신을 그룹에 소개한다.
- 커플들에게 그룹에 자신들을 소개하도록 한다.

2)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서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해보라. *(만일 그룹이 작으면 모두가 함께 나눈다. 만일 그룹이 5-6커플 이상이 되면 두세 커플씩 묶어서 나누도록 한다).*

3)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당신 자신과 당신의 커플관계를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가? *(강사나 그룹리더는 커플들의 말을 기록하였다가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때 커플들의 목표를 재언급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PREPARE/ENRICH 소개
  - 각 커플들은 이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PREPARE/ENRICH 질문서를 하게 된다. PREPARE/ENRICH는 30년 이상의 연구와 개량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P/E 질문서는 합격/불합격이 있는 테스트가 아니고 커플관계의 여러 가지 국면들에 대하여 서로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개괄하는 평가 질문서이다.
  - 각자가 따로, 솔직하게 질문서에 답하게 하라.
  - P/E 질문서를 시작하기 위해 참여자 모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이미 등록하면서 받은 것이 없으면 종이를 돌려서 쓰게 한다).*

- 그룹의 기본규칙 *(강사는 미리 규칙을 워크북 앞에 적어 넣을 수 있다).*
  1. 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2. 그룹 안에서 다른 커플들과의 모든 나눔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다.
  3. 무언가를 나눌 때에는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을 말하라.
  4. 커플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나눌 때는 먼저 파트너에게 물어보고 하라.
  5. 그룹의 목표는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기는 것이다.

---

169) 모든 자료는 Life Innovations, Inc., *Prepare/Enrich Group Program Instructor's Guide*, (Online Version;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2012)를 본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5)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해당 워크북 유인물 배포*

- 모든 커플들은 그들이 긍정적으로 느끼는 "관계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 모든 커플들은 또한 분투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영역들은 커플관계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필요 영역"이라고 부른다.
- *(강사나 그룹리더가 나눌 수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실례가 있으면 나눈다).*
-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 연구에 의하면, 커플관계는 관계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커플의 투자하는 시간만큼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 커플에게 '관계 강점과 성장 필요 영역'에 대한 커플 연습을 하게 한다.
  - 먼저 파트너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워크북에 나오는 연습지를 완성하되 5분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하라.
  - 커플이 모두 연습지를 완성하게 되면 파트너의 것과 비교하면서 15분 정도의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라. 만일 커플들이 자신들만의 사적인 장소를 갖기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6)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커플 연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는가?
- 때로 커플들은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분투하기도 한다. 관계 강점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극복하게 한다고 믿는가?
- 성장 필요 영역이 관계 강점으로 바뀌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7)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 PREPARE/ENRICH로부터 검사지 로그인에 대한 이메일이 올 것을 알리고, 언제까지 검사지를 끝낼지를 알려준다. (*강사나 그룹리더는 커플들이 검사지를 끝낸 뒤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프린트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 P/E 검사지를 할 때 솔직하게, 그리고 반드시 혼자서 하도록 상기시킨다.

2. SCOPE 성격 특성(SCOPE Personality)

* 자료: 커플 워크북 - *SCOPE 자신의 성격 알아보기 (각자 한부씩)*
커플 보고서 - *SCOPE 성격 특성 척도*

1)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당신의 파트너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성격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그룹이 너무 클 경우 2-3 커플씩 묶어서 하도록 한다).*

2)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당신은 당신과 반대되는 파트너의 성격에 끌렸는가? 아니면 당신과 비슷한 성격에 끌렸는가?

- 당신은 파트너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3)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성격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관된 패턴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성격 특성은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당신의 성격이 몇 년에 걸쳐서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성숙도, 자신감, 그리고 사회적 주변 환경의 변화와 같이 당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 커플 간에 서로의 주어진 성격 특성이 같거나 다른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성격 특성의 실례를 나누어보라).*

4)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해당 워크북 유인물 배포*

- (SCOPE가 무엇의 약자인지를 설명하라.)
  - S = 사교성(Social): 외향적 vs. 내향적; 사회적 상황에서의 선호도와 태도
  - C = 변화(Change): 개방적 vs. 보수적; 변화에 대한 개방성, 유연성,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
  - O = 조직성(Organized): 성실한 vs. 덜 조직적인; 매일의 삶과 목표 추구에 대하여 얼마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가
  - P = 배려(Pleasing): 친절한 vs. 강제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얼마나 자상하고 협조적인가
  - E = 정서적 안정성(Emotionally Steady): 차분한 vs. 반응적인;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느긋하고 차분한 성향인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인가
- "높음" "평균" 또는 "낮음"으로 표시되는 SCOPE 점수는 모두 긍정적일 수 있다. 높은 점수라고 해서 낮은 점수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성격 특성과 연관된 많은 성격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연구에 의하면 서로 다른 SCOPE 점수들을 가진 파트너와 결혼한 사람들이 2/3에 이른다.
- 커플들에게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자신의 SCOPE 성격 알아보기' 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 먼저, 커플 보고서로부터 각자의 SCOPE 성격 특성 결과를 검토하게 하라. 커플 보고서에는 각 성격 특성에 대한 각자의 점수와 커플의 점수가 나온다.
  - 그 다음, 커플 연습에 나오는 토론 질문에 대해 15분정도 대화할 시간을 주라. 만일 커플들이 자신들만의 사적인 장소를 갖기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5)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성격 특성 결과에 대한 토론을 통해 커플관계에 어떤 통찰력을 얻었는가?
- 어떤 상황에서 성격 특성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 당신의 성격 특성이 커플관계에서 행하여지는 당신의 역할에 어떻게 맞추어 조정되는가?

6)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 다음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한 주제들을 탐구할 것임을 알린다.

3.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Personal Stress Profile)

* 자료: 커플 워크북 - *가장 중요한 문제 파악하기 (각자 한부씩)*
커플 보고서 -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

1)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당신의 첫 번째 직업, 혹은 가장 재미있었던 직업은 무엇인가? *(그룹이 너무 클 경우 2-3 커플씩 묶어서 아이스브레이커 시간을 가지게 한다).*

2)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요즈음 우리의 삶과 문화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스트레스는 관계를 시작하게도 하고 끝나게도 한다." - Dr. David Olson
  - 이 말에 동의하는가? 당신의 커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스트레스의 예가 있으면 말해보라.

3)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결혼한 20,000 커플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상위 5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직업
  3. 십십하고 분한 감정
  4. 충분치 않은 수입
  5. 너무 많은 가사일
- 근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스트레스는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한 개인적인 스토리를 나누라).*
- 스트레스는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수도 있지만, 어떤 스트레스는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다. 도전이 없는 삶은 지루할 수 있다.
-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감정적, 육체적, 그리고 관계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삶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커플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의사소통, 갈등해소, 유연성, 그리고 신앙은 중요한 스트레스 대처 자원이다.

4)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해당 워크북 유인물 배포*

-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가장 중요한 문제 파악하기' 커플 연습을 하게 한다.
  - 먼저, 커플 보고서로부터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함께 검토하라.
    -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은 지난 1년 동안의 각자의 개별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한 것이다. 스트레스 수준은 개인 스트레스의 25가지 공통적인 원인에 대한 반응들에 근거한 것이다.

- 보고서는 커플 각자의 스트레스 결과를 "매우 낮음"으로부터 "매우 높음"까지 측정해놓았다. 결과의 퍼센트는 5만 이상의 규준 그룹과의 비교에 근거한 것이다.
- 보고서에는 각 개인의 상위 10개의 스트레스가 나온다. *(10가지 질문에 최소한 "가끔"이라는 대답 이상을 적지 않았으면 10개보다 적게 나온다).*

◆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 파악하기' 커플 연습을 완성하라. 이 연습은 중요하지 않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보다 변화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울 것이다.

◆ 보너스 아이디어: 커플 연습을 빨리 마친 커플은 최근의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서 이 문제와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경청 기술'을 연습하라. 화자와 청자가 차례를 바꾸어 해보라.

☞ 경청자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듣고 이해하고 배려하라.

5)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커플 연습을 완성하면서 어떤 통찰력을 얻었는가?
- 스트레스 수준이 서로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전형적인 부부가 있는가? 개별적인 스트레스 수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 변화시키기 어려운 스트레스 요인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당신이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화가 개인과 커플관계를 어떻게 돕는가?

6)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 커플 워크북 연습 - *"우선순위의 균형 맞추기" (기혼 커플용)*
- 커플 워크북 연습 - *"결혼 스트레스" (약혼 커플용)*

4. 의사소통: 자기주장(표현) 및 적극적 경청(Communication: Assertiveness & Active Listening)

* 자료: 커플 워크북 - *희망사항 리스트 작성하기 (각자 한부씩)*
커플 보고서 - *관계역동, 의사소통*

1)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 *(그룹이 너무 클 경우 2-3 커플씩 묶어서 아이스브레이커 시간을 가지게 한다).*

2)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건강한 의사소통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말해보라.
  - 무엇이 좋은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가?
  - 무엇이 좋은 경청자가 되게 하는가?
-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 느낌이 어떤가?
-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때 느낌은 어떤가?

3)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것이다." - Henry David Thoreau
- 연구는 의사소통이 건강할 때는 관계가 풍성해지고 건강하지 못할 때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반복해서 입증해주고 있다. PREPARE/ENRICH는 5만 커플을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이 행복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발견했다.
- 이번 회기에서 다룰 두 가지 중요한 의사소통 기법은 '자기주장(표현)'이라는 화자 기법과 '적극적 경청'이라는 청자 기법이다.
  - '자기주장(표현)'이란 관계 안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능력이다. 적극적인 자기주장(표현)을 위해서 공격적일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나"로 시작하는 진술("I" statements)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 된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실례를 제시하라. 만일 필요하다면 커플 워크북에 있는 '자기주장 및 적극적 경청'을 참고할 수 있다).*
  - '적극적인 경청'은 파트너가 말한 메시지를 당신의 말로 재진술(restating)함으로써 파트너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다. 파트너의 말을 막지 말고 주의해서 들으며, 파트너가 한 말의 내용뿐 아니라 느낌까지 재진술해보라. *(개인적인 실례를 나누거나 '자기주장(표현) 및 적극적 경청'에 대한 역할극을 하도록 해보라).*

4)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해당 워크북 유인물 배포*

- 커플들에게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희망사항 리스트 작성하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20분의 시간을 주라. 이것은 '자기주장(표현) 및 적극적 경청'이 요구되는 재미있는 예제이다.
  - 먼저, 커플 보고서에 나오는 '관계 역동'과 '의사소통'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라.
    - '관계 역동'은 자기주장(표현)의 수준에 대한 3가지 다른 차원의 간략한 정보(snapshot)를 제공할 것이다. 관계 역동을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관계 역동'에 대한 보고서가 어떻게 제시되어져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라. 시간이 있다면 '자기주장(표현)과 자신감'의 선순환(positive cycle)과 '회피성과 파트너 지배성'의 부정적 악순환(negative cycle)에 대하여 설명해주라).*
    - '의사소통'에 대한 페이지에는 '개별적 만족 수치에 대한 그래프,' '커플 의견일치 수준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카테고리 항목에 대한 내역'이 나온다.
      - 커플 의견일치 항목 - 진술에서 커플이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항목
      - 의견불일치 항목 - 진술에서 커플이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항목
      - 미결정 항목 - 둘 중 하나가 미결정(잘 모르겠다) 대답을 한 항목
      - 특별 초점 항목- 커플이 둘 다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표현한 항목
  - 그 다음, '희망사항 리스트 작성하기' 예제를 완성하라. 각자에게 2-3분의 시간을 주고 "커플관계에서 더 또는 덜 원하는 세 가지 일들"을 적으라. 둘 다 리스트가 완성된 후에 커플이 함께 자기주장(표현)과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면서 각자의 희망사항들을 번갈아 나누라.
    - 희망사항을 나눌 때 화자로서 "나"로 시작하는 진술("I" statement)을 사용하여 말하고, 희망사항이 이루어지면 느낌이 어떨지를 묘사하라.

- 청자는 적극적인 경청 기법을 사용하여 화자가 나누고자 하는 느낌을 포함해서 청자로서 들은 것을 요약하여 재진술하라.

5)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적극적 경청자가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땠나?
- 파트너가 적극적인 경청을 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
- 이번 회기가 커플관계를 강화하는데 무엇을 제공해주었나?

6)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 커플 워크북에 기술된 대로 *'자기주장(표현) 및 적극적 경청'*을 계속 실천하라.
-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매일의 대화와 매일의 칭찬'(Daily Dialogue and Daily Compliments)*을 연습해보라.

5.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 자료: 커플 워크북 - *커플 갈등해결 10단계 (각자 한부씩)*
커플 보고서 - *갈등해결*

1)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2)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통계에 의하면 다수의 커플들(78%)이 자신들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통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 흔히 논쟁에서는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왜 관계적인 갈등 안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과 같은 결과는 없는 것일까? *(대답: 만일 어느 쪽 파트너든 지 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그 관계 전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3)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모든 커플들은 차이점과 불일치를 가지고 있다. 연구들은 행복한 결혼은 갈등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커플 간의 불일치가 없음에 관련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행복은 갈등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다."
- *(개인적인 실례가 있으면 나누라).*
- 갈등은 변장된 기회이다. 잘 다루면 이해, 친밀감, 그리고 신뢰가 증가된다. 갈등을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화자-청자 기법'과 같은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라.
  - 마치 파트너의 생각, 느낌, 또는 동기를 아는 것처럼 추정하는 "마음 읽기"를 피하라.
  - 문제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에게 맞추지 마라.

- 파트너를 진지하게 대하라. 파트너나 파트너의 기분을 무시하지 마라.
- 구체적이 되고 현실에 충실하라. 과도한 일반화("항상" 또는 "결코") 또는 과거의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은 관계가 증진되는 것을 힘들게 한다.
- 침착하기 위해 타임아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침착함을 유지하라.
- 둘 다 "윈/윈"으로 느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라.
- 이러한 원칙들의 실천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갈등해결 10단계'를 사용하라.

4)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해당 워크북 유인물 배포*

- 20분 정도의 시간동안 커플 보고서의 '갈등해결' 결과를 검토하고,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갈등해결 10단계'를 연습하라.
  - 먼저, 커플 보고서에 나오는 '갈등해결' 결과를 검토하라.
  - 그 다음, '갈등해결 10단계'를 통해 갈등해결을 시작하라. *(강사는 각 단계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해결이 필요한 삶의 문제를 선택하고 10단계를 시작하라. 대부분의 커플들에게 있어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만일 문제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보라:
      -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파트너와 아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 해결이 필요한 계속되는 문제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가?
      - 최근에 논쟁을 벌인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점에 도달했었는가?
      - 장래에 문제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는 당신의 성격이나 가족 안에 어떤 큰 차이가?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를 예상하면서 10단계를 사용해보라.

5)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관계 역동(자기주장, 자신감, 회피성, 파트너 지배성)이 갈등해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갈등해결의 10단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가?
- 이러한 단계들이 어떻게 '윈/윈'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나?

6)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 만일 *'갈등해결을 위한 10단계'*를 끝내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 끝내도록 하라.
- 냉장고에 *'갈등해결을 위한 10단계'*를 붙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라.
-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어떻게 타임아웃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라.
- 커플 워크북에 있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 예제를 검토하라.

6. 재정 관리(Financial Management)

* 자료: 커플 워크북 - *재정적인 목표의 중요성, 돈의 의미, 그리고 예산안 작성지 (각자 한부씩)*
커플 보고서 - *재정관리*

1)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만일 어떤 사람이 오늘 5천불을 선물로 준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2)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어떤 사람은 타고난 '절약가'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쓰기를 좋아하는 '소비가'이다. 그래서 커플은 두 절약가, 두 소비가, 혹은 절약가와 소비가로 맺어진다. *(그룹 안에서 이러한 조합의 커플이 각각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보라).*
- 각각의 조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겠는가?
- 결혼한 부부는 하나의 은행구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각각의 분리된 은행구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더 많은 돈을 축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의 조사에서는 삶의 성공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좋은 결혼; (2)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 (3) 자녀들의 필요를 돕는 것; (4) 관심 있는 직업을 갖는 것; 그리고 (5) 잘 교육받는 것.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이상의 5가지 요소를 행복의 필수요소로 여긴 사람은 79-94%인 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긴 사람은 27%에 그쳤다.)
- 연구는 모든 수입 수준의 커플들이 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커플들이 매우 부유하거나 평균 정도의 수입을 가졌거나 상관없이 같은 퍼센트(약 65%)가 돈을 쓰는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한 커플들은 돈을 쓰는 우선순위, 저축 계획, 그리고 과중한 채무를 피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 *(개인적인 스토리나 실례가 있으면 나누라).*
- 이번 회기는 커플들에게 재정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탐색하도록 도울 것이다: '재정적인 목표를 정하는 일'(단기, 장기), '예산을 세우는 일' 그리고 '돈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
  - 단기와 장기 재정목표에 합의하는 것은 재정적인 긴장을 피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대중적인 재정목표를 나누는 것은 협동심과 협력의 정신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예산을 세우는 일은 돈의 사용을 조절하게 해준다. 계속해서 돈을 쓰도록 유혹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에 매우 중대한 이슈이다.
  - 돈은 사람에 따라 안전, 기회, 독립, 향락, 힘, 지위 등의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재정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의 의사결정과 우선순위에 큰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

4)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해당 워크북 유인물 배포*

- 25분 동안 커플 보고서의 결과를 검토하고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두 개의 짧은 에제를 완성해보라.
  - 먼저, 커플 보고서에 나오는 '재정 관리'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라.

- 그 다음,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재정적인 목표의 중요성'와 '돈의 의미'에 대한 에제를 완성하라.
  - 5분 정도 개별적으로 재정목표에 대한 브래인스토밍을 하고 '돈의 의미'에 대한 퀴즈를 완성하라.
  - 둘 다 완성한 뒤에 각자의 에제를 함께 의논하라.

5)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재정적인 목표 정하기'를 완성한 뒤에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 돈의 의미는 서로에게 같은 의미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각자에게 지위, 안전, 향락, 또는 지배 외에 다른 의미로 여겨지는가?
- 최근에 따라가고 있는 예산안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나? 왜 가지고 있나? 아니면 왜 안 가지고 있나?
- 당신의 부모는 어떤 타입의 재정적 역할모델이었나?

6)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 숙제: *커플 워크북 에제 – 예산안 연습지 (각자에게 한 장씩 제공)*

7. 영성/종교적 신앙(Spiritual Beliefs)

* 자료: 커플 워크북 - *영성 탐험하기 (각자 한부씩)*
  커플 보고서 - *영성(가치관)*

1)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제일 선호하는 공휴일은 언제인가? 왜 선호하는가?

2)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신앙은 당신의 매일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당신의 신앙이나 영적인 삶이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PREPARE/ENRICH에 참여한 기혼커플 12,000쌍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따르면 커플이 영적인 신앙에 일치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의 다른 측면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높은 영적인 일치는 특히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 관리, 성적 관계, 친밀감과 유연성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Olson & Larson, 2004).
- 신앙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뿐 아니라 사소한 결정들도 하게 한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기도는 정말 무언가를 변화시키는가?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다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하나?
- 5만 커플의 결혼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일반적인 영적인 불평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신앙의 차이"였으며, 서로의 차이를 가지고 분투하는 모든 커플의 52%가 이렇게 대답했다.

4)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해당 워크북 유인물 배포*

- 당신의 파트너의 신앙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20분 동안 이 주제를 탐색하고 토론해보라.
  - 먼저, 커플 보고서에 나오는 '영성'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라.
  - 그 다음, '영성 탐험하기' 예제에 나오는 토론 질문들을 완성하라. 커플관계에서 각자의 신앙적 가치와 영적인 신앙에 대해 오픈하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당신의 영적인 여정에 대해 토론하는 중에 발견한 통찰력은 무엇인가?
- 성격 특성, 배경, 전통 등에 대한 각각의 차이가 당신의 신앙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신에게 왔던 어떤 사람도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지 않은 채 떠나지 않게 하라. 당신의 얼굴과 눈과 미소에 나타난 친절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절을 표현하라." 다른 신앙을 가진 파트너에게 어떻게 친절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8. 성, 낭만, 그리고 애정(Sexuality, Romance & Affection)

* 자료: 커플 워크북 - *친밀감의 표현 (각자 한부씩)*
커플 보고서 - *성적 기대(혼전 커플용) 또는 성적 관계(기혼 부부용)*

1)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가장 낭만적인 데이트나 기억은 무엇인가?

2)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낭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무엇인가를 낭만적으로 만드는 재료와 조건은 무엇인가? *(강사나 그룹리더는 낭만은 함께 있는 사람에 의해 황홀하다거나 넋이 빠지는 것 이상이며, 주변 환경에 의해 황홀하다거나 넋이 빠지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음을 이하임을 유념해야 한다).*
- 애정과 친밀감은 항상 '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성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룹에서 최소한 10가지를 찾아보도록 하라).* 왜 커플관계에서 성적이지 않은 애정표현 방법이 중요한가?

3)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모든 가족은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편안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가족은 애정을 말로 표현하는 반면, 다른 가족은 포옹이나 키스 등 더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또 다른 가족은 서로 친절한 행동을 통해 섬기는 등의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지만, 가족은 어떤 형태로든 애정표현을 기대한다. 애정표현은 상당부분 학습된 기술이다.

- *(개인적인 스토리나 실례가 있으면 나누라).*
- 좋은 성적인 관계는 파트너 간에 좋은 정서적 관계와 더불어 가는 것이다. 서로의 관계성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서로에게 안심과 안전감을 느끼는 커플들은 최고의 육체적 관계성을 가진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생활은 다음과 같을 것들에 기초한 정서적 친밀감으로부터 나온다:
  - 솔직한 의사소통
  - 서로에 대한 신뢰
  - 강한 우정
  - 건강한 갈등 관리
  - 서로에 대한 열정적 사랑
  - 존경심과 관계적 동등성

4)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해당 워크북 유인물 배포*

- 커플들에게 20분의 시간동안 성과 애정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라.
  - 먼저, 커플 보고서에 나오는 '성적 기대'의 결과를 검토하라.
  - 그 다음,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친밀감의 표현' 에세의 토론 질문들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며 완성하라.
    - 이 에세에는 모든 커플이 대답할 애정에 대한 질문들이 나온다.
    - 또한, 혼전 커플 또는 기혼 커플들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들이 나온다.

5)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당신이 성장했던 가족 안에서 표현되었던 애정표현의 방법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되었는가?
- 영화, TV, 노래, 인터넷 등의 미디어 메체가 성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킨다. 이러한 왜곡된 메시지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이미지, 성에 대한 기대, 또는 당신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9. 친밀감과 유연성(Closeness & Flexibility)

* 자료: 커플 워크북 - *당신의 관계지도 (각자 한부씩)*
  커플 보고서 - *커플과 가족지도(Couple and Family Maps)*

1)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당신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족 전통이나 의례에 대해 나눠보라.

2)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모든 가족은 어떤 일들을 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그들은 각자의 가족으로부터 학습된 두 가지의 독특한 접근방식을 하나의 새로운 관계 속의 삶에 통합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나누라).*

- 각자의 가족이 아주 다르게 행하는 방식 한 가지를 들어보라.
- 이러한 방식이 당신의 커플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커플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또는 살고 싶지 않은가)에 대한 많은 기대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가족의 역할들, 의사소통 스타일, 애정의 표현, 재정 관리, 전통 등).*
- 원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 '친밀감과 유연성'의 차원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친밀감과 유연성'의 차원은 당신이 성장한 원가족 안에 존재했었고, 지금은 당신의 커플관계와 가족관계 안에 존재한다.
- '친밀감과 유연성'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하여 각각의 극단(지나친 결속 & 지나친 유연성 또는 단절 & 비유연성)과 더욱 균형 잡힌 수준(적절한 결속 & 적절한 유연성)을 연속체적으로 생각하라. *(강사나 그룹리더는 커플 워크북에 나오는 '커플과 가족지도'에 대한 유인물을 커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 친밀감(closeness)은 당신이 파트너 또는 가족과 정서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져있나 하는 것을 "단절"이라는 극단에서 "지나친 결속"이라는 극단까지의 범위로 나타낸다. 친밀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분리(separateness)와 유대(togetherness)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 독립성(independence) vs. 의존도(dependence)
    - 신의(loyalty)와 연계(connection)
  - 유연성(flexibility)은 변화에 대하여 커플과 가족이 어떻게 오픈되어있나 하는 것을 융통성이 없는 "비유연성"이라는 극단에서 무질서하게 느껴지는 "지나친 유연성"의 극단까지의 범위로 나타낸다. 유연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변화에 대한 개방성
    - 리더십의 유연성
    - 역할이 어떻게 정의되고 만들어지나
    - 훈육 처리(handling discipline)
- 이러한 차원들은 가끔 너무 이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실감이 나게 된다.
  - 친밀감에 대하여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축하
    - 공휴일 동안의 가족모임
    - 가족 디너시간 / 식사시간
    - 아픈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것
  - 유연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 공정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훈육하는 것
    - 스트레스가 많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 (예를 들면, 신생아 탄생, 이사, 또는 직업 전환)
    - 가족 의행을 갖는 것
    -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 (예를 들면, 누가 청구서를 지불하는가? 또는 누가 집을 청소하는가?)

4)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해당 워크북 유인물 배포*

- 20분 정도의 시간에 예제를 완성하도록 한다. 만일 커플들이 자신들만의 사적인 장소를 갖기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 먼저, 커플 보고서에 나오는 '커플 및 가족지도'의 결과를 검토하라.
  - 그 다음, '당신의 관계 지도' 예제를 완성하라. 두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 각자의 원가족 안에서의 친밀감과 유연성을 탐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선택하라. (예를 들면, 생일 축하, 가족 디너, 또는 훈육)
    - 다음의 질문들에 대답할 시간을 확보하라:
      - 원가족으로부터 온 무엇을 당신의 커플관계에서 재연하고 싶은가?
      - 원가족으로부터 온 무엇을 당신의 커플관계에서 재연하고 싶지 않은가?

5)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친밀감과 유연성을 비교해 볼 때 당신의 가족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관계 안에서 그들의 커플 친밀감과 커플 유연성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 커플들이 서로 연계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들? 스케줄? 아니면 문화?)
- 테크놀로지가 당신의 커플 친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 커플 워크북 연습: *커플 및 가족지도 - 친밀감 연습*
- 커플 워크북 연습: *커플 및 가족지도 - 유연성 연습*

10. 마지막 마무리(Final Wrap Up)

* 자료: 평가서, 커플 연습 - *함께 성취할 삶의 목표*
(마지막 회기에 커플 모두에게 커플 워크북 전체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

- 다음 주 이 그룹 프로그램이 모이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2)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

- 어떤 회기의 주제를 가장 선호했는가? 그 이유는?
- 이 그룹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빼면 가장 도움이 되겠는가?

3) 강의 요점(Teaching Points)

- 연구결과에 의하면 PREPARE/ENRICH 프로그램에 참여한 커플들은 그들의 관계성 기술이 증진되고 관계 강점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되었다. 계속해서 자기주장(표현)과 적극적인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기법들을 실천하라. 이러한 도구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정말 효과가 있다!

- 이 그룹에서 모든 주제를 다루지 못했다. 커플 워크북에는 당신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많은 주제와 예제가 있다. 모든 예제를 마칠 때까지 한 주에 한 주제씩 해보도록 격려한다.
- *(리더로서 이 그룹을 관찰한 내용을 나누라. 커플들에게 계속 성장하도록 격려하라! 당신의 커플관계 여정에 대한 스토리를 나누라).*
- 함께 성취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써보고, 토론하고, 어떤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당신의 커플관계와 결혼생활이 변하게 될지를 상의하라. 1970년대 말 하버드 MBA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했다:
  - 84%는 특별한 목표가 없었다.
  - 13%는 목표가 있었으나 종이에 써놓지 않았다.
  - 3%만이 명확하게 종이에 쓴 목표와 성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10년 뒤 같은 졸업생들을 인터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보다 2배의 수입을 가졌으나 평균의 수입이었다.
  - 놀랍게도 명확하게 종이에 쓴 목표와 성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3%는 나머지 97%보다 열 배의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출처: Mark McCormack, "What They Don't Teach You in the Harvard Business School")

4) 커플 연습(Couple Exercise) - *'강사 가이드' 맨 뒤에 나오는 평가서 배포*

- 커플끼리만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라.
  - 먼저, 프로그램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솔직한 피드백이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 그 다음, '함께 성취할 삶의 목표' 예제를 완성하라. 먼저 각자가 혼자 작성한 뒤에 개인, 커플, 그리고 가족의 목표를 파트너와 나누라.
  - 개인, 커플, 그리고 가족의 목표를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5) 그룹 마무리(Group Wrap Up)

- P/E 그룹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관계성에 대하여 정했던 목표를 기억하는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것이 이곳에서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리더는 1회기 때 커플들이 정했던 목표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다).*
- 이 그룹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생각, 질문, 코멘트가 있는가?
  (스스로 P/E 설문지를 하고 그룹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친 커플들의 헌신에 감사하라. 그들의 미래에 함께 잘 살기를 기원하라)!

6) 보너스 자료 및 제안(Bonus Material and Closing Suggestions)

- 만일 커플관계가 어려움에 빠져있거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기 바란다. 예를 들면:
  - 도움이 될 만한 책과 자원들
  - 당신의 P/E 설문지에 대한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
  - 결혼 멘토링 및 상담 의뢰
  - 수련회, 수업 등의 기회들

부록 3. 약혼한 커플들을 위한 후속질문들(Follow-Up Questions)[170]

1. 의사소통(Communication)

* 의사소통 영역은 커플들이 그들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질이 높게,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가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커플이 어떻게 서로의 감정(느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가를 탐색한다.
(질문들의 '+'표시는 긍정적 질문을, '-' 표시는 부정적 질문을 나타낸다. - 역자 주)

- 나는 내 파트너가 자신의 감정(느낌)을 나와 더 많이 나누기를 바란다.
  -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와 당신의 감정(느낌)을 나누기가 어려운 때는 언제인가?
  - 관계에서 감정(느낌)을 나누는 것이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언제 당신의 파트너가 자신의 감정(느낌)을 말하는가?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지금 당신의 감정(느낌)은 어떤가?
- 나는 가끔 내 파트너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일에 어려움을 가진다.
  -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믿기 어려울 때 그것을 당신의 파트너와 나눌 수 있는가?
  -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당신의 파트너가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진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믿음을 배반했던 일이 있는가? 있다면 나눌 수 있는가?
+ 나는 내 파트너에게 나의 진실된 감정(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당신의 파트너에게 당신의 진실된 감정(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과 자신의 감정(느낌)을 나누는 것에 실패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 어떻게 당신의 파트너가 자신의 감정(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 어떻게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감정(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파트너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한다.
  - 당신은 당신의 커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왜 당신은 가끔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다루기를 회피하는가?
  -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침묵하거나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당신의 파트너가 문제에 대하여 말하기를 거부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

170) 모든 내용은 Life Innovations, Inc., *Follow-Up Questions for Engaged Couples*, (Online Version;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2009)를 본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 내 파트너는 매우 좋은 경청자이다.
  - 무엇이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가?
  - 무엇을 해야 당신의 파트너에게 당신이 듣고 있고, 말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겠는가?

- 때로 나는 내 파트너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
  -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에게 당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이 힘든 이유를 나눌 수 있는가?
  - 당신의 파트너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당신은 반응은 어떠한가?
  -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주장(표현)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 나는 내 파트너와 부정적인 감정(느낌)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
  -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느낌)을 나눌 때 당신의 파트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가 부정적인 감정(느낌)을 나눌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느낌)을 나누는 것이 왜 어려운가?
  - 좀 더 쉽게 부정적인 감정(느낌)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내 파트너는 가끔 나를 깔아뭉개는 말을 한다.
  - 당신의 파트너가 무슨 말을 할 때 당신을 깔아뭉개는 느낌을 갖게 하는지 나눌 수 있겠는가?
  - 당신을 깔아뭉개는 느낌이 들 때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를 깔아뭉개지 않고 당신의 관심사나 불쾌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 당신이 깔아뭉개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촉발 원인은 무엇인가?

- 내 파트너는 가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 당신은 당신의 감정(느낌)을 당신의 파트너와 어떻게 나누는가?
  - 당신의 파트너가 자신의 감정(느낌)을 나눌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당신의 감정(느낌)을 나누거나 당신의 파트너의 감정(느낌)을 듣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지는가?
  - 당신의 파트너가 느끼는 감정을 당신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그녀에게 알게 하는가?

부록 4.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의 주제와 나눔 가이드 샘플

1. '친밀한 사랑'과 '자발적 헌신'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주제와 나눔 가이드 샘플

1) 친밀감 형성 I: 서로에 대해 깊이알기
(부부 별칭 짓기, 애정지도 만들기, 서로의 장점 찾아 칭찬해주기)
2) 친밀감 형성 II: 서로 더욱 가까워지기
(사랑의 언어, 애정은행 예금안내, 3분 애정뉴스)
3) 친밀한 관계: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해하기
(부부의 성격 차이 이해하기, 화성파(남자)와 금성파(여성) 화해하기)
4) 친밀한 대화 I: 상대방의 언어로 들어주기
(역기능적 경청 수정하기, 경청의 기술 배우기, 화자/청자 대화의 기술 배우기, 기능적 경청과 역기능적 경청에 대한 역할극)
5) 친밀한 대화 II: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기
(역기능적 표현 수정하기, 표현의 기술 배우기, 화자/청자 대화의 기술 실천해보기, 기능적 표현과 역기능적 표현에 대한 역할극)
6) 친밀한 성: 서로의 욕구와 요구 방식의 차이 이해하기
(성에 대한 오해 풀기, 남녀의 성에 대한 차이 이해하기, 성적 친밀감을 위한 대화와 스킨십 이해하기, 기독교인의 성(聖)스러운 성)
7) 자아 존중: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깊이 알고 존중해주기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발견하기, 자아 존중감 분석하기, 서로의 자아 존중감 높여주기)
8) 상호 존중: 상호 존중,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을 통한 헌신
(부부동등성 이해하기, 부부상호성 이해하기, 상호존중의 방법 배우기)
9) 갈등해결 I: 서로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기
(갈등 유형 분석하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들어주기, 갈등을 일으키는 환경 분석하기, 해결 가능한 갈등 다루기, 갈등을 진정시키는 대화법 연습하기)
10) 갈등해결 II: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하고 감사하기, 잘못의 뿌리를 찾고 이해하기, 배우자에게 용서의 편지 쓰기, 용서와 수용의 기도하기)
11) 원가족 이해: 자신과 배우자의 원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나의 IMAGO, 부모의 IMAGO 이해하기, 가계도 그리기, 원가족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발견하기)
12) 부부 헌신: 서로의 역할과 기대하는 역할을 확인하고 조정하기
(부부 동역의 관계 이해하기, 잘 해온 역할을 지지하고 감사하기, 기대하는 역할 확인하고 조정하기,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기)

2. Christian PREP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주제와 나눔 가이드 샘플

1) 부부관계의 하나됨, 영구성, 그리고 개방성
(하나됨의 신비, 영구적으로 하나되게 하심, 하나됨과 개방성을 가로막는 장벽들)
2) 갈등 해소와 하나됨 지키기
(하나됨을 파괴하는 주요 행동양식, 위험신호들, 부정적인 것들의 저력, 하나됨을 저해하는 2가지 위험요소, 성별에 따른 유형들, 안전감 및 구조, 화자/청자 기법)
3) 그릇된 의사소통과 여과장치
(그릇된 의사소통, 그릇된 의사소통 방식을 극복하기, 타임아웃 기술, 화자/청자 기법 연습)
4) 건설적인 비평의 표현
(파괴적인 스타일과 행위, 상대의 마음읽기, 파괴적인 의사전달방식 3가지, 관심사를 좀 더 잘 표현하는 방법, XYZ 진술)
5) 문제와 의견차이 해소
(문제와 의견차이의 조정, 효과적인 방법: 문제의 토론, 기도, 문제해결)
6) 갈등과 의견차이 해소의 원칙
(갈등으로부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들, 권장할만한 여섯 가지 효과적인 원칙들)
7) 기대사항
(기대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결혼에 대한 기대, 기대사항이 끼치는 영향력)
8) 감추어진 이슈와 사건들
(이슈와 사건 모델, 감추어진 이슈와 숨겨진 쟁점들)
9) 헌신(Commitment)
(헌신에 관한 성경 및 연구상의 견해들, 헌신에 내포된 의미들)
10) 용서: 하나됨의 회복
(개요, 정의, 서로 용서해야 할 이유들, 용서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이 아니다")
11) 결혼의 축복들
(결혼 약속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우정의 중요성, 우정의 유지,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재미있는 시간들을 갖기, 육체적으로 하나됨)
12) 결혼생활의 영성
(영적인 하나됨에 대한 약속, 영적인 하나됨을 배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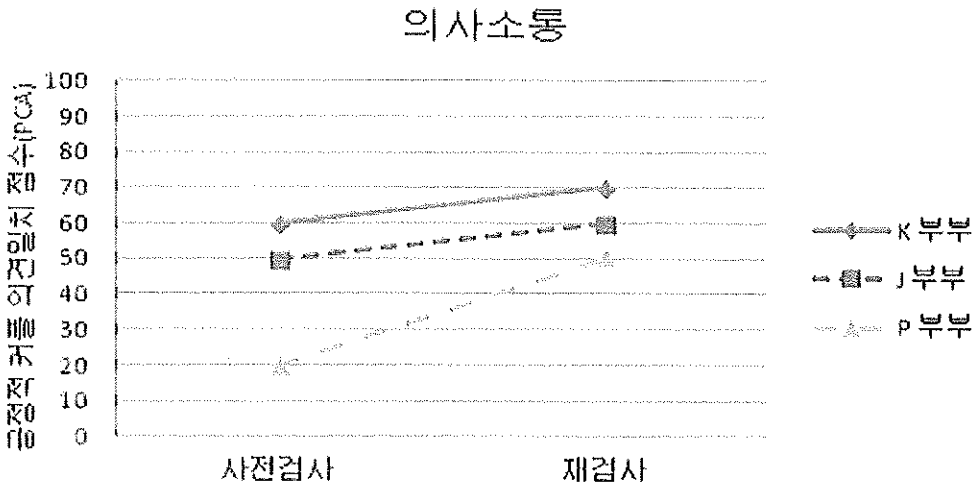
3.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171]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주제와 나눔 가이드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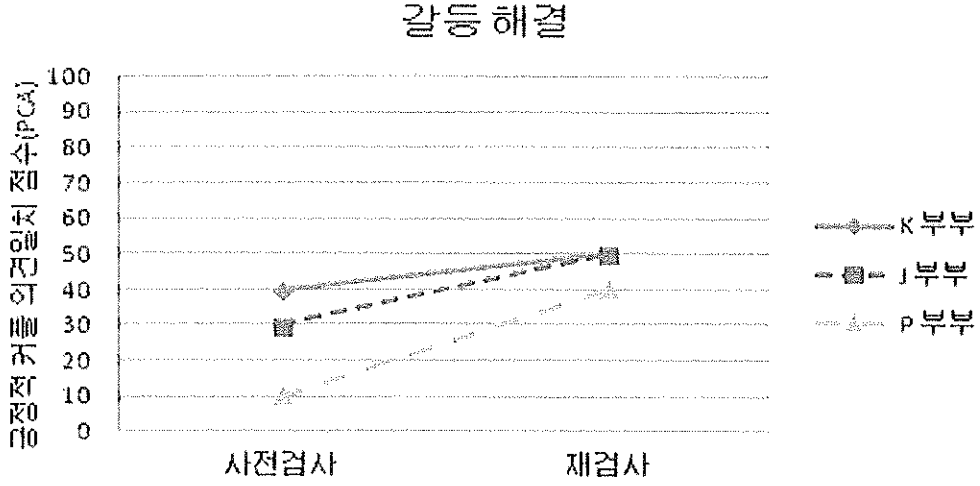
1) '행복한 결혼'이란?
(감성적 지능(EQ)으로 결혼생활하기, 결혼에 관한 신화 깨뜨리기, 부부간의 우정 쌓기)
2) 갈등의 여섯 가지 신호들
(좋지 않은 첫마디, 네 가지 위험요인, 홍수(지나친 규탄), 몸짓, 회복 시도의 실패, 나쁜 추억)
3) 행복한 결혼의 원칙 1: 애정 지도를 상세하게 그려라.
(애정 지도 테스트, 애정 지도 질문개입, 자신의 애정 지도 만들기, 나는 누구인가?)
4) 행복한 결혼의 원칙 2: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과거로부터 배우기, 배려와 존중에 관한 설문, 상대방의 긍정적인 측면 발견하고 나누기,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나누기)
5) 행복한 결혼의 원칙 3: 상대방에게서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로맨스 테스트, 애정 은행예금 확인하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대화,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
6) 행복한 결혼의 원칙 4: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저항의 신호 읽기, 서로에게 배우기, 서로 양보하기, 의견 존중 테스트)
7) 부부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지속되는 문제 확인하기, 해결가능한 문제 확인하기,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문제 해결의 열쇠)
8) 행복한 결혼의 원칙 5: 해결 가능한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라.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기, 대화 유형 테스트, 회복 시도를 주고받기, 회복 시도 테스트, 서로 흥분하지 않기, 적대 감정 테스트, 타협하기, 관대해지기)
9) 전형적인 다섯 가지 문제의 해결책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고부간의 갈등, 성생활, 가사분담, 부모역할)
10) 행복한 결혼의 원칙 6: 둘이서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 상황을 극복하라.
(서로의 꿈 이해하기, 꿈 찾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기, 서로에게 감사하기)
11) 행복한 결혼의 원칙 7: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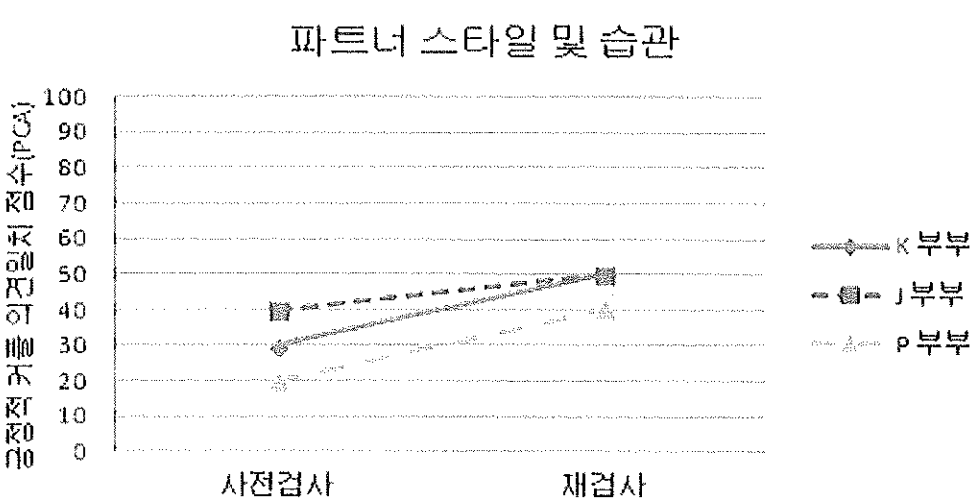
---

171) John M. Gottman and Nan Silver,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임주현 역 (서울: 분학사상사,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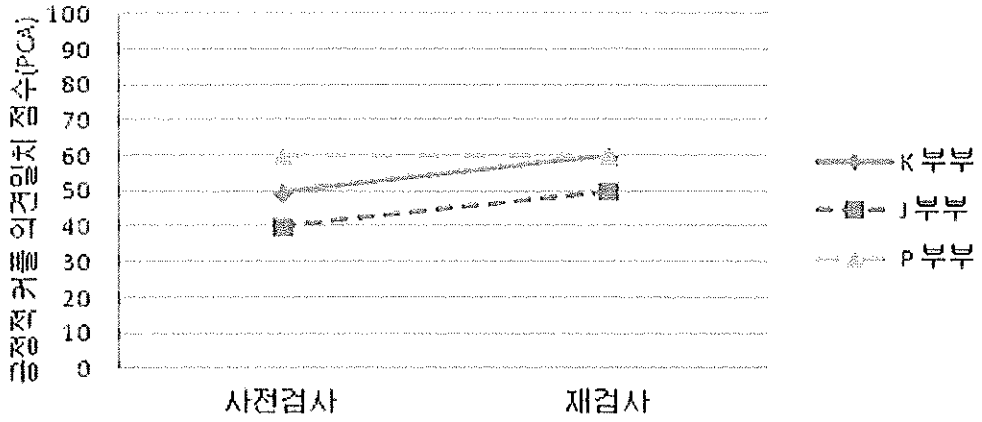
<부록 5>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에 대한 그레프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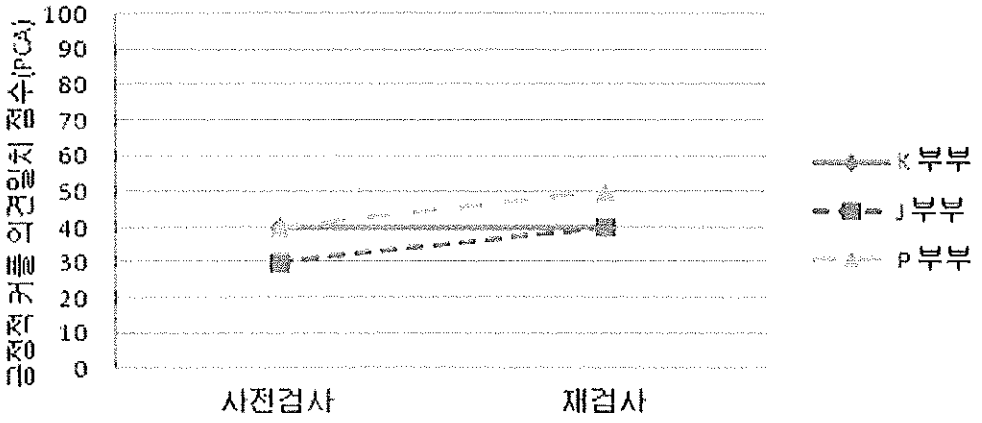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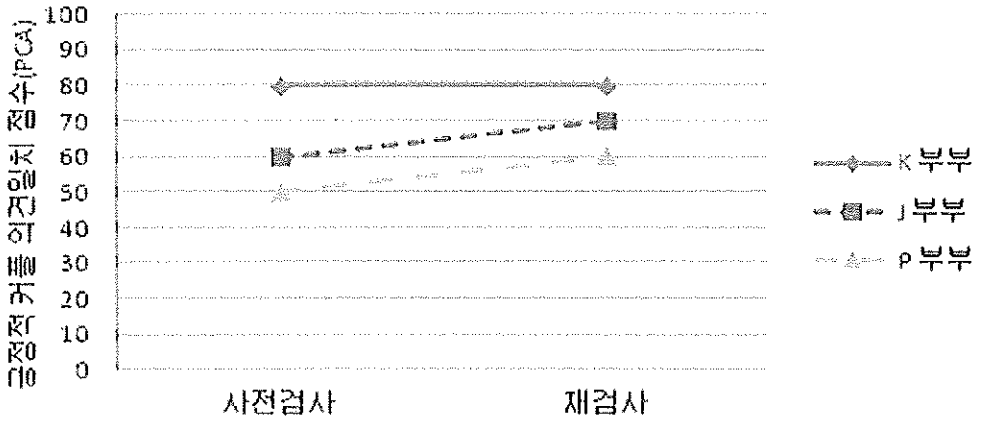
재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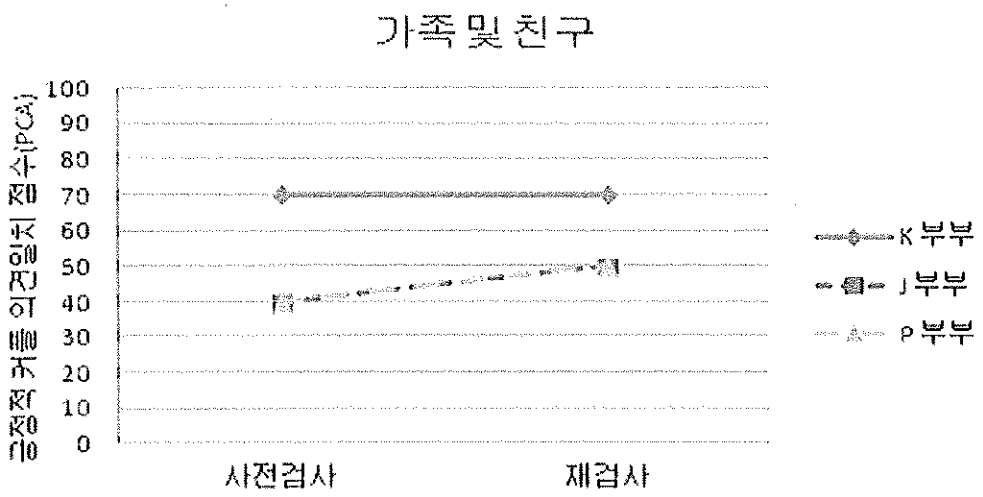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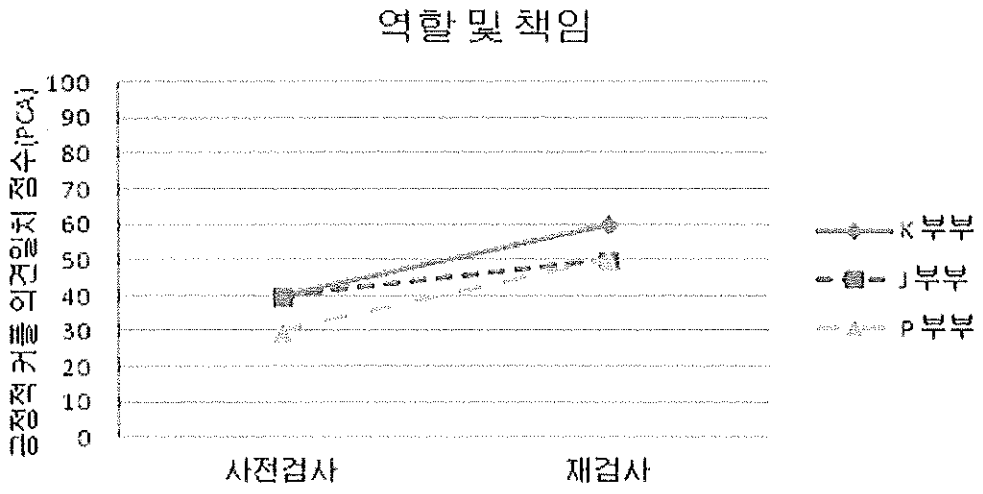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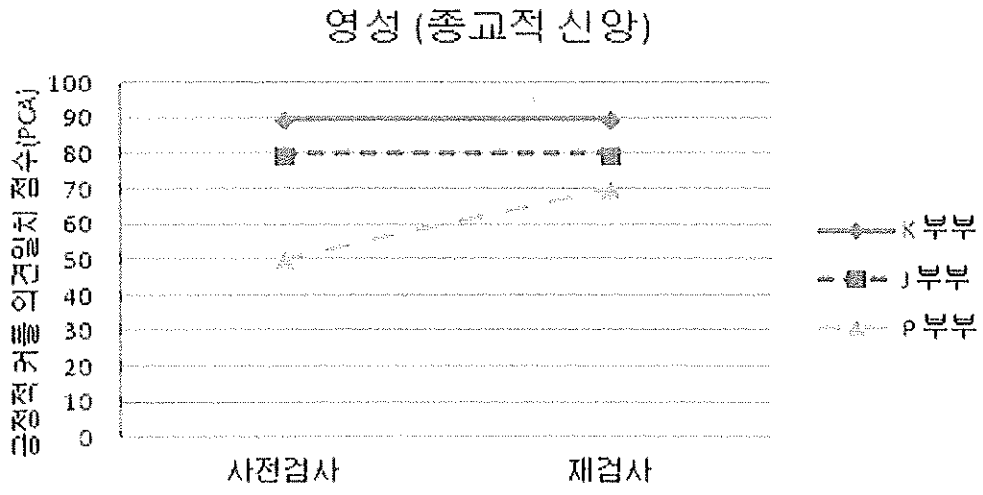


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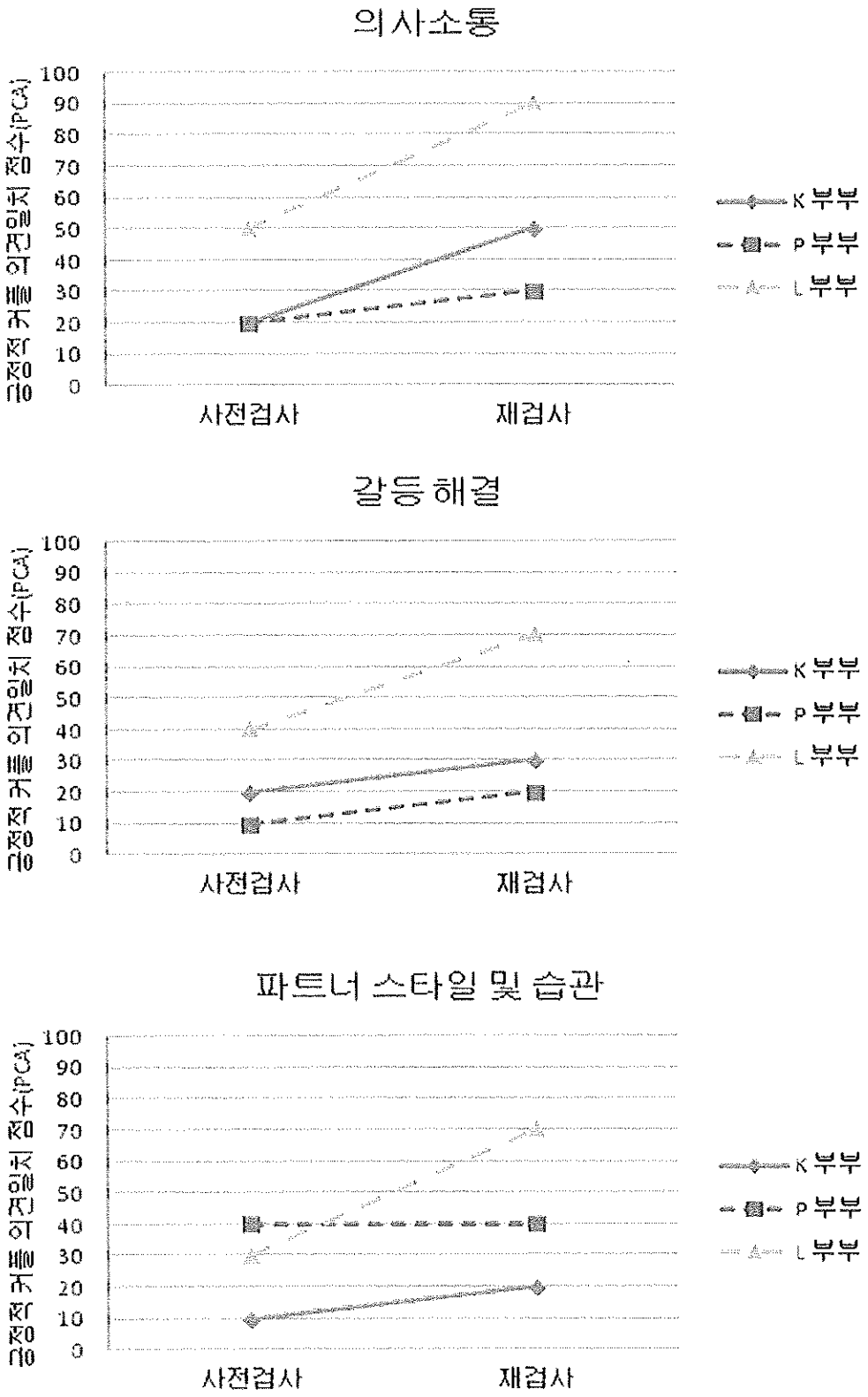



가족 및 친구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사전검사
재검사
K부부
J부부
P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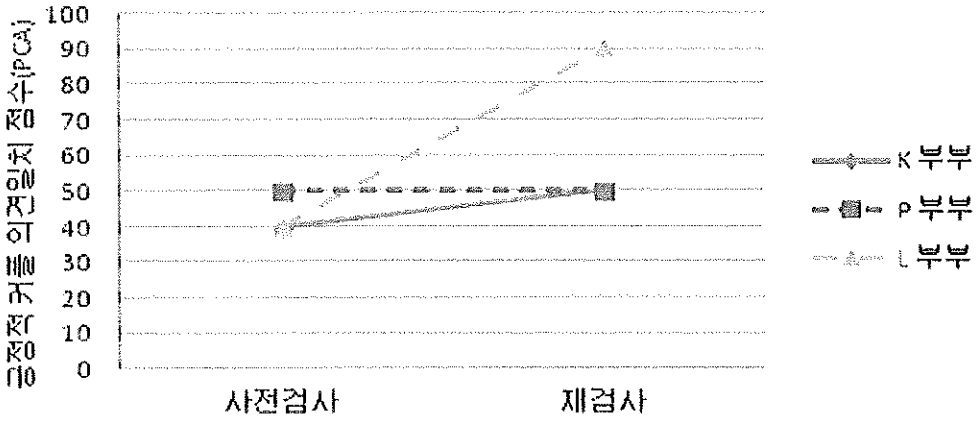

역할 및 책임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사전검사
재검사
K부부
J부부
P부부


영성 (종교적 신앙)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사전검사
재검사
K부부
J부부
P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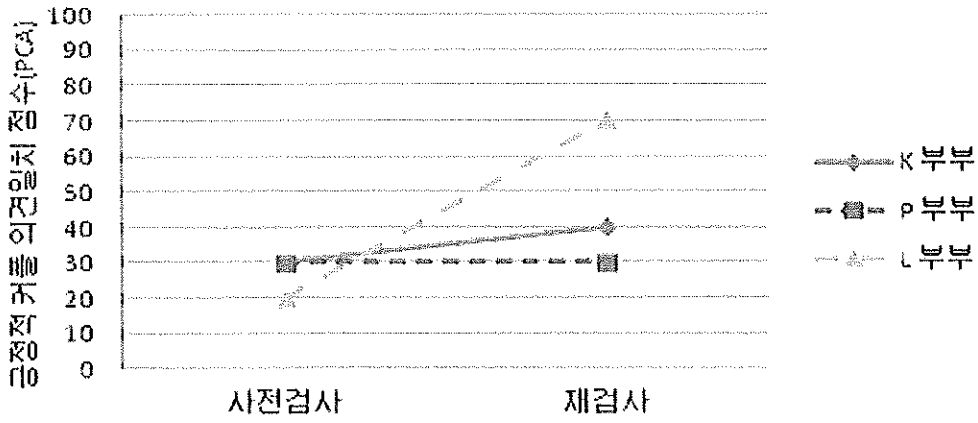
<부록 6>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와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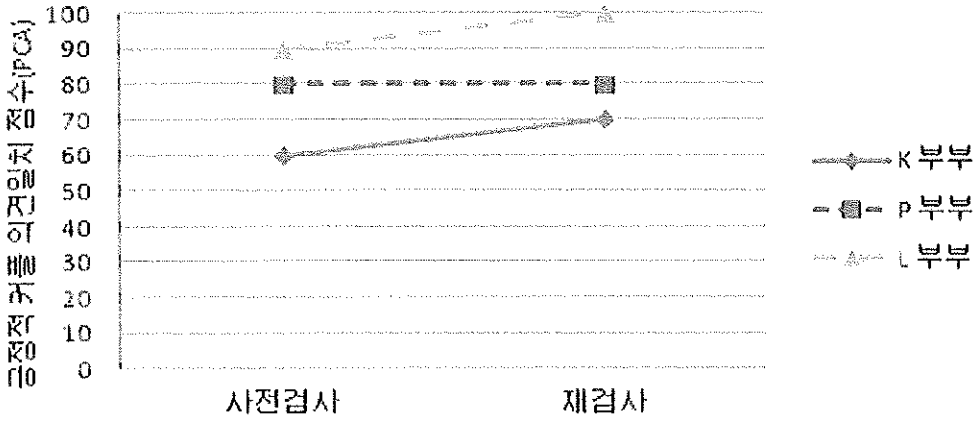
재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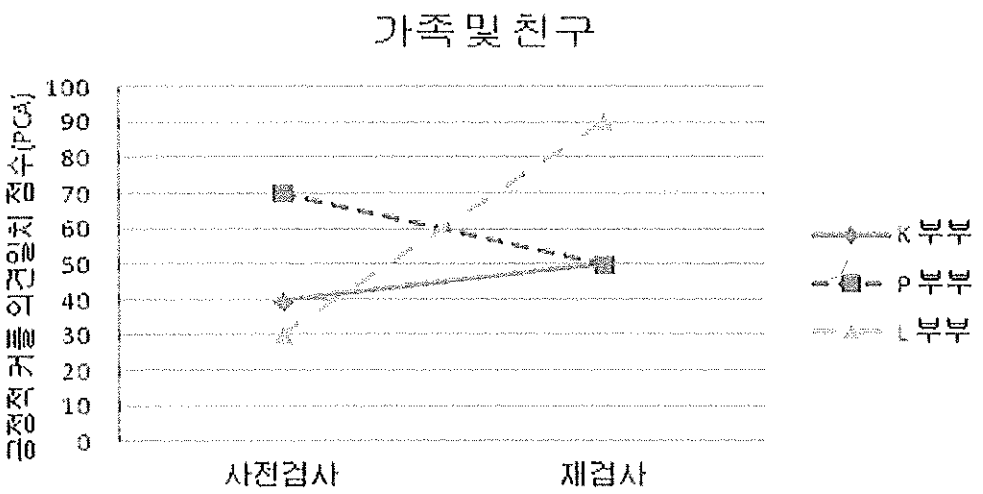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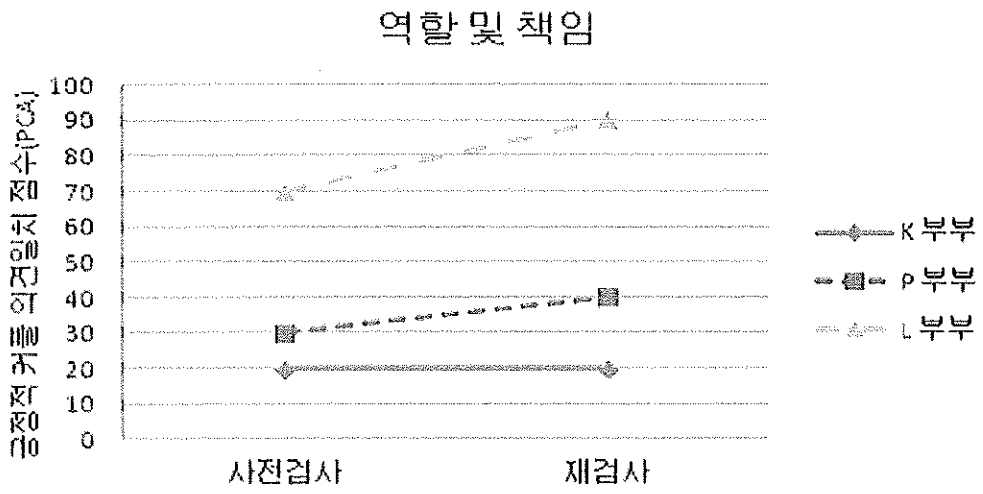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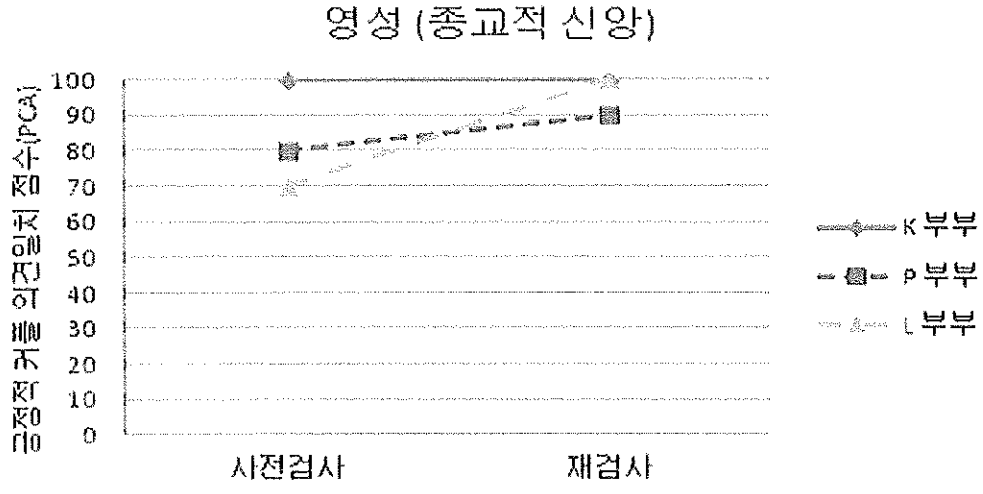


성관계




가족 및 친구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사전검사
재검사
K 부부
P 부부
L 부부


역할 및 책임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사전검사
재검사
K 부부
P 부부
L 부부


영성 (종교적 신앙)
긍정적 커플 의견일치 점수(PCA)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사전검사
재검사
K 부부
P 부부
L 부부

<부록 7> PREPARE/ENRICH 그룹 프로그램 커플 평가서

강사(그룹 리더): _____ 참석 일시: _____

성별: 남성( ) 여성( ) 연령대: 결혼경력:
결혼_____년차

1.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_____

2. 이 프로그램을 위해 몇 번 만났습니까?(참석한 회기) _____ 번(회기)

3. 어떤 프로그램 형태에 참석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시오)*
a. 매주 b. 주말 c. 격주 d. 매달 e. 기타 _____

4.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주제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시오)*
__ 의사소통(대화법)
__ 성격 특성
__ 갈등해결
__ 역할 관계
__ 재정 문제
__ 영성(종교적 신앙)
__ 성적인 문제
__ 커플 지도(Couple Map)
__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
__ 커플 목표

5. 커플 보고서(Couple's Report)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a. 전혀 b. 조금 c. 어느 정도 d. 만족스럽게 e. 대단히

6. 당신의 배우자와의 커플 토의(Couple Discussions)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a. 전혀 b. 조금 c. 어느 정도 d. 만족스럽게 e. 대단히

7. 다른 커플들과의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s)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a. 전혀 b. 조금 c. 어느 정도 d. 만족스럽게 e. 대단히

8.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당신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낍니까?
a. 전혀 b. 조금 c. 어느 정도 d. 만족스럽게 e. 대단히

9. 전체적으로 PREPARE/ENRICH 그룹 프로그램이 유용했습니까?
a. 전혀 b. 조금 c. 어느 정도 d. 만족스럽게 e. 대단히

10.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강사(그룹 리더)를 평가한다면?
a. 안좋았다 b. 괜찮았다 c. 좋았다 d. 매우 좋았다 e. 탁월했다

11.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면?
a. 안좋았다 b. 괜찮았다 c. 좋았다 d. 매우 좋았다 e. 탁월했다

12. 이 프로그램을 친구들(친구 커플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네 ___ 아니오 ___

13.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어떤 면이 좋았습니까?

_____

_____

14.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안 좋았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이 좋지 않았습니까?

_____

_____

15. 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_____

_____

_____

평가서를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록 8>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

1. 한인 교회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우기 위한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

② 필요하지 않다 ( )

③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 ): 이유는?

2.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목사님 교회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① 가능하다( ): 이유는

② 가능하지 않다( ): 이유는

3.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교회 안에 어떤 여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의 장점들과 문제점들,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말씀해주십시오.

① 장점:

② 문제점:

③ 해결책:

5. 신혼부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한인 교회에 정착되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문헌

1. 국문 서적

권오균. *참 자아를 찾아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김덕일, 박제우, 송원영, 이지연. "한국판 ENRICH 결혼만족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기독교심리학회지* (2009. 11.): 11-34.

김덕일, 송원영.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 *한국기독교심리학회지* (2011. 05.): 49-70.

김유숙.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2.

김희진.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7, No.4 (2005): 877-906.

맹용길. *가정과 윤리*. 서울: 쿰란출판사, 1995.

문석호. *한국 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문순희.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가족치료와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Ph.D. diss.,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9.

박남숙, 연문희.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Vol. 3. (2002): 338-364.

박수선. "신혼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건강가정지원센터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 1호 (2013): 85-98.

박제우. "한국판 ENRICH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7): 80-81.

서병숙 외. *현대 가족과 복지*. 서울: 교문사, 2002.

설은주. *가정사역론*. 개정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송원영. "ENRICH를 근거로 한 한국 부부의 5가지 유형."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7): 82-83.

안종수.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제23집 (2002): 275-287.

임승용. "가정사역의 성경적 기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엄예선. *기독교 결혼의 기초들*. 강의보조자료,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11.

_____.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오성춘. "가족생활주기와 성경적 가정." *기독교 가족상담 제2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유영주.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4.

윤정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정사역 프로그램." *신학지평* 제14집 (2001): 108-128.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이주석. "ENRICH 검사를 활용한 부부성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D.Min.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9.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정문사, 1983.

정문자, 이현수, 김연희. "가족생활주기별 내담자의 문제와 가족치료기법 분석." *Annual Report of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vol.16 (2002): 83-96.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1994.

조성경.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 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5호 (2006): 17-35.

체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신문사, 2000.

황의영. *목회상담원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1.

2. 번역 서적

Anderson , Keith R., and Randy D. Reese. *영적 멘토링 (Spiritual Mentoring).* 김종호 역. 서울: IVF, 2001.

Augsburger, David.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사랑방정식 (Sustaining Love: Healing & Growth in the Passages of Marriage).* 이현숙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Balswick, Jack O., and Judith K.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The Christian Family).* 황성철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Biehl, Bobb. *멘토링 (Mentoring).* 김성웅 역. 15쇄;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Bilezikian, Gilbert G. *공동체 101 (Community 101).*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Chapman, Gary D. *5가지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Languages).* 장동숙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Chapman, Gary D., and Jennifer M. Thomas. *5가지 사과의 언어 (The Five Languages of Apology).*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Charles, Sell M. *가정사역 (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Clinebell, Howard J. Jr. *목회상담신론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박근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7.

_____. *성장 그룹 (Growth Groups).* 이종헌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Collins, Gary R. *교회 지도자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 (Effective Counseling).* 정동섭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4.

_____. *왜 그리스도인이 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이종일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2.

_____. *크리스챤 카운슬링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해련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4.

Crabb, Lawrence J. Jr. *결혼건축가 (The Marriage Builder).*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_____. *인간 이해와 상담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11.

Eggerichs, Emerson. *부부를 새워가는 대화의 기술 (Cracking the Communication Code).* 최광수 역. 서울: 죠이선교회, 2009.

Ferguson, David, and Teresa Ferguson. *기독교인들의 건강한 결혼 (Keeping Marriages Healthy).* 풀러신학교 한국 목회학 박사원(엄애선, 이성희) 역. 강의보조자료.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11.

Friesen, DeLoss D., and Rudy M. Friesen. *결혼상담 (Counseling & Marriage).* 김만풍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2.

Garland, Diana S. R., and Betty Hassler.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부부의 삶 (Covenant Marriage: Partnership and Commitment).*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George, Carl F.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Five Keys to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hip).* 박종훈, 정종현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Gottman, John M., and Nan Silver.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사, 2002.

Gray, John.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김경숙 역. 서울: 도서출판 친구미디어, 1993.

Harley, Willard F. Jr. *베스트 부부 (His Needs Her Needs).* 김희선 역. 서울: 나침반社, 1998.

Henderson, D. Michael.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A Model for Making Disciples: John Wesley's Class Meeting).* 이헤림 역. 서울: 서로사랑, 2011.

Icenogle, Gareth W.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 역. 서울: SFC출판부, 2007.

Keener, C. S. *바울과 여성: 바울서신의 결혼관과 여성목회 (Paul, Women & Wives).* 이은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Litchfield, Bruce, and Nellie Litchfield.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Christian Counselling and Family Therapy)*, vol 3. 정동섭, 정성준 역. 경기: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2.

Maston, Thomas B., and William A. Tillma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Bible and Family Relations).*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Murren, Doug. *치유하는 교회 (Churches That Heal).* 심영우 역. 서울: 홍성사, 2006.

Papero, Daniel V. *보웬 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Bowen Family Systems Theory).* 남순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Parrott, Les III, and Leslie Parrott. *결혼: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사랑하라 (Saving Your Marriage Before It Starts).* 정동섭 역. 재판. 서울: 요단출판사, 1999.

Sell, Charles. M. *가정사역 (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Stanley, Scott M. *크리스천 프렙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Christian PREP Leader's Manual).* 엄예선, 조경희, 김선일 역. 강의보조자료.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11.

Stanley, Scott M., Daniel Trathen, Savanna McCain, and Milt Bryan.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결혼 생활 지침서 (A Lasting Promise: A Christian Guide to Fighting for Your Marriage).* 정동섭, 안신우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IVP), 2003.

Tan, Siang-Yang. *평신도 상담자 (Lay Counseling).* 편집부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Thomas, Gary L. *부부학교 (Sacred Influence).* 윤종석 역. 서울: CUP, 2011.

3. 외국 서적 (재인용 문헌 포함)

Balswick, Jack O., and Judith K. Balswick.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9. Repr., 1990.

Childs, Geniel. "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An Evaluation of Essential Elements of Qu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of Brigham Young University, Utah, 2008.

Clinebell, Howard.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esources for the Ministry of Healing and Growth.*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4.

Crabb, Lawrence J. Jr. *The Marriage Builder*.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Bondi, R. "Family, Christian Theology, and Ethics of." In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dited by R. J. Hunter. Nashville, TN: Abingdon, 1990.

Browning, Don S. et al..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Religion and the American Family Debat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7.

Brunner, Emil. *The Divine Imperative: A Study in Christian Ethics*. London: Lutterworth Press, 1937.

Ennis, Patricia. *The Third Option: Support Group for Hurting Marriages Manual*. The Third Edition. Syracuse, N.Y.: Roman Catholic Diocese of Syracuse, 1989.

Futris, Ted G., Allen W. Barton, Tiffiany M. Aholou, and Desiree M. Seponski. "The Impact of PREPARE on Engaged Couples: Variations by Delivery Format."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10 (2011): 69-86.

Garland, Diana S. R., and David E. Garland. *Beyond Companionship Christians in Marriag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_____. *Family Ministry: A Comprehensive Guid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Hebbard, D. *The Complete Handbook for Family Life Ministry in the Church.*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95.

Hawkins, Ronald E. *Strengthening Marital Intimac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1.

Life Innovations, Inc. *Prepare/Enrich Counselor's Manual.* Online Version;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2012.

Olson, David H., Amy K. Olson and Peter J. Larson. "PREPARE-ENRICH Program: Overview and New Discoveries about Couples." *Journal of Family & Community Ministries.* (2012): 25, 30-44.

_____. David H., Amy K. Olson-Sigg, and Peter J. Larson. *The Couple Checkup: Find Your Relationship Strengths.* Nashville, TN: Thomas Nelson Inc., 2008.

Smith, Atoinette, and Leon, Smith. *Growing Love in Christian Marriage, Pastor's Manual.* Nashville, TN: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81.

Sawin, Margaret M. *Family Enrichment with Family Cluster.* Valley Froge, PA: Judson Press, 1980.

Tan, Siang-Yang. *Lay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Worthington, Everett L. Jr.. *Marriage Counseling: A Christian Approach to Counseling Coupl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9.

Vita of
Hoo Sug Lee

Present Position:

Executive Pastor of Bethany United Methodist Church, New Jersey

Vice President of the Greater New Jerse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ssociation

Personal Data:

Birth date:	November 13, 1961
Marital Status:	Married to Kyung J. Choi
Home Address:	2052 Hoefleys Lane, Fort Lee, NJ 07024
Denominatio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rdained:	1987 from the Korean Methodist Church
Transferred:	2012 to the United Methodist Church

Education:

B.A.:	Mokwon Methodist University, Daejeon, 1985
M.A. in Music:	Mokwon Methodist University, Daejeon, 1992
M.T.S.:	Wesley Theological Seminary, Washington DC, 1996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2006 to present:	Executive Pastor of the Bethany UMC, New Jersey
2002 to 2006:	Founder and Senior Pastor of the Jesus' Followers UMC, New Jersey
1998 to 2002:	Associate Pastor of the Bethany UMC, New Jersey
1996 to 1998:	Associate Pastor of the Christ UMC, Hawaii